

동성애자들의 ‘세(勢, [數]) 불리기’에 대한 재고

: 그리스·로마시대의 동성애와 여러 문화권의 ‘유사 동성애’를 중심

강 상 우

논문 요약

동성애와 관련해 다양한 영역에서 친동애(pro-gay, anti-hetero)적 관점과 반동성애(pro-hetero, anti-gay)적 관점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성적 지향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이 오늘날의 동성애(자)하고 무관(無關)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동성애(자)라고 지칭(指稱)하고 그들을 동성애의 범주로 포함시키려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해서 동성애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성애자들(과 이들을 지지[擁護]하는 자들)의 이러한 행동[事例]들을 동성애자들의 ‘수(數, [勢]) 불리기’라고 정의하고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잘못된 것임을 재고(再考, rethinking)하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들 동성애자들의 수 불리기에 포함되고 있는 고대 그리스·로마 동성애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사 동성애 형태들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 형태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그리스·로마의 동성애나, 오늘날 다른 문화권에서의 유사[형태의] 동성애 사례를 들어서 오늘날의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데에는 논리적으로 많은 무리수(無理數)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겉보기에는 이들 주장은 일리(一理)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살펴보면 이러한 동성애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는 ‘수(數, [勢]) 불리기’ 주장은 다양한 면에서 무리(無理)가 따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주제어: 동성애. 유사[형태의] 동성애. “수(세) 불리기”. 그리스·로마 동성애.

동성애자들의 ‘세(勢, [數]) 불리기’에 대한 재고

: 그리스·로마시대의 동성애와 여러 문화권의 ‘유사 동성애’를 중심

I 들어가는 말

1 오늘날 [親]동성애자들의 ‘세 불리기’의 다양한 양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당화의 근거를 어디에선가 찾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읽은 책(내용이 거의 19禁 水準. 개인적으로 아는 분을 도서관에서 만나는데 그분이 나에게 왜 그런 책을 읽느냐고 물었다. 책 제목에 ‘포르노’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¹)에 나온 사례에 등장하는 세른 살의 평범한 동성애자도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어디에선가 찾고자 했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른 살의 게이에게 왜 이성애 남자가 나오는 게이 포르노를 좋아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제가 보기엔 남자를 좋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툭 까놓고 말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저만큼 남자들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성애 남자가 다른 남자와 섹스 하는 장면을 보면 제가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것 봐, 저 남자도 결국은 나랑 똑같다니까.”(Gaddam and Ogas, 2011: 414).

여성과 결혼하고 또 그 여성으로부터 두 아들을 두었으면서도 동성애자의 삶을 살아온 영국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²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할 수 있다.

¹ 도서관에서 이런 책 제목이 좀 야한 책을 빌린다는 것은 좀 그렇다. 서로 다른 대학도서관에서 있었던 두 가지 경험을 적어 본다. 한번은 털[毛]에 관한 책을 빌렸다(이 대학에서 책을 빌릴 때에는 이곳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집사님의 도움을 얻기 때문에 거의 2개월간 대출이 가능하다). 제목만 보고 음모(陰毛)에 관한 내용인 줄 알고 속 내용을 안 보고 급하게 빌려왔는데(당시 그 책이 성과 관련된 곳에 있어서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 와서 보니 털은 털인데 음모가 아니라 수염과 머리카락이 내용의 중심인 책이었다. 그 책은 다음과 같다. Mayr, Daniela F. and Klaus O. Mayr (2003). *Von der Kunst, Locken auf Glatzen zu drehen: Eine Illustrierte Kulturgeschichte der Menschlichen Haarpracht*. Frankfurt am Main: Eichborn. 김희상 역 (2004). 『털: 수염과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본 체모의 문화사』. 서울: 작가정신. 물론 음모에 관한 내용도 일부 있어 본 글을 쓰는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또 다른 대학도서관(10일에 7권 대출이 가능해 거의 1주일에 한 번은 가야한다)이었는데, 대출하는 곳에 대학 재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나에게 ‘동성애하고 친해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뵈트 모르고 “물론이지요.”라는 의미 없는 대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 종류의 책을 자주 내가 빌려 간 것을 그곳에 있는 청년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² 로베르 메를르가 오스카 와일드에 관해 쓴 박사학위 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의상이며 걸치장, 복장도착증, 재치에의 취향, 선량한 여성상을 찾던 중에 맞이하게 된 여동생 이슬라의 죽음, 매력 없는 젊은 상속녀 콘스탄스 로이드와의 무미건조한 오랜 결혼생활, 육체와 생

“런던 사교계의 총아이자 도깨비 같은 존재가 되기 전, 오스카 와일드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진지하게 연구해서 출판하고자 했다. 그는 ‘지독히 추잡한 행위’와 관련된 유명한 고소(와일드는 1891년 엘프레드 더글러스를 만나 교제하게 되었는데, 이에 분노한 더글러스의 부친이 와일드를 남색자라는 죄목으로 고소한다-역주)에 맞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남성의 사랑이 애정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것, 다시 말해 ‘플라톤이 그의 철학의 기본으로 삼은 … 순수하고 … 완전하며 … 지성적인’ 사랑이라고 주장했다.”(Goldhill, 2006: 102. 이 책의 301페이지에 있는 그리스 복장을 하고 포즈를 잡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 사진도 참조).³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친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정당화시키는 근거를 찾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Jennings, 1999; Russell, 1996). 그들은 유명 인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들먹이며 그들도 자신들처럼 동성애자들이라는 소리를 낸다.⁴ 유전학의 분야에 있는 연구자들은 유전자에서 동성애

식에 대한 혐오,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 태어날 때부터 상처받음으로써 채워질 수 없었던 나르시시즘, 불안정하며 학대받고 싶어 하는 본성, 이 모든 것들이 오스카 와일드를 동성애로 몰아갔다”(de Larocque, 2007: 55 재인용); 모리스 리베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성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한다. “우선 그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의 원인은 대부분 미학적 선택에서 유래한다. 그에게 탐미주의는 단지 예술가로서의 선택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술을 위한 예술’의 이름에 있어서, 또한 도덕적 및 사회에 있어서 예술가의 독립을 정당화하는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윤리이고, 그리스 예술이나 사상에서 물려받은 미의 관념과 일치하는 존재방식이다. 와일드의 동성애를 크게 부추긴 것은 그 자신의 기질보다는 오히려 소크라테스 덕분이다. 와일드가 만나 무수한 남색 소년들은 모두 가뉴메데스(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소년)의 가면을 쓰고 있다.(모리스 리베, 1996: 345-346). 모리스 리베 (1996). “오스카 와일드의 비극 그리고 동성애의 복권”. 장 보테로 외 공저 (1996).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역사』. 이선희 역. 서울: 새로운사람들. 341-372 참조.

³ “리처드 와그너(Richard Wagner) 신부(神父)가 1980년대 샌프란시스코 소재 인간 성의식 심층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 of Human Sexuality)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표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88%)이 동성애를 금하는 성서의 금지 명령들에 도전하는 글을-존 맥네일(John McNeill, S. J. 예수회 소속)의 저서 『교회와 동성애자』(The Church and the Homosexual, [Sheed, Andrews & McNeil, 1976])를-읽은 적이 있었고, 그들 거의 전부가 거기에서 위안을 받았다”고 한다.(Wills, 2005: 311).

⁴ 강상우(2016)는 간디의 동성애의 유무에 대해서 일시적인 판단중지를 제안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 동성애적 해석을 통해서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자(pro-homosexualist)들 그룹들이 동성애를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그리고 성적 취향의 하나로 취급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도. 간디의 대한 동성애적 해석은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또 하나의 동성애를 정당화하려는 사례로 오용(誤用)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강상우, 2016). 마하트마 간디가 양성애자로 동성애자인 자신의 애인과 살기 위해서 부인을 버렸다는 내용의 책이 2011년도에 출간되었던 것이다.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뉴욕타임스 편집장 출신 작가인 조지프 릴리벨드(Joseph Lelyveld)로 그 책 제목은 바로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와 그의 투쟁』(Great Soul: Mahatma Gandhi and His Struggle With India. [Alfred A. Knopf, 2011])이다. 이 책에서 저자인 조지프 릴리벨드는 인도 독립의 리더인 [마하트마 간디]를 인종차별적 양성애자로 묘사하고 있다. (“[Joseph] Lelyveld allegedly describes the Indian independence leader as a racist bisexual. The book has not been published in India”;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10330215107015>; “FILE USA LELYVELD

관련 유전자를 찾기로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었다. 뇌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동성애 관련 그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⁵(유전자 Xq28는 Hamer, Hu, Magnuson, Hu and Pattatucci, 1993; 뇌의 전 시상하부 간질핵인 INHA3는 Simon LeVay, 1991)⁶. 동물학을 연구한 이들은 동물 [自然]에게서 동성애를 찾고자 한다(Joan Roughgarden, 2010). 자연계의 많은 동물들이 실질적으로 동성애를 한다는 것이다. 신학이 전공분야인 이들은 동성애적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서 동성애의 근거를 찾고자 한다(Daniel A. Helminiak, 2003; Theodore W. Jennings, Jr., 2011.; John Shelby Spong, 2007; 구미정, 2010; 조순애, 2010 등). 문화와 인류학을 공부하는 이들은 역사와 비교문화 등을 통해 동성애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 행해졌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ennings, 1999; Ramet, ed., 2001; Nanda, 1998). 본 연구자는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동성애자들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의 ‘수[세] 불리기’ 전략”이라고 칭(稱)하고 싶다. 본 연구는 문화와 역사를 들먹이면서 과거에 존재하였던 동성애와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의 [유사] 동성애를 오늘날 동성애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세[數] 불리기’ 행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의 동성애와는 동일[一致]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指摘)하고자 한다. 오늘날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과거의 동성애와 다른 문화권의 유사 동성애로는 오늘날의 동성애를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後述하겠지만 이는 인도의 히즈라의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과거 히즈라와 오늘날 “가짜” 히즈라” 즉 동성애를 목적으로 하는 히즈라는 엄밀히 말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비슷한 논리를 지닌다). 과거의 동성애를 가지고 오늘날의 동성애를 합리화할 경우에 다만 다양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많은 면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왜?”라는 물음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와 범위

GANDHI BOOK” <연합뉴스>. [2011.03.30]. 참고).

⁵ 영국 브리스틀대학의 과학철학 교수인 사미르 오카샤(Samir Okasha)의 다음의 지적도 참조하라. “불충실한 결혼 생활, 다시 말해 ‘혼외정사’는 인간 여성이 장기적인 배우자의 유전적 자질이 떨어질 때 자손을 위해 유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진화된 전략이라는 일부 진화심리학자의 견해를 생각해보자. 이것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아마도 과학적 사실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과 가치는 별개이다. 설사 혼외정사가 진화적 적응이라고 해도, 그 사실은 혼외정사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는다.”(Okasha, 2017: 211); 메리 스텐워드 밴 르우윈(Mary Stewart van Leeuwen)은 다음을 지적한다. “어떤 약점(혹은 강점)에 유전적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에게 이를 잘 관리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혈우병은 성 관련 유전자를 통하여 생물학적으로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혈우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당신은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고, 이 병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van Leeuwen, 2000: 86).

⁶ Hamer, D. H., S. Hu, V. L. Magnuson, N. Hu, and A. M. L. Pattatucci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327.; LeVay, Simon (1991). "A difference in hypothalamus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 1034-1037.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례]** 오늘날 동성애 세 불리기 사례

1)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세 불리기’의 일반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비교]** 오늘날 동성애와 그리스·로마 동성애, 각 지역의 유사 동성애의 비교.

2-1) **[그리스·로마동성애]** 오늘날 동성애와 그리스·로마 동성애는 일치하는가?

2-2) **[유사 동성애]** 오늘날 동성애와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서의 유사 동성애는 일치하는가?

2) 연구범위

본고의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동성애 ‘세 불리기’에 앞서서 동성애 관련 연구가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개입적인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 대해서 기술하려고 한다. 이는 성(性)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서 객관성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과 동시에 동성애 연구 또한 그것이 친동성애에 관한 연구이든 반동성애에 관한 연구이든 지간에 상대적으로 강한 가치개입적 성격을 지님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세 불리기’ 사례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概略的)으로 기술할 것이다. 즉 유전자, 뇌, 쌍생아 연구, 신학 분야 등에서의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세 불리기 등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로마 동성애의 경우 무엇 때문에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지식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술하고자 한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와 과거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를 비교했을 때에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함에 대해서 지적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동성애와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이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와 오늘의 동성애가 마치 일치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결국에는 동성애 ‘세 불리기’ 전략의 하나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유사] 동성애 사례에 대해서 기술할 것이다. 다른 문화권에서 왜 그러한 유사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그와 관련하여 오늘날 동성애와 유사 동성애가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유사 동성애와 오늘날 동성애가 많은 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통해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문화적 유사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 또한 동성애자들의 ‘세 불리기’의 유형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과정이다.

3 연구전제와 연구한계

1) 연구전제

무엇보다도 본 연구자 개인의 가치(價値)를 밝혀야만 할 것 같다. 동성애에 대한 본 연구자의

가치에 대해서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자들은 관용(寬容, tolerance)의 부족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에게 관용의 부족이라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하면서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동성애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죄다(= SIN.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姦淫과 같은 性的逸脫行爲로 이해한다). 그러나, 실정법상(實定法上)의 범죄(犯罪)는 아니다(≠ crime, 그러므로 處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 하지 말라(Don't, 그러므로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동성애를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⁷ ⇨ [혹시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그리스도인(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동성애적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오늘날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다)이라면, 또는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동성애적 관점의 상담과 치료⁸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죄(罪, SIN)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 행위(性行爲)는 결혼한 남녀 부부 당사자 간의 성적 결합에 한에서만 그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⁹⁻¹⁰ 그러므로 남녀부부 외의 다른 모든 성관계는 간음(姦淫)에 해당한다고 본다(간통죄의 경우와 비슷하다. 간통[姦通]은 범죄다. 그러나 오늘날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다. 그렇다고 간통이 사회에 팽배해져가는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 간통을 하라고 부추길 수도 없다. 간통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것에서 벗어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야만 한다. 더욱이 간통하는 자가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는 자라면 ...) ¹¹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도 일종의 간음

7 길희성 전 교수의 진술이다. “유일신신앙의 종교는 신의 계시를 믿는 신앙의 종교이며, 이 계시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중시하는 실천적 종교다.”(길희성, 2016: 32).

8 박기영 (2015). “동성애자의 인지왜곡에 대한 진리요법적 접근” 『성경과 신학』. 76. 299-331. 참조

9 인간의 성생활의 신적 선물에 대한 이 뒤틀립과 대조해서 결혼의 끈과 보호 내에 있는 결혼행위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 기쁨은 잠언 5장 15-23절에서 가장 선명하게 제시된다.

1.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다(15절)
2.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16-17절)
3.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배우자에게 있어야 한다(18-20절)
4.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응시에 노출된다(21-23절)(Kaiser, 2016: 266).

10 동성애[성적 소수자들]를 인정하기 위해서 일부에서 사용하는 논리 중의 하나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첫째, 남성(성)과 여성(성)은 규범이지 현실이 아니며, 따라서 실체로서 남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소위 성적 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LGB/T/I)의 존재, 즉 이분화된 젠더 개념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통해 남녀 구분을 전제로 하는 양성 개념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란다. 셋째, 이분법은 정말 1:1의 이분(二分)인가, 평등은 무엇인가, 평등 담론의 기준은 누구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논의한다.”(정희진, 2017: 12; 구체적인 것은 같은 책의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21-56 참조).

11 이태희 변호사도 같은 견해인 것 같다. “성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질서의 핵심 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을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서약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그 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간음’으로 규정하셨다(출20:14) 따라서 혼전 성관계, 혼외 성관계, 그리고

[性的逸脫]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림: 성경의 성행위 구분

합당한 성행위 (Lawful, 單數로 존재)	부당한 성행위들 (Unlawful, 複數로 존재)
결혼관계에서의 남녀 부부간의 성행위 (이성애·일부일처제)	그 밖의 성행위들과 유사 성행위(類似性行爲) ¹² (= 姦淫, porneia)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 과거처럼 범죄(法律違反인 犯罪, crime)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했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에게 과거처럼 형사상(刑事上)의 처벌 같은 것을 행해서도 안 될 것이다[死刑, 拷問, 化學的去勢 등, 과거 동성애자들에게 행한 것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나 샘 해리스 등으로 대표되는 오늘날 신무신론자들(New Atheists)과 같은 부류들에게서 기독교

동성 간의 성관계는 전부 간음이며, 이와 같은 성적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이태희, 2016a: 822).; 레위기의 동성애 금지법(레18:22; 20:13) 등을 포함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언급한 죄들은 모두 제7계명을 적용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김진규, 2017: 106-107).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때에 동성애가 성적 이탈행위라는 생각이 더 든다. “다이아몬드(2008)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의 성적 취향은 상황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성애적 여성도 때로는 같은 성별의 친한 여성 친구에게 끌리고, 레즈비언 여성도 어느 때는 남자와의 데이트를 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 예를 들어 heteroflexibility(이성애유연성, 상황의존적 성적행동), has-bian(전에는 동성애자, former lesbian), LUG(졸업까지만 동성애자, Lesbian until graduation) 등이 생겨나게 되었다.”(Welch, 2011: 130).

메리 스텐워드 밴 르위윈(Mary Stewart van Leeuwen)의 견해를 참조하라. “동성애는 정신분열증이나 공포증과 같은 의미에서 정신 병리 증세라고 딱지를 붙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향악보다는 연극을 더 좋아한다는 식으로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또 다른 종류의 생활양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van Leeuwen, 2000: 250-251).

¹² 다음을 참조하라. “삽입 성교만을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은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삽입 성교만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종종 섹스는 삽입 성교만을 의미한다고 여기곤 한다. 그래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확산을 걱정하던 연구자들은 설문지의 어구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섹스를 했는지 물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옮길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곤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행위가 삽입성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섹스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서둘러서 설문지에 성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다.”(Helminiak, 2003: 68).

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가?]¹³.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Sin)**라고 하는 종교적인 사적 의사[宗敎的 私見, 主張, 信仰告白]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서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옹호자들도 동성애혐오(homophobia)^{14·15}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갈등을 조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¹⁶

13 노예제도/마녀사냥/아파트헤이트(인종분리)/홀로코스트와 동성애(나뭇단 faggot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를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 잘못된 성경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동성애는 다른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에 죄(sin)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거 잘못된 성경해석		
사 례	노예제도/ 마녀사냥/ 아파트헤이트/ 홀로코스트	동성애
죄(sin)의 유·무	무(無)	유(有)

14 켈리 J. 웰치(Kelly J. Welch)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인의 반동성애적 태도나 행동을 동성애 혐오증(homophobia)이라한다. 그러나 성적 편견(sexual prejudice)이란 용어가 이에 대한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Welch, 2011: 143).

15 동성애자들이 혐오라고 하는 발언이 명예훼손 조각 사유에 대해서 다음 [표]를 참조하라.(백상현, 2015:134 재인용).

표: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혐오 표현은 다음 세 가지 명예훼손 조각 사유를 충족시킬 때 뭐라고 불러야 할까?					
소위 혐오 발언	➤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 Yes	법적 처벌불가	➔ 그렇다면 법적 처벌도 불가능한 ‘혐오 발언’은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 기분이 나쁜 발언?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 객관적인 비판? 애정 어린 충고
	➔	사실을 그대로 적시했는가?	➔ Yes	법적 처벌불가	
	➤	비방 목적이 있는가?	➔ No	법적 처벌불가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동성애 혐오’는 왜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현대 다음과 같은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이슈가 “여성들의 건강을 둘러싼 전쟁”으로 왜곡되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미움”으로 왜곡되었다.**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타 종교에 대한 억압”으로 왜곡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복된 소식이 “타 종교의 신실한 제자들을 비난하는 불관용의 메시지”로 왜곡되었다.(Jeffress, 2016: 30, 강조는 본 연구자).

한채운의 글에 있는 내용이다. “어느 기독교 단체가 주최했던 토론회에서 한 청중이 ‘개신교는 왜 동성애를 그렇게까지 싫어해요?’라는 질문을 했다. 발제자 중 한 명은 “다른 죄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기에, 설사 회개하고 같은 죄를 또 저지른다고 해도 그 죄를 추궁하기가 힘들지만 동성애자들은 아예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기에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더라는 의견을 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닐 성싶다”(한채운, 2017: 154).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다룰 때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간음하다 잡힌 여인 (요7:53-8:11, *Perciope Adulterae*)을 대하듯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먼저 예수님은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sin)임을 확인해주셨던 것처럼 동성애도 하나님 앞에서 죄(sin)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야만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Then neither do I condemn you”), 동성애자(사람 그 자체 [그러나 그의 동성애 행위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받아야 하고 지적해야만 한다.])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동성애자는 그 자신의 동성애라는 성적인 죄로부터 즉시 떠나야만 한다(*go now and leave homosexual life of sin*). 동성애에 대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한다면 말이다.

“근·현대와 중세·르네상스, 그리고 고전고대의 동성애는 사실상 같은 것인가? 혹은 아주 상이한 것인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학자들은 이른바 ‘본질주의자’와 ‘사회구성론자’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한다. 본질주의자의 입장에 있었던 존 보스웰(*John Boswell*)에 따르면 고대, 중세, 근·현대의 동성애가 시대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사회구성론자의 입장에 서 있었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현대의 게이들이 보여주는 성적 편향성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곽차섭, 2009: 20). 참고로 보스웰과 푸코는 둘다 동성애자다. 이러한 논쟁은 사회구성론자의 우세 속에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곽차섭, 2009: 21). 본 연구자는 근·현대와 중세·르네상스 그리고 고전고대의 동성애, 이들 동성애들 간에는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에 서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본 연구자는 사회구성론자의 주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스·로마시대의 동성애는 오늘날의 동성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16 다음 참조. “현재 소아성애증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정신 질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정신의학자들과 인권 단체가 ‘소아성애자들을 정신질환자로 간주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다. 소아성애증도 자연스러운 성적 성향이며, 선천적 성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신 질환 목록에서 삭제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비 포 유 액트’(B4U-ACT)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소아성애증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이태희, 2016b: 48).

17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s*)도 다음과 같은 지적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있는 문제는 (기독교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히 반대했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원칙적 태도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가 동성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믿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성유리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가 동성애자를 만났다는 기록도 없다. 그러나 돌팔매를 맞고 있는 간부(姦婦)(간통은 구약에서 동성애처럼 중죄였다)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나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돌을 맞고 있는 간부에게는 ‘어서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거라’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용서와 이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태도가 간통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그가 추구한 바였다. 동성애에 대한 그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Richards, 1999: 201*).

2) 연구한계

본 연구의 한계는 한 마디로 연구자의 지식의 짧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스·로마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로마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그리스 시대라고 해도 도시국가(polis)마다 문화적 환경이 다를 것이고(아테네와 스파르타, 코린트, 아이기나 등), 또 시기(時期)에 따라(전·중·후기)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짧음으로 구체화[區分]하지 못하였다.¹⁸ 본 연구를 위해서 나름 주변의 다양한 종류의 책(자료)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한 책(자료)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더불어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본 연구자의 이해의 부족[理解不足]으로 인해 잘못된 주장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물론 모든 결과는 연구자 본 개인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두말 할 것 없이 연구자 개인의 절대적인 책임일 수밖에 없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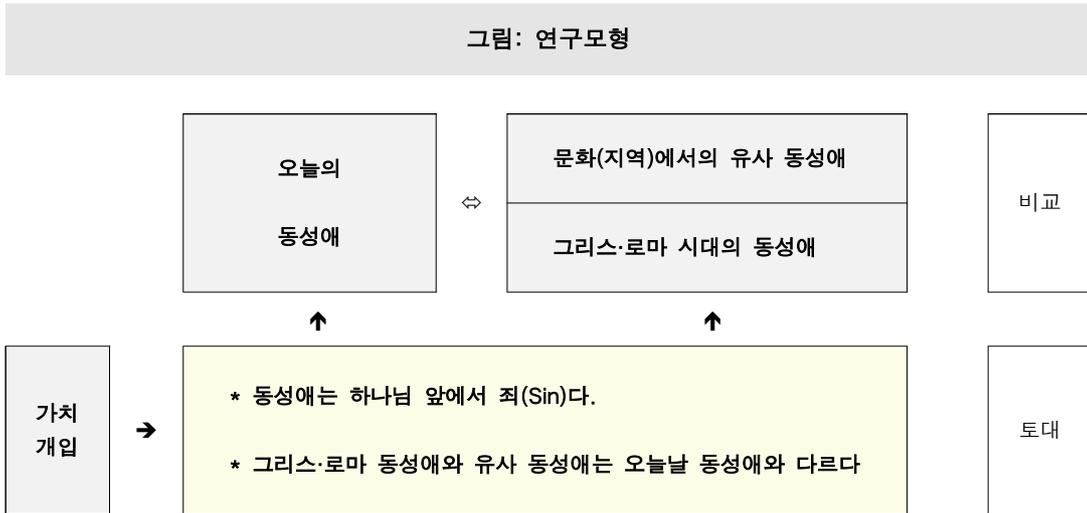
4 연구모형과 용어정의

¹⁸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어느 정도 안도하기도 한다. 한스 리히트(Hans Licht)는 자신의 저서 『그리스 성 풍속사』(Sexual Life in Ancient Greece)에서 “그리스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육욕의 지배”에 대해 논한 것이 옳다면,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인들과 똑같이 육욕이 지배하는 생활이 존재했었다고 단언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할 것이다.(Kiefer, 2004a: 23 재인용). “로마의 특성은 기본적으로 실제적이다. 그러한 실제적 정신은 로마인들로 하여금 농부, 군인, 정치가가 되게 했고, 가장 위대한 업적, 즉 제국을 창조하도록 했다. 후에 그리스 정신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들은 키케로(Cicero)와 세네카(Seneca) 등과 같은 철학적 사상가와 리비우스와 타키투스(Tacitus) 같은 천재적 역사가를 배출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그리스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했으므로, 로마적 특성으로부터 비롯된 사실상의 독창적 문명의 지성적, 정신적 기초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Kiefer, 2004a: 24 재인용).

데이비드 포터(David S. Potter)는 “증거든 해석이든 결국 주관적인 선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 혹은 역사 연구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책에서 나[Robert Knapp] 역시 주관적 선택과 가치판단을 통해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들을 엮어 고대 로마의 보통 사람들이 살았을 삶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보고자 했다.”(Knapp, 2013: 9 재인용). Potter, David S. (1999). *Literary Texts and the Roman Historian* London: Routledge. 참조.

¹⁹ 글을 쓰면서 메리 스투어트 밴 르위윈(Mary Stewart van Leeuwen) 교수의 다음과 같은 문구가 떠올랐다. 같은 심정이다. “이 시점에서 이 책은 심리학과 신학, 역사, 생물학, 사회학을 포괄하는 학제간(學際間) 연구이기는 하지만 결국 심리학 외의 다른 분야에서는 아마추어 일 수밖에 없는 심리학 전공자가 썼다는 점을 밝혀 둘 필요가 있겠다. 만일 어떤 곳에서 필자의 신학적·역사적·사회학적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혹은 반대로 너무 좁게 심리학적 관점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독자들은 부디 필자를 용서하고 사회적 성에 대한 독자들 자신의 분야에서나 기독교적 관점에서 책을 써 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도 이 중요하고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들의 신성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Van Leeuwen, 2000: 14).; 로버트 냅(Robert Knapp)의 다음 구절도 참조하라. “미국의 고대사 데이비드 포터(David S. Potter)는 ‘증거든 해석이든 결국 주관적인 선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 혹은 역사 연구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 책에서 나 역시 주관적 선택과 가치판단을 통해 서로 다른 색깔의 실들을 엮어 고대 로마의 보통 사람들이 살았을 삶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 보고자 했다.”(Knapp, 2013: 9 재인용) 참고로 데이비드 S. 포터(David S. Potter)의 책은 다음과 같다. Potter, David S. (1999). *Literary Texts and the Roman Historian* London: Routledge.

1) 연구모형



2) 용어정의

본고에서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무엇이 “동성애자”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²⁰ 그러나 본고에서의 “동성애자”는 동성애적 성 정체성(homosexual

²⁰ 레즈비언인 케이스 루디(Kathy Rudy)는 동성애의 범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동성애라는 범주가 미국인의 의식에 그렇게 스며들었을까? 동성애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모든 동성애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만드는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동성애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두 남자가 함께 살지만 섹스는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가? 아니면 한 남성이 한 여성과 가까이 결혼했지만 이따금 다른 남자와 몰래 섹스를 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감옥에 갇혀 있어 여자를 만날 수 없을 때에만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남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른 남자들이 (결코 만지지는 않고) 지켜보는 곳에서 섹스를 하는 남성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화나 컴퓨터로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남성은 어떠한가? 그리고 남자끼리의 성관계와 여자끼리의 성관계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나의 성적 파트너의 젠더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고유한 (초역사적이고 선천적인) 범주로 규정되어야 하는가?”(Rudy, 2012: 166).

데이빗 M. 헬퍼린(David M. Halperin)은 이렇게 묻고 있다. “주기적으로 사춘기에 있는 남자를 대상으로 향문삽입성교를 즐겼던 고대 그리스의 결혼한 성인인 ‘남색가’(paederast) 남성은, 아동기 때부터 여러 방면에서 여성적인 특성을 취해 왔고 이후 공개적이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예식을 통해 자신이 결혼하게 된 성인 남성에게 정기적으로 삽입성교의 대상이 되는 북미 선주민(인디언) 성인 남성인 ‘버다쉬’(berdache)와 동일한 섹슈얼리티를 공유하는가? 후자인 버다쉬는 여덟 살 때부터 열다섯 살 때까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매일 자신의 입 안에 사정하는 일을 겪고 또 몇 년 동안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아이들의 입에 사정을 하고 난 후 성인 여성과 결혼하여 자식을 보는 뉴기니의 부족민이자 전사들인 이들과 동일한 섹슈얼리티를 공유하는가? 이 세 사람들 중 누가 근대의 동성애자들과 동일한 섹슈얼리티를 공유하는가?”(Halperin, 1990: 46; Jagose, 2012: 18-19 재인용).

identity)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성애적 관계(homosexual behavior)를 유지[實行]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두고 ‘성기중심적(性器中心的, 특히 페니스 중심적인) 섹슈얼리티 규범성’이라고 비난지도 모르겠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인 MSM과 여성 동성애자인 WSW 즉,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Man Who Have Sex with Man)이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Woman Who Have Sex with Woman)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유사 동성애(類似同性愛, 미국의 인류학자인 Marvin Harris는 이를 “보조 수단으로서의 동성애”라고 칭한 것 같다[Harris, 1996: 144²¹])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오늘날 동성애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前提)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성애를 ‘유사(類似)’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서 오늘날의 동성애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그리고 “세[數] 불리기”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지) 세력(勢力)을 키우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숫자[量] 등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치 개입(價値介入, valued-laden)은 말 그대로 연구자의 다양한 가치 등(신앙·성적 지향·성적 지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즉 贊·反[pro or anti])이 연구목적, 연구주체의 설정과 자료 수집 그리고 자료해석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본 연구자도 가치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 나아가 동성애의 문제에 있어서 친(親)이니 반(反)이니 하는 것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미 가치개입의 성격을 지닌다 할 것이다. 약간의 거친 주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본 연구자가 그리스도인(물론 일부 극소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이라는 점 자체가 가치개입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연구자의 성적 성향이 게이(gay)이거나 레즈비언(lesbian)인 경우 그 자체도 가치개입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밍아웃(Coming Out, 때로는 마지못해 Outing 당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매우 긍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고 또한 정당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22,23}

²¹ “비슷한 형태를 지닌 ‘보조 수단으로서의 동성애’는 세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는데 각 지역마다 나름의 환경에 적합하면서 고유한 사회적 성적 특성을 갖고 있다.”(Harris, 1996: 144).

²² 다음 사례 참조하라. 록펠러대학의 보엘러(Voeller) 교수는 키제이 결과를 사용하여 인구의 약 10%가 동성애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대중매체, 국회, 법원, 교회, 정신과 의사 등에게 널리 퍼뜨렸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1980년과 1990년대에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 결과 불행하게도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그 왜곡된 사실이 반영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엘러 교수는 나중에 공개적으로 자신도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현대 동성애 인권단체의 창시자가 되었다.(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27-28).

²³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주변의 이들이 동성애자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가치개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변의 동성애자의 존재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들이 동성애자인 경우에는 제임스 브론슨(James V. Brownson)의 경우(김진규, 2017: 92)와 김준자(2010)의 경우를 들 수 있다. Chris Hedge의 아버지는 자신의 형제[저자의 삼촌]의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Hedges, 2012). 다음 참고하라, 김진규 (2017). “최근 동성애 논쟁의 주요 쟁점들: 제임스 브론슨의 동성애 관련 구약 본문 해석에 대한 비평”. 『신앙과 학문』. 22(1). 91-120.; 김준자 (2010). 『커밍아웃 프롬 더 클로젯:

참고로 동성애 ‘세 불리기’는 동성애 기원(基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동성애의 기원의 문제는 동성애가 천성[先天的]인가 아니면 양육[環境的]인가의 문제(Nature or nurture)를 따지는 것으로 전자 즉 천성(nature)은 동성애자가 생물학적, 또는 발생학적 과정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보는 본질론자(essentialists)의 관점이라면 후자의 경우 즉 양육(nurture)은 구성론자들(constructionists)의 관점으로 동성애가 오랜 세월에 걸친 사회와 문화적 영향력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Welch, 2011: 131). 쌍둥이에게서의 동성애 비율의 조사연구의 경우 동성애 원인이 선천적[遺傳的]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에는 본질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연구이지만, 쌍둥이 연구에서 동성애 비율(percentage, %)에 대해서 연구 결과보다 그 수치를 높은 비율로 과장[增加]하는 것은 ‘세 불리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 유전자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본질론적 관점을 지닌 것이지만 발견했다는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²⁴으로 후속 연구(後續研究) 등에서 밝혀질 때에는 이전의 선행 연구(先行研究)는 ‘세 불리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했으니 세 불리기의 하나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구성론자들의 관점에서조차도 마찬가지다. 문화[環境] 속에서 동성애 형태를 발견한 것은 구성론자의 관점에 해당하겠지만,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동성애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는 오늘날의 동성애로 이해하는 것은 세 불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역사적 문화적인 관점에서 [유사] 동성애 형태를 오늘날 동성애로 분류하는 것과 그리스·로마 동성애는 오늘날의 동성애와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다고 본 연구자는 보기[看做] 때문에 이 또한 동성애자들의 ‘세[수] 불리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 동성애 ‘세 불리기’에 대한 재고

: 동성애 연구에서의 가치개입과 동성애 세 불리기의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기적 중에 동성애자가 있을 때』. 서울: 화남. Hedges, Chris (n.d). *American Fascists*. Creative Management Inc. 정연복 역 (2012). 『지사의 위험한 천국: 미국을 쪼먹는 기독교 파시즘의 실체』. 서울: 개마고원.

²⁴ 참고로 강석기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거다!’하는 동성애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아마도 키의 경우처럼 성적 취향을 결정짓는 데는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태아 시절의 우발적인 태내환경변화, 즉 남성호르몬 농도 변화나 영양상태 등이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강석기, 2016: 241); 다음도 참고하십시오. “지능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유전자는 측정된 지능 변동 수준의 0.5% 미만을 설명할 뿐이며,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상위 6개 지능 관련 유전자를 모두 합해도 지능 변동 수준의 1%를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Freedman, 2011: 69 재인용; Coghlan, 2007: 16 참조). Coghlan, Andy (2007). “Intelligence Genes’ Reveal Their Complexity”. *New Scientist*. 3632. 참조; 다음도 참고하라. 르로이 후드(Leroy Hood) 박사는 시스템 생물학을 시스템 의학으로 확장시키고 있는데, “건강의 결정요인은 유전자(30%), 환경과 생활습관(60%), 보건관리(10%)이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다.”(박영숙, 제롬 글렌, 2017: 108).

1 동성애 연구에서의 가치개입

성(性)과 관련된 연구가 가치중립이 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처럼, 성 연구(性研究)의 한 분야인 동성애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가치중립을 기대하기란 상대적으로 어렵다. 우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와 관련된 사례와 내용들을 수집한다. 동성애 찬반(贊反)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동성애자들[또 그들을 지지하는 친(親)동성애자]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와 문헌 그리고 많은 연구결과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친동성애적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반(反)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도 반동성애적 자료와 사례 그리고 연구결과들을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할 것이다. 일종의 ‘선택편향(選擇偏向, selection bias)’이 연구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²⁵ 그렇다고 폴 피어어벤트(Paul Feyerabend) 식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anything goes)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앞에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성과 관련해서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있는 것 같다.²⁶ 그러한 한 연구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레즈비언인 연구당사자도 그러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밝힌 주디스 헬버스탐(Judith Halberstam)도 성 조사(性調査, sex survey)에 관한 리처드 C. 르윈틴(Richard C. Lewontin)의 다음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 르윈틴이 지적을 소개하는 부분을 통해 동성애 연구가 중립성과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새로운 성 조사(sex survey)에 관해 『뉴욕 리뷰 오브 북스』(New York Review of Books)에 쓴 평론에서 R. C. 르윈틴(R. C. Lewontin)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런 사회과학적 접근법에 관련된 난점을 언급한다. ‘성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을 감안하면, 직접 물어보는 것 말고 사람들이 “침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낼 도리는 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대답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 없다’ 르윈틴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행동에 관해 이야기하는 문제에 관한 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이

²⁵ 엘리 프레이저가 표현한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일어날 수 있고, 이로 편협과 편견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Pasquale, 2016: 130).

²⁶ 노인동성애에 관한 연구에서 Gary S. Whitford and Jean K. Quam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동성애노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는 심각한 한계점이 나타난다. 우선 자기의 경험에 대해 선뜻 이야기할 동성애 노인을 찾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며, 조사 대상이 된 사람들 대부분이 이미 커밍아웃한 사람이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친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 연구가 정체성 상담을 받은 임상 집단에서 얻은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는 전체 집단에 대하여는 왜곡된 모습을 보여준다.”(Whitford and Quam, in Kimble, McFadden, Ellor and Seeber, 2011: 418-419). Kimble, Melvin A., Susan H. McFadden, James W. Ellor, and James J. Seeber (Ed.) (1995). *Aging, Spirituality, and Religion*. Minneapolis, MN: Augsburg Fortress.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인사목연구위원회·김열중·이순주 공역 (2011). 『노화, 영성, 종교』. 서울: 소화. Gary S. Whitford and Jean K. Quam, “제26장. 노인 동성애자”. 416-427 참조.; “동성애 연구에서의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윤가현 교수의 책도 참고하라.(윤가현, 1999: 321-324 참조).

를테면 남자는 과장하고 여자는 경시한다), 사회과학의 방법 안에서 개인적인 왜곡을 참작할 방법은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사회과학자들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높은 수준의 허위에 관심을 있는 게 아니라 방법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결국 르윈틴은 사회과학의 조사는 '조사 계획자들이 이미 사실이라고 안다고 믿는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Lewontin, 1995: 24; Halberstam, 2015: 37-38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

먼저 성연구의 대표주자적인 알프레드 킨제이(Alfred Charles Kinsey)의 연구²⁷는 어떤가? 다니엘 게랭(Daniel Guerin)은 킨제이 지지자들에게 킨제이의 연구결과물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킨제이의 신봉자들은 그를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제2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보며 그의 저서를 다윈의 『종의 기원』 이래 발표된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강렬한 충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시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칼 맑스의 『자본』과 동렬에 놓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에 의하면 킨제이는 성에 빛을 비추었고, 그의 소개 이전에는 우리가 성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손대중으로 암중모색하였다고 한다.”(Guerin, 2013: 28)²⁸

지지자(支持者)들로부터 이렇게 과도(過渡)한 평가를 받고 있는 양성애자였던 킨제이의 연구는 그렇다면 객관적이었을까? 킨제이 자신은 자신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킨제이 연구하면 일반적인 평가로는 그의 연구 목적이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옹호”(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27)하기 위함이며 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왜곡된 표본 추출”(McLaren, 2003: 62)²⁹이 행해졌음이 지적되고 있다. 또 심지어 킨제이가 발명

²⁷ Kinsey, Alfred C., Pomeroy, Wardell B., and Clyde E. Martin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Saunders.; Kinsey, Alfred C., Pomeroy, Wardell B., Martin, Clyde E., and Paul H. Gebhard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Saunders

²⁸ 기 오갱겜(Guy Hocquenghem, 2013)은 다음과 같은 적고 있다. 참고하라. “킨제이의 놀랄만한 모험은 우리에게서 하나의 교훈이다. 그는 단지 현대 정신의학에 물리적, 사회학적·통계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현대 정신의학의 노력을 지속했다. 수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에서 그는 동성애자들은 단지 4 내지 5%에 속할 것이라고 증명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수백만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과학적 순진함도 감출 수 없는 발견물인 킨제이 보고서의 출판이 가져온 폭풍이 시작되었다.”(Hocquenghem, 2013: 74).

²⁹ White, Kevin (1993). *The First Sexu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male heterosexuality in modern Americ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Reisman, J. A. and E. W. Eichel (1990). *Kinsey, Sex and Fraud*. Lafayette, LA: Lochinvar-Huntington House.; Whitehead, B. (2003). *Craving for Love*. 이해진 역 (2007). 『나는 사랑받고 싶다』. 서울: 웰스프링. 162-163; “알프레드 킨제이 자신이 이성애와 동성애를 함께 즐긴 양성애자였다. 그래서인지 근친상간, 어린이나 동물과의 성행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옹호하였으며, 성에 가해진 문화적·종교적 제한에 대해 분노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백 명의 남성 매춘부, 1,200명의 성범죄자,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고등학교에 소속된 300명의 학생, 다수의 소아애호자, 노출증 환자, 교도소의 수감자 등을 자신의 연구대상에 포함시켜서 이들이 최소한 전체 표본의 1/4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유아와 어린이들에게 오르가즘을 느끼도록 손과 입으로 자위행위를 시켰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킨

한 그의 “성적 지향 척도”(The Kinsey scale, also called the Heterosexual - Homosexual Rating Scale)를 사용하여 등급을 매길 때에도 연구 대상자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킨제이는 자신의 연구 대상들이 스스로를 어떤 종류의 성적 타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터뷰 대상자들을 ‘0’에서 ‘6’까지 등급화 했지만, **대상자들 스스로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다.**”(McLaren, 2003: 416, 8장 123번 주, 강조는 본 연구자). 킨제이(Kinsey)의 성에 대한 이중 잣대가 지적되기도 한다. “킨제이는 또한 딸들에게 혼전성관계를 권하지 않았다(킨제이의 자녀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교회에 다녔던 것이 생각난다). 하지만 킨제이는 이미 젊은이들이 가능한 한 일찍 성경험을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1941년에 열여섯 살이던 딸 앤에게 혼전성관계의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엄격한 감리교 교육을 받고 자란 열여덟 살의 처녀 메릴린에게는 두 달 전부터 사귀는 스물두 살짜리 남자 친구 모리스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권고했다(두 사람 모두 결혼 강의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가락을 이용해 ‘음문을 넓혀서 삽입을 용이하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메릴린은 즉시 ‘모든 금기의식을 버렸으며, 얼마 후 가능한 한 자주 성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G. M. 모리스가 저자에게.” [1996년 7월 23일]; Gathorne-Hardy, 2010: 171).

뇌에서 동성애의 원인을 찾고자 했던 과학자 사이먼 르베이(Simon LeVay), 그 자신도 동성애자였다. 강석기 박사가 르베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 출간한 책 『동성애, 이성애, 그 이유』 (Gay, Straight, and the Reason Why)에서 그는 ‘동성애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나 자신도 게이지만 그래서 행복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성애자가 주류인 사회의 틀에 우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다채로움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베이 박사가 성적 취향의 근원을 밝히는 ‘취미 프로젝트[hobby project]’를 시작한 건, 어쩌면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강석기, 2016: 241). 그리고 무엇보다도 르베이의 연구에 대해서 “그들이 실험으로 사용한 시상하부 중 어떤 것은 AIDS로 죽은 사람의(혹은 뇌를 죽이는 질병으로) 것이었다.”고 지적되고 있다(Foster, 2007: 122).³⁰ 또는 르베이의 “실험이 생체실험이 아닌, 해부학적 실험의 한계

제의 연구결과는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원하던 대로 동성애자의 비율이 과장되어 높게 나타났다. 그는 과학적인 객관성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그가 책을 쓴 목적은 남녀 간의 사랑인 이성애가 성적 행동의 표준이 아님을 증명하고 이성애자들에게 동성애적 경험을 조장하려는 것이었으며, 그 목적은 상당히 달성되었다.”(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27).

³⁰ 에드워드 T. 웰치(Edward T. Welch)의 다음 견해도 참고하기 바란다.(Welch, 2003. “제2부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본 뇌와 관련된 문제들”. 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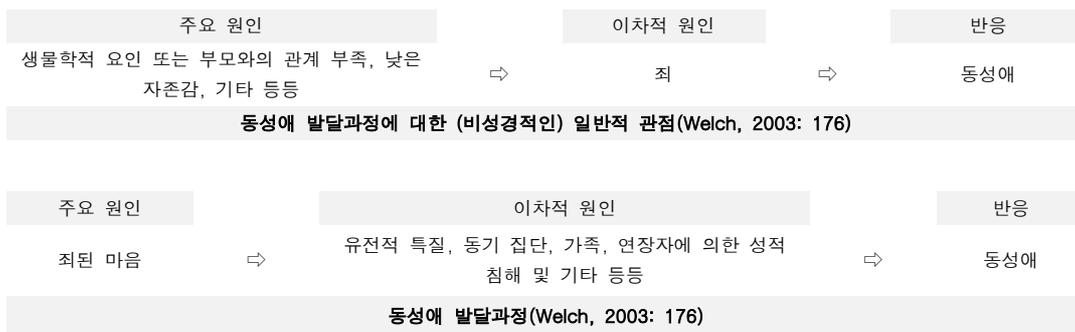
제2부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본 뇌와 관련된 문제들			
뇌의 책임 관계	“뇌의 책임이다.”	“아마도 뇌의 책임이다.”	“뇌의 책임은 아니다.”
영역	알츠하이머(치매) 각종 뇌손상	우울증, 주의력 결핍 (대부분의 정신병적 진단)	동성애, 알코올중독 (각종, 분노와 중독)

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실험 대상의 나이와 성적경향이 고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김한곤·이정화·박세정, 2012: 237-238).

동성에 유전자를 찾고자 했던 유전학자 딘 H. 해머(Dean H. Hamer)는 어떨까? 해머 자신도 동성애자였다. 해머의 경우 자신의 연구 영역인 유전학(더 구체적으로 유전자)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 같다[極端의遺傳子還元主義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그는 유전자에서 동성에 유전자만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후로는 신의 유전자(神의 遺傳子, God gene)도 찾았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³¹ 참고로 딘 H. 해머의 연구의 공동 저자 중의 한 사람인 안젤라 M. L. 파타투치(A. M. L. Pattatucci)도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이 성전환자(性轉換者, trans-gender)였던 조안 러프가든(Joan Roughgarden) 교수는 딘 H. 해머와 안젤라 M. L. 파투치를 그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와서 HP로 부를 정도다(Roughgarden, 2010: 367).

자연[動物]에게서 여러 형태의 성 유형을 찾고자 했던 조안 러프가든(Joan Roughgarden) 교수의 경우 그의 성적 성향(그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轉換]하였다) 또한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책, 『진화의 무지개: 자연과 인간의 다양성, 젠더와 섹슈얼리티』(Evolution’s Rainbow: Diversity, Gender, and Sexuality in Nature and People)를 통해서 다양한 성 유형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조안 러프가든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더욱 더 동성애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볼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비도덕적인 것은 성전환혐오와

웰치는 비성경적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서의 동성애 발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³¹ 딘 H. 해머(Dean H. Hamer)는 동성에 유전자를 넘어서, 신의 유전자도 있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신의 유전자 중 하나인 VMAT2는, 감정과 의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뇌 화학물질인 모노아민의 흐름을 통제하는 단백질의 유전 암호를 지정하는 것으로 확인된다.”(Hamer, 2011: 340).; 이에 대해 앤드류 뉴버거와 마크 로버트 월드먼(Andrew Newberg and Mark R. Waldman)은 이러한 딘 해머와 같은 주장은 매우 논리적으로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영적 또는 초월적 성향이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 해도, 우리 몸이 수만 개 유전자가 다양한 조합과 상호작용으로 유지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나의 유전적 요인은 사람의 행동에 비교적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유전자가 특정 행동에 관한 경향이나 믿음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험적인 비약이다.”(Newberg and Waldman, 2012: 301).

동성애혐오다. 극단적인 경우, 이 공포증은 고소공포증이나 뱀 공포증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일 수 있다.”³²(Roughgarden, 2010: 14).

신학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존 보스웰(John Boswell)은 가톨릭 남성동성애자 학자라고 한다.(Wills, 2005: 312). 대니얼 A.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나는 1977년부터 보스톤과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지에서 로마 가톨릭 사제로서 남녀 동성애자 사회에서 교역 활동을 해왔다. 그 활동은 대개 디그니티 협회(Dignity)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디그니티 협회는 남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가톨릭 신자들과 그들의 친구를 지원하는 단체다.”(Helminiak, 2003: xxv).³³ 씨어도어 W. 제닝스 주니어(Theodore W. Jennings, Jr.)도 자신의 저서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 책은 동성애혐오적이며, 이성애 중심적인 교회의 (그리고 전반적인 서구 사회의) 입장이 성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 귀결의 하나로 나는 게이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또는 게이를 긍정하는) 성서 읽기가 실제로 성서로부터 유래하는 텍스트들이기에 그 완전성을 존중할 것이고, 그 메시지들을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Jennings, 2011: 15-16). 존 셸비 스펡(John Shelby Spong) 전(前) 감독도 은퇴 전에 동성애자를 사제직에 임명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당시 미국 사회에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했었다. 스펡은 바울을 동성애자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성(Spong)의 어원이 스펡지(sponge)에서 왔다고 밝힌 것처럼 무엇이든지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지도 모른다.

참고로 성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인 객관성과는 상대적으로 멀다는 점과 동성애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치개입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성에 관한 연구 특히 동성애에 관한 연구의 경우 연구에 있어서 더욱 엄격[嚴密]한 가치중립성의 문제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가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연구 전제로 인정함으로써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이는 연구에 있어서 동성애혐오라는 말이나 반동성

³² Adams, H., L. Wright, and B. Lohr (1996). "Is Homophobia associated with homosexual arousal?", *Psychological Review* 103. 320-325 참조. “심리학자들은 ‘동성애혐오(증)’를 동성애자와 가까운 구역 내에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동성애자에 비해 비합리적인 두려움, 증오 불관용을 보이는 현상으로 정의한다.”

³³ D A.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의 차례를 보면 더 명확히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의 목차

3장. 소돔의 죄-냉대 (35-50)

4장. <레위기>에 나오는 “망측한 짓”-부정함 (51-79)

5장. 『신약성서』에 나타난 성결문제 (81-91)

6장. <로마서>에 나오는 ‘비정상’의 의미-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 (93-146)

7장. <고린토 1서>와 <디모테오 1서>-확대적인 남성 간 섹스 (147-167)

8장. 동성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구절들 (169-202)

에 혐오라는 말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것이다). 성에 관한 연구 분야가 비록 유전학이나 뇌과학 같이 상대적으로 실험(Lab)의 엄밀성을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하드 사이언스’(hard science)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에서 동성애 유전자를 찾는다는 것 자체는 가치(價値)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데이터에 대해서 오역(誤譯)과 오용(誤用)하고 있지 않았는가.³⁴ 오늘날 학자들³⁵ 중에는 “과학의 ‘가치중립성’(Wertneutralität)”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지만 말이다.

2 동성애 ‘세 불리기’ 사례와 그에 대한 평가

1) Gay·Lesbian and +^a …, LGBTAIQQ ….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이 ‘세 불리기’ 전략으로 사용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동성애 개념에 대한 정의를 두고 기(氣) 싸움하는 것도 일종의 ‘세 불리기’와 관련이 있다. 동성애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한다. 첫째, 동성을 향한 성적 끌림(sexual attraction) 현상. 둘째, 동성과의 성관계(sexual behavior). 셋째, 동성애자로서의 성 정체성(sexual identity) 등이 그것이다(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25;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2013: 13 참조). 친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의 수를 불리기 위해서 첫 번째 정의[廣義的概念]를 동성애에 대한 정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의를 사용할 경우에 다른 정의들에 비해서 동성애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의 수 불리기는 동성애의 범주에 다양한 유형의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동성애 깃발인 “여섯 빛깔 무지개” 속에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들과의 연대를 추구한다. 동성애자의 범주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남성동성애자와 여성동성애자만(Gay와 Lesbian, 100퍼센트 게이와 레즈비언)이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들이 가장 전형적인 동성애자들의 예(例)가 아닌가.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성 소수자의 연대[政治的連帶·勸力化]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 게이(Gay)와 레즈비언(Lesbian)을 넘어 양성애자(Bisexual)를 포함시킨다. 동성애자에 양성애자를 포함시키면 동성결혼의 경우 경계가 애매모호하여 짐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냐하면 양

³⁴ 이기흥의 사회생물학에 대한 다음 기술을 참고하라. “인간 활동은 통상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갖는다. 과학도 마찬가지다. 과학 활동 자체도 일종의 인간현상이자 문화로서 추구하는 내재적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 목적을 또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외재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과학이 말하는 대상의 모습은 대상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문화에 비춰진 대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사회생물학도 마찬가지다. 사회생물학의 내재적 목적은 제반 학문을 생물학에 기반 해서 통섭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생물학의 외재적 목적은 무엇인가? 사회생물학이 종종 이데올로기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외재적 목적 때문이다. 사회생물학의 기획이 특정 정치적 현실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긴다는 것이다. 즉 사회생물학이 과학주의를 추구하면서 객관적이고 공평무사한 과학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기흥, 2013: 543-544).

³⁵ 김규진 교수는 “오늘날 과학의 ‘가치중립성’(Wertneutralität)이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할 정도다(김규진, 2006: 76).

성애자의 결혼[성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3인의 당사자가 되는 결혼[남+여+남 또는 여+남+여]의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또 거기에 T(transgender)와 또 I(intersexual)도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Q(queer)와 Q(question, 또는 Questioning)도 포함시킨다. 그것도 부족해서 A(aseexual, 無性愛者)도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Bogaert, 2013 참조). 이는 성소수자들의 연대를 위한 단순 세 불리기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게이컬처홀릭>편집위원회, 2011; 임근준 외 공저, 2015; Stryker, 2008^{36,37}). 어떻게 하든 세를 늘려 강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말이다(오바마 전 미대통령의 재선 때 동성애자들의 정치적 힘을 어느 정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더 세력화할 것은 확실할 것이며,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들도 이미 존재할 것이다. ‘표에 죽고 사는 정치인들’이 아닌가!).³⁸

개인적으로 척도(尺度의 해석)를 통한 동성애자 세 늘리기의 사례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대학에서 행동생물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마크 넬리슨(Mark Nelissen)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넬리슨이 이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학회에서 미국의 심리학자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한 데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성적 지향은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절대’ 이성애자와 ‘절대’ 동성애자라는 양극단과 그 사이에 연속되는 수많은 중간 상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작은 키에서 큰 키, 바보에서 영재, 가난함에서 부유함을 구분하는 데 연속되는 수많은 중간 상태가 있는 것과 같다. 이 심리학자는 인터넷에서 설문 조사를 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이 설문조사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세세하게 다룬 질문들로 이뤄져 있다. 예를 들어, 동성과 성적 접촉을 하는 꿈을 얼마나 자주 꾸는지, 이성과 성적으로 접촉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다. 이 설문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면 자신이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양극단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치우치는지 궁금하다면 “<http://mysexualorientation.com>”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이 책이 인쇄되기 바로 전까지는 열려 있었다).

³⁶ “LGBTIQQA’(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양성애 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 인터섹스 intersex, 퀴어 queer, 퀘스처닝 questioning, 그리고 그 동맹 allies), 공동체의 ‘T’ 부분 구성원은 많은 두문자어(alphabet soup)를 쓴다.”(Stryker, 2008: 47).

³⁷ 앤서니 F. 보개트(Anthony F. Bogaert)의 책을 옮기면서 임옥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성애·동성애·양성애, 그리고 성애가 없는 무성애까지 등장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LGBITT(레즈비언, 게이, 양성, 간성,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등)라고 불리는 무수한 성애의 범주도 등장한다. 19세기의 독일 성 과학자 폰 크라프트 어빙(Richard von Krafft Ebing)은 120가지가 넘는 성도착(Psychopathia Sexualis)을 언급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이 성적 도착이 아니라 성적 정체성으로 간주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임옥희, in Bogaert, 2013: 12; 임옥희, “옮긴이의 글: 성의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한다.” 10-19 참조).

³⁸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세력화를 위해 다른 성적 소수자들을 동성애에 포함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많은 문제들을 양산할 수 있다. 동성애 vs 이성애의 프레임으로 갈 때에는 이들의 연대를 강력할 수 있겠지만,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성적 소수자들의 프레임에서는 또 다른 haves가 havenots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자신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없애고 다른 성기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동성애자의 경우 게이들과 레즈비언들 간의 대립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성애자들 간의 가부장제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하게 말이다. 물론 동성애 간의 Top과 Bottom 간에도 문제는 존재하게 된다.

얘기만 들어도 흥미로운 설문 조사라 그런지 무려 1만 8,000명이 참여했고 그만큼 연구의 신뢰도도 높아졌다. 이 실험 결과는 성적지향을 14단계로 나누어 일직선상에 표시한다. 왼쪽 끝의 0점은 '절대' 이성애자, 오른쪽 끝의 13점은 '절대' 동성애자다(Nelissen, 2014: 118-119)

마크 네릴슨(Mark Nelissen)이 자신의 책 『다윈의 안경으로 본 인간동물 관찰기』(Darwin in de suermarkt, 2011)의 “저는 70% 동성애자 30% 이성애자입니다.”(Nelissen, 2014: 117-122) 등에서 소개된 척도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과거 앨프레드 C. 킨제의 “성적 지향 척도(The Kinsey Scale, also called the Heterosexual - Homosexual Rating Scale)”와 그의 변형된 형식의 척도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극단만을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를 나타내고, 그 외의 영역은 양성애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적인 양극단(兩極端, 100%)에 있을 때에만 동성애자가 되어야만 한다(킨제의 척도에서는 6점과 넬리슨이 소개한 척도의 경우 13점인 ‘절대’ 동성애자만이 진정한[純粹한] 동성애자라고 해석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1-12점 사이의 성적지향은 정도의 차이가 있는 양성애자들의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0과 0 사이의 어떤 숫자도 100과 0은 절대 아니다. 99.999... 는 100이 아니며, 또, 0.000000...1도 0은 아닌 것이다. 아마도 양극단에서 벗어난 양성애적 기질을 보이는 양성애자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동성애든 이성애를 행할 것이다. 그때그때가 그 당시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적 대상을 찾았는지에 따라서 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므로 넬리슨이 말한 “저는 70% 동성애자 30% 이성애자입니다.”는 말은 한 마디로 “저는 동성애에 더 끌리는 양성애입니다”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저는 70% 동성애자입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70% 동성애자 30% 이성애자입니다.”는 “저는 양성애자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100 동성애자만이 순수 동성애자가 아닌가?

2) 자연, 쌍생아, 유전자 그리고 뇌 연구

과학 분야의 친동성애적 연구자들은 어떻게? 자연에서 동성애 사례를, 쌍생아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 연구, 그리고 뇌 연구 등에서 동성애를 찾고자 한다. 물론 이들은 본질론자로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하는 이유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즉 천성적(自然的現象, nature)인 것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 세 불리기를 함으로써 동성애라는 것이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성애 세 불리기 전략은 그렇게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자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동성애의 경우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항문성교(肛門性交, anal sex)가 실질적(實質的)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본 연구자의 상상력에 의한 것인지 몰라도 화학적 물질 등을 이용해서 동물들에게서 항문성교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무리한 생각도 해본다. 동물세계에 항문성교가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다. 내 자신을 보아도 나는 매우 의심 많은 사람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지만 惡意는 없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한다). 동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동성애다’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동성애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자연에서의 동성애 사례를 늘림으로써 ‘동성애 수 불리

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조안 러프가든 (Joan Roughgarden, 앞에서 여러 번 지적하였듯이 그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교수)조차도 보노보[Bonobo, 학명 Pan Paniscus로, 성적 표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롭다고 한다. <타잔>에서 타잔과 제인이 데리고 다닌 유인원, monkey가 아닌 ape다. 꼬리가 없는 것이 기억날 것이다]에게서는 항문성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노보(Pan Paniscus) 암컷의 동성 접촉은 두 암컷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루어진다. 한 암컷이 팔과 다리를 파트너에 매달리면, 파트너가 그 암컷을 땅에서 들어 올린다. 두 암컷은 생식기 주위의 부픈 곳을 좌우로 문지르는데, 오르가즘에 달하면 이빨을 드러내 허죽거리며 쾌락 소리를 지른다. 이런 행위는 이른바 생식기 대 생식기 문지르기('GG 문지르기')의 한 형태다. 보노보 수컷의 동성접촉에서는 두 수컷이 불룩한 부위를 서로 문지른다. 즉 둘이 등을 맞대고 선 채 한 수컷이 자신의 음낭을 상대방의 궁둥이에 대고 문지른다. 또 다른 자세로 페니스 펜싱(penis fencing)이 있는데, 이때 두 수컷은 가지에 얼굴을 맞댄 채 매달려서 서로의 발기한 음경을 함께 문지른다. **보노보는 항문 접촉을 하지 않지만** 때때로 구강교미를 하고 생식기를 손으로 마사지하며 강렬한 프렌치 키스도 많이 한다. 이러한 성적인 활동과 더불어 보노보는 심지어 여러 가지 수신호를 개발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서로 알린다. 이 수신호는 이성 간, 동성 간의 성적 접촉에서도 이용된다.(Roughgarden, 2010: 221, 강조는 본 연구자).

다음의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켈빈 랠랜드와 길리언 브라운(Kevin Laland and Gillian Brown)³⁹은 그들이 함께 쓴, 『센스 앤 넌센스』(Sense and Nonsense: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human behaviour)에서 “잘못된 질문, 선부른 설명”에 대한 예로 든 것이 B. 베이지밀(B. Bagemihl, 1999)⁴⁰이 자신의 책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는 점이다. 즉 수컷끼리 올라타는 행동이 동성애적 행동으로 자주 설명되어지는데 그러한 설명들은 매우 선부른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하나의 좋은 예가 많은 원숭이들에게서 관찰되는 ‘수컷끼리 올라타는 행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종종 ‘동성애적 행동’으로 묘사하기도 한다.(예컨대 B. Bagemihl, 1999) 그렇지만 ‘비인간 영장류의 수컷끼리 올라타기’와 ‘인간 남성의 동성애’가 동일한 근접인과(proximate causation) (전 생애를 통한) 발달과정, 기능, 진화사를 공유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비인간 영장류의 경우, 동성끼리 올라타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환으로 생각되며,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우월감을 과시하는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A. F. Dixon]. **따라서 수컷끼리 올라타기와 동성애는-행위의 피상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각각 다른 원인에서 유래하는 별개의 행동패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Laland and Brown,

³⁹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지적도 한다. “윌슨(E. O. Wilson)은 트리버스가 제안한 개념을 발전시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원시사회의 동성애자들은 도우미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부모의 의무라는 특별한 책임에서 해방된 그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혈연선택 하나만으로도 동성애를 선호하는 유전자가 높은 평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동성애에 관한 윌슨의 가설은 하나의 과감한 추측에 불과하며 (순진할 정도로) 정치적 의미에 무감각하는 점에서, 『사회생물학』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Laland and Brown, 2014: 116).

⁴⁰ Bagemihl, B. (1999). *Biological Exuberance: Animal Homosexuality and Natural Diversity*. London: Profiels Books.

2014: 29, 강조는 본 연구자).

쌍생아의 연구를 보자. 일관성을 포함해서 쌍생아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동성애에 대해 다양한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쌍생아의 동성애 일치 비율”에 대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과거 『뉴스위크』(Newsweek) 지(誌)에 실린 적이 있었다는 점도 인지했으면 한다. 연구자들도 쌍생아들의 성적 성향에 대해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이 일치하지 않는 쌍둥이들에 대해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동일한 유전자 지문을 가진 두 사람이 전적으로 다른 성적 성향을 가질 수 있는가 (만일 성적 성향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연구자들조차도 ‘이렇게 다른 성향의 쌍둥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경에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인정했다.(Newsweek, 1993: 46-53.; Foster, 2007: 123 재인용).

유전자 등에서 동성애 원인을 찾고자 했던 노력의 경우다. 게이 유전학자인 딘 H. 해머(Dean H. Hamer) 등은 X염색체 위의 Xq28에서 남성 동성애 인자를 찾았다고 사이언스에 발표했었고, 서구 언론들이 검증 없이 이를 대서특필(大書特筆)하면서 이 연구는 아무런 검증도 없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이는 Simon LeVay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그 이후 해머의 연구는 연구자들에 의한 후속 연구에서 해머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말 그대로 단지 단순 추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것도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결과가 수시로 변동[“있다/없다”로 연구결과가 바뀌는 등]하는 연구결과 말이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K. 포스터(David Kyle Foste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몇 년 지나, 해머의 연구가 정확함을 결정하는 더 많은 연구가 라이스 등에 의해 실행되었다. 이 연구에 참가했던 연구자들의 결론이다. ‘우리의 결과가 해머의 본 연구와 왜 일치하지 않는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가 해머와 다른 이들의 연구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연구에 보고된 것만큼 유전적 효과를 연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 자료는 xq28 위치에 성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Rice et al, 1999: 667] **해머는 결국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성적 성향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사람을 게이로 만드는 유전자는 없다’**”[Hamer and Copeland, 1994: 82]⁴¹(Foster, 2007: 124-125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⁴²

⁴¹ Rice, G., C. Anderson, N. Risch, and G. Eber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ts at Xq28,” *Science*. 284. 665; Hamer, D. H. and P. Copeland (1994). *The Science of Desi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⁴² 생물학자이자 과학작가이며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세포생물학, 인체해부학 교수이며 게놈센터, 종합 암센터, 줄기세포센터의 연구원인 폴 너플러(Paul Knoepf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실에서 서도 실제로 수년간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적 기호나 ‘게이 유전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논란에 가까운 주장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주장에 회의적이다. 보통 유전자 결정론은 과학적 확률론을 단순화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Knoepfler, 2016: 283).

동성애의 선천적 요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은 뇌의 연구에서도 이어진다. 이러한 연구가 발달한 데에는 뇌영상기술(機能性腦映像技術)의 발달로 인해 기술적으로 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fMRI 특히, 기능성 MRI(functional MRI) 등의 기술의 출현으로 말이다.⁴³ 동성애 관련 뇌 연구는 전시상하부의 간질핵과 전교련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졌다. 대표적인 연구가 게이인 사이몬 르베이(Simon LeVay)의 연구다. 사이먼 르베이는 1991년에 전시상하부 간질핵인 INAH3(INAH: Interstitial nuclei of the anterior hypothalamus)을 조사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는 여성처럼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크기가 작다는 결과를 『사이언스』(Science) 지에 발표했다(LeVay, 1991). INAH3 크기를 보면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 동성애자의 INAH3이 크기가 여성의 INAH3와 비슷하므로 INAH3이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무분별한 수용과 언론의 호들갑[언론의 입장에서 확실히 장사가 되는 것이다]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동성애자가 되게 하는 두뇌를 타고난 결과로 인식하게끔 각인시키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앞의 쌍생아의 동성애 관련 연구들과 동성애 관련 유전자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 관련 뇌 연구들도 “과학적 자료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발표된 왜곡된 결과가 얼마나 위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는지를 잘 나타내는 사례라고 본다.”(길원평·도명술 외, 2014: 41-42).⁴⁴ 그렇다면 동성애 관련 뇌 연구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W. 바인과 그의 동료 등(Byne, Tobet, Mattiace, Lasco, Kemether, Edgar, Morgello, Buchsbaum, & Jones, 2001)의 연구에 의하면, INAH3 크기만 보고 INAH3와 동성애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추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INAH3의 크기가 작은 것은 출생 후의 신경망 감소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하기도 한다. 전교련 연구에서도 라스코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Lasco, Jordan, Edgar, Petito, & Byne, 2002)⁴⁵에 의해 전교련의 단면을 조사한 결과, 남녀의 차이도 없고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이성애자 사이의 차이도 없었다고 한다.⁴⁶

⁴³ fMRI 즉 뇌영상과 관련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뇌과학자이자 연구 관리책임자이며, 전 『네이처』 편집장이었던 찰스 제닝스(Charles Jennings)는 ‘코카인과 도박은 동일한 뇌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따라서 그것들이 아마도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뇌가 두 가지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도시나 교통정체를 찍은 위성사진을 보고 (각 차량이나 건물, 사람을 식별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론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Freedman, 2011: 66-67).

⁴⁴ “유감스럽게도 1991년 르베이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국내 문헌에 많이 인용되어 있지만, 르베이 논문의 문제점과 르베이의 연구 결과를 논박한 2001년 바인 등의 연구 결과는 거의 소개되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는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100).

⁴⁵ Byne, W., S. Tobet, L. A. Mattiace, M. S. Lasco, E. Kemether, M. A. Edgar, S. Morgello, M. S. Buchsbaum, and L. B. Jones (2001). “The interstitial nuclei of the human anterior hypothalamus: an investigation of sex, Sexual orientation, and HIV status,” *Hormones and Behavior*. 40. 86; Lasco, M. S., T. J. Jordan, M. A. Edgar, C. K. Petito, and W. Byne (2002). “A lack of dimorphism of sex or sexual orientation in the human anterior commissure,” *Brain Research*. 936. 95.

3) 동성애적 성경해석(Gay Reading)⁴⁷

동성애와 관련해서 신학 관련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학 분야에서 친동성애적 견지를 지니고 있는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재해석(再解釋, reinterpretation), 재고(再考, rethinking), 재(再)읽기(rereading)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정통적인 해석을 부정하는 방법을 쓴다.⁴⁸ 대표적인 예가 롯과 소돔 사건⁴⁹에 대한 범죄가 동성애가 아니었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교도들도 동성애를 지적할 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de Larocque, 2007: 119)⁵⁰ 그리고 성경의 동성애를 규정한 구절들에 대해서 오늘날의 동성

⁴⁶ 다음은 사이몬 르베이(Simon LeVay) 박사의 말이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게이를 만드는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나의 연구에 해석하는 것에 가장 보편적인 실수를 하는데, 나는 게이 남자들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보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뇌에 게이 중추가 있다는 것도 보이지 못했다.”(LeVay in Nimmons, 1994: 64-67.; Foster, 2007: 123 재인용) Simon LeVay, quoted in David Nimmons (March 1994). “Sex and the Brain,” *Discover*. 5. 64-67 참조.

⁴⁷ 존슨(Luke Timothy Johnson)의 다음의 언급을 참조하라. “급진적인 동성연애 자유주의자 해석에서는 반제도주의 예수가 ‘너희들이 나처럼 동성애적’이고, 이성주의자 집권에 대항한 영웅적인 대적자로서 선포된다. 한 번 더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바울의 진술이 그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킨다. 각각의 해석에서 예수는 교회에 반대적이고 복음서는 나머지 신약성경에 반대 성향을 띠는데, 그러나 이런 해석이란 오직 독자들의 이념적 위입에 맞는 예수의 모습에 굴복하려는 평범한 느낌에 대항하여 읽을 때 가능한 것이다.”(Johnson, 2003: 98-99).

⁴⁸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도 있다. 예수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복음서를 연구한 로즈메리 류우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예수의 삶은 특별한 생활의 양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독신으로 지내긴 결혼을 하건, 이성애이건 동성애이건 기독교인을 위해 정해진 생활이란 없다. 오히려 다양한 성적 표현을 포함한다. 성에 관한 아무런 조건도 정해져 있지 않다. 아무것도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복음서는 성의 세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성은 어둠의 죄악도 아니고 완성의 길도 아니다.”(Ruether, 1978: 135; Phipps, 2006: 352-354 재인용). Ruether, Rosemary (1978, May 29). “The Sexuality of Jesus,” *Christianity and Crisis*. 38. 135 참조.

⁴⁹ 신득일 교수는 창세기 19장의 소돔의 죄를 분류하기를 동성애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와 환대거부와 관련 있다는 견해 그리고 동성애와 더불어 환대거부와 관련성이 함께 인정하는 제3의 견해로 분류한다. 신득일에 의하면 소돔의 죄를 동성애에 관련해서 보는 이로는 Clement of Alexandria, Augustine, E. A. Speiser, G. von Rad, W. G. Plant, G. I. Bashen, S. John and Paul D. Feinberg, G. J. Wenham, V. P. Hamilton, D. J. Wold, K. A. Matthews 등이다. 그리고 소돔의 죄를 환대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이들은 D. S. Bailey, J. J. McNeill, John Boswell, J. C. McCann, J. E. Miller [James Brownson도 포함된다] 등이다. 소돔의 죄를 동성애와 함께 환대거부로 보는 견해로는 Keil & Delitzsch, C. L. Seow, R. A. J. Gagnon, L. Ruppert, W. M. Swartley, N. M. Sarna, W. W. Field 등을 있다고 한다.(신득일, 2008: 7-36 참조; 김진규, 2017: 99: 11번 각주 재인용). B. N. 피터슨(B. N. Peterson)은 창세기 19장에 강간과 환대거부라는 죄악이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더 넓은 율법서라는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소돔의 죄는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않은 모습과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을 거부하는 것과 함께 성행위의 저질화를 보여주는 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죄악이 동성애였다고 결론 내린다.(Peterson, 2016: 17-31; 김진규, 2017: 99: 11번 각주 재인용).

에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앞의 주장과 모순되게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이는 동성애적 해석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고, 롯과 나오미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한다. 백부장과 종의 관계⁵¹도 동성애 관계로 해석한다. 심지어 동성애적 해석을 하는 이들에 의하자면, 예수님 [예수가 사랑한 남자(The Man Jesus Loved)와]의 경우⁵²도, 사도 바울의 경우도 모두 동성애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⁵³ 물론 예수님의 경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보다는 동성애적 행위를 하시는 분으로 의심하게끔 아리송하게 결론을 내리지만 말이다. “이렇게 읽힐[解釋될] 수도 있다” 등의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말이다. 일종의 세 불리기를 시도한 것이다. 기독교 전통[傳統 또는 正統]과 성경 본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의 창안한 개인적인 해석 방법을 가지고 말이다. 문제는 연구자 스스로 자신들이 기독교적 정통에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해석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 하겠다.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그것도 세계적인 대학교의 교수라는 점과 박사 학위의 소유자라는 점은 그러한 심각성을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50 “이슬람에서도 동성애는 간통이나 혼외정사와 마찬가지로, 신의 계율을 어기는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된다. 그 근거는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한 『꾸란』의 구절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한 ‘말’(하디스)을 집대성한 언행록(수나)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는 두 사내가 롯이 목격했던 죄를 범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를 죽이라’”(de Larocque, 2007: 119)

51 김득중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하라. “물론 헬라어 단어 ‘παῖς’가 “어린아이(child), 아들(son), 종(servant)”을 다 의미하기는 한다. 이 단어는 ‘아들, 이나 종’ 어느 것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말 성서에서도 흔히 종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마태가 ‘백부장의 병든 παῖς’라고 말할 때는 오직 παῖς란 단어만 사용한 반면에(마8:7, 8, 13), 백부장이 권위의 관계에 대해 말할 때, 즉 주인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에는 ‘종’ 또는 ‘노예’를 뜻하는 δούλος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관되게 세 번씩이나 παῖς란 단어를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은 병든 사람이 ‘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태의 본문에서 παῖς를 ‘아들’이라고 번역하여 해석한 울리히 루츠(Ulrich Luz)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된다.”(Luz, 2001: 8; 김득중, 2016: 259). Luz, Ulrich (2001). *Matthew 8-20: Commentary H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참조.

52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심차 자코보비치와 고생물학 박사인 찰스 펠리그리노가 쓴 『예수의 무덤』(The Jesus Family Tomb)에서 심차 자코보비치(Simcha Jacobovici)는 ‘사랑받는 남자’를 마리와 예수님과의 결혼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석(추측!)한다. 이것 또한 무슨 헛소리인가! “예수가 어둠속으로 끌려갈 때, 흠이불만을 몸에 두른 채 예수의 뒤를 따랐던 이름 없는 소년의 슬픈 이야기를 마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군인들이 흠이불 자락이라도 잡아서 소년을 붙잡으려 했을 때, 소년은 문자 그대로 흠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몸으로 달았다. 마가가 이처럼 상세하게 묘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예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암시만을 글에 남겨두려 했던 것은 아닐까?”(Jacobovici and Pellegrino, 2007: 328-329).

53 유다(Judas)의 경우를 동성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1986년 데렉 자만 감독의 유명한 영화에서도 묘사된 것처럼, 카라바조는 양성애자였다. 그 때문에 예수와 유다, 요한 간의 삼각관계는 동성애를 암시한다는 주장도 있다[283 페이지에 있는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체포>(1602) 그림 참조] [같은 책 283 페이지에 있는] 로드비코 카라치의 <유다의 입맞춤>(1598)의 경우도 참조하라.(Stanford, 2016: 282-295).

대표적인 인물인 다니엘 A. 헬미니악(Daniel A. Helminiak)은 자신의 책, “2장. 『성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Helminiak, 2003: 13-34)에서 “문자 그대로 읽기”(literal reading)와 “역사-비평적 읽기”(historical-critical reading)로 나누어서 양자를 서로 비교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문자적인 읽기가 지닌 한계를 영어 관용어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헬미니악에 의하면 이런 식의 논리다. “to be out in left field”는 문자적으로는 “왼쪽 필드에 나가 있다”이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아주 이상하다”, “완전히 잘못되었다”라는 뜻을 먼저 강조한다. 헬미니악은 한마디로 성경의 문자적인 읽기를 붕괴시키기 위해 그러한 선행 작업(先行作業)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다윗과 사울[삼상16:21; 삼상15:23]의 관계에 대한 헬미니악이 구사하는 동성애적 해석이다. 헬미니악의 해석에 의하자면, 아버지 사울 왕 그리고 아들 요나단은 양치기 소년 다윗을 사이에 둔 동성애적 삼각관계가 된다. 동성에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가 다윗과 치정(癡情)의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한 여자를 두고 왕과 왕자[아버지와 아들]가 대립한 것도 좀 그런데, 한 남자를 두고 아버지 왕과 아들 왕자가 대립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헬미니악이 이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다.

「사무엘상」 16장 21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다. “다윗이 사울에게 왔고 그[다윗]가 그 앞에서 발기했을 때 그[사울]는 그를 무척 사랑했다”(When David came to Saul and he[David] had an erection in his presence, he[Saul] loved him greatly) 나중에 예언자 사무엘(Samuel)이 내놓고 사울에게 다윗과 정사를 벌인 일을 비난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항의했다. “분명히 뒤에서 찔러 넣은 행동은 죄가 되오.”(Surely, thrusts in the rear are on offense, 삼상 15:23) 이것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율법이 금하는 남성 간 항문 성교를 가리키는 언급이다.(Helminiak, 2003: 185-186).

씨어도어 W. 제닝스 주니어(Theodore W. Jennings, Jr.)는 또 어떤가? 제닝스도 자신의 책, 『예수가 사랑한 남자』(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의 “제1장. 동성애와 성서학적 해석”(“Chapter 1. Homosexuality and Biblical Interpretation”)에서 (Jennings, 2011: 12-29), “성경재해석하기”(Rereading the Bible)와 더불어 “게이 해석을 위한 전략”(Strategies of ‘Gay Reading’)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게이 해석을 위한 전략을 사용하여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 보이려고 시도한다.⁵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은 동성애혐오적 독해들이 텍스트를 모호하게 읽도록 만드는 것에, 즉 성경의 의도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을 수반하는 것으로서의 해석에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게이를 지지하는’ 해석이다. 이런 종류의 해석은 요나단(Jonathan)과 다윗(David) 또는 룯(Ruth)과 나옴(Naomi)의 이야기를 게이에 대한 실증적인 방식으로 읽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다. … 이 책에서 너의 의도는 동성애혐오와 게이에 대한 공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서 구절들을 우선적으로 다루

54 “P. 프롱크(P. Pronk)는 네덜란드에서 게이 운동을 지지하는 학자이다. 그런데도 저자 프롱크(P. Pronk)는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인정한다.”(김재성, 2016: 391, 5부 제1장, 2번 각주 인용). Pronk, P. (1993). *Against Nature? Types of Moral Argumentation Regarding Homosexuality*. Grand Rapids, MI: Eerdmans. 279. “Wherever homosexual intercourse is mentioned in Scripture, It is condemned”

는 방어적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성서에 대한 전통적인 (오)독해가 받을 만한 개연성보다 더 큰 개연성을 부여한다. 그 대신 나는 사실상의 증거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에 대한 검토에, 즉 동성애적 욕망과 관계들을 감싸 안고 긍정하는 많은 증거에 대한 검토에 집중할 것이다 (Jennings, 2011: 21, 22, 23; Horner, 1978 참조).⁵⁵

존 셸비 스폅(John Shelby Spong) 성공회 전(前) 감독은 “바울 사도도 게이”라고 주장한다.⁵⁶ J. S. 스폅에 의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게이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동성애에 대해 더욱 더 가혹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⁵⁷ 친동성애자들의 이러한 게이 해석들은 한(制限)도 끌도 없다. 이들의 주장들이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을지 모르겠다.

이제 나는[John S. Spong 주교] 바울이 게이였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는 욕망을 깊은 곳에서 억누르고 자기 혐오적이며, 자신의 욕망을 완강하게 부정했으며, 자기 판단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을 통해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 했으며, 그 통제가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에 그 자신마저도 자신의 이런 사실을 직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억압은 살인적이다. 그것은 억압당하는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때로는 그의 방어적 분노 역시 자신에 대해 도전하며 위협적인 사람, 혹은 그가 극히 무서워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죽인다.(Spong, 2007: 199, 강조는 본 연구자).

4) 그리스·로마 동성애와 문화·역사 속의 유사 동성애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동성애 세 불리기를 시도한다.⁵⁸ 역사적으로 다른 문화들에서도 동성애라

⁵⁵ Horner, Tom (1978). *Jonathan Loved David: Homosexuality in Biblical Tim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성공회 감독 휴 몬테휘오레는 예수가 결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성연애자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예수가 선천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다면 실제적으로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한 그런 독신의 성향은 당시 큰 죄가 되지 않았다. 몬테휘오레에게 영향을 받은 로빈슨은 예수가 동성애인가 이성애인가를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물론 전통적인 대답은 예수가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이다.”(Phipps, 2006: 135-136).

⁵⁶ “교회는 동성애가 정상이 아닌 악이라고 노골적으로 정죄하는데도, 동성애를 가장 가열차게 정죄하는 교회 자체가 그 안수 받은 성직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동성애자 비율을 갖고 있다. 정말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한 가장 노골적인 증오심은 동성애를 정죄하는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제의(祭衣) 속에 숨어 있는 동성애자 자신들에게서 표출되고 있다.”(Spong, 2005: 73). 존 S. 스폅(John S. Spong)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Judith Butler]버틀러는 이성애자가 사실상 동성애 욕망을 갖고 있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제시한다. 철저히 이성애를 수행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동성애를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강하게 부정하는 환자에게 ‘그럴수록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듯이, 버틀러는 자신의 동성애 욕망을 강하게 부정하는 이성애자에게 ‘그럴수록 당신이 동성애를 원했다는 것은 자명해집니다.’라고 말한다.”(이현재, 2007: 118-119). 버틀러의 우울증과 동성애에 대한 이론은 다음 책의 해설을 참조하라.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여이연. 2006).

⁵⁷ 참조, 수잔 스콰이어(Susan Squir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라는 인물로 거버나기 전에 이미 성인이었다는 점과 그가 바리새파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사울은 분명히 유부남이었을 것이다.”(Squire, 2009: 125).

⁵⁸ 다음을 참고하라. “동성애 문제는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위의 지침들도 그것이 문

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다.⁵⁹(이 경우에도 이들이 인정했다고 한 것이 법률상[de jure]으로 인정했는지, 아니면 사실상[de facto] 인정했는지, 그들이 통치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묵인했는지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했는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동성애는 오랫동안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고대에서만큼은 동성애를 특별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 문화는 우리 문화와 달라서 인간이 때에 따라 남색과 여색 어느 쪽을 선택하는 흔쾌히 허락되었다. 또한 이러한 양성 교제의 찬성 혹은 공존은 당시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 문학과 미술에서 동성애 주제는 어떤 거리낌도 없이 환영받았다” 이 때문에 킬릭스 같은 고대 그리스 식기에는 동성애자의 다양한 성교 장면도 많이 그려졌다. 당연히 그들의 신화에도 동성애 관련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Ikegami, 2016: 262 재인용).⁶⁰

또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동성애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동양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서양에도 동성애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다. 그리스·로마시대에도 동성애는 있었다. 아메리카에도 동성애는 있었다(예 Berdachism⁶¹). 파푸아 뉴기니아에도 의례적인 남색행위(ritualized homosexuality)가 있었고, 일본에도 동성애(Pink Samurai 등)(Ujiie, 2016)가 있었고, 중국에도 동성애가 있었고(예, 分桃, 복숭아를 나누다.; 斷袖, cut sleeve, 궁녀들 간의 동성애는 ‘對食’이라고 했다)는 것이다(Jennings, 1999; Carlin, 1995; 윤가현, 1999, “제2장. 동성애 현상의 문화적 다양성”, 43-75 참조). 우리나라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지적이다(수동모/암동모, 남사

화적으로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 전체가 동성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그릇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Fee and Stuart, 2001: 122).

⁵⁹ 리처드 A. 포스너(Richard R. Posner)의 다음의 견해 참고하라.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서 남색을 자주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그랬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그리고 남색은 어쩌면 시민계층의 젊은 남성의 소수만이 즐긴 취향이었을 수도 있다.”(Posner, 2007: 225); “그렇다고 모든 사회가 다 동성 관계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아시리아인이 통치하던 고대 바빌론이나 동성 관계를 맹렬히 반대한 조로아스터교가 우세했던 페르시아, 아즈텍족이 통치하던 페루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엄격히 처벌했다.”(Carlin and Wilosn, 2016: 18); Bullough, V. L. (1976). *Sex, Society and History*. New York. 29-33.; Bullough, V. L. (1976). *Sexual Variance in Society and History*. Chicago. 39-45. 52.; Bailey, Derrick Sherwin (1955). *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London, 33-35. 참조.

⁶⁰ 길고 내용이 좀 그렇지만 레이 로렌스(Ray Laurence)의 다음의 글도 참조하라. “폼페이 유적지의 서버번 목욕탕에서 발견된 춘화에서는 성행위를 하는 인물의 신체, 발기된 음경, 성기의 삽입 장면 등이 두드러져 보인다. 목욕탕에 온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옷장들 가운데 I번부터 VIII번 옷장 문에 그려 놓은 이 그림들은 여러 가지 체위와 성행위에 따른 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성애를 묘사한 그런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삽입을 한 그림이 가장 흔하다. 여자가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펠라티오 해주는 그림은 없지만 ‘69’자세의 그림은 있다. 남자가 남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그림은 드물다. 남자가 여자에게 쿤닐링구스 해주는 그림은 아주 귀하다. 두 여자만 어우러진 상태에서 한 여자가 다른 여자에게 쿤닐링구스 해주는 그림은 없다.”(Laurence, 2011: 176-181).

⁶¹ 참고로 어원적으로 베르다체(Berdache)는 남자매춘부 혹은 미동(美童)을 의미하는 아랍어의 바르다주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용어사용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두 정신 사람들’(two-spirit peop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Lang in Ramet, 2001: 320).

당파에서 동성애자, 남자역할은 수동모, 여자의 역할은 압동모였다고 한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게이컬처홀릭>편집위원회, 2011; 윤가현, 2001: 256-257 참조). 거의 대부분의 문화 속에 바로 동성애가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인지 몰라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연구자들까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북아메리카의 많은 원주민 문화와 그리스 등 고대 문화들이 노래와 전설에서 동성 간의 관계를 찬양하고 있는데, 왜 동성애가 문화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가?”(Ray, 2013: 26).

킨제이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3년 후 인류학자인 포드와 심리학자인 비치(C. Ford and F. Beach)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후자의 보고서는 동성 간의 성행위가 비자연적이라는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조사했던 76개의 원시부족 공동체 중 49곳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정상적으로 용납되는 행위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⁶² 곧 동성들 간에 표현되는 성행동을 문화적으로 비교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규정되기도 한다(윤가현, 1999: 52-53).

3 그리스·로마시대 동성애와 그에 대한 재고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근거를 정당화하거나 또는 “세 불리기”를 위해 내세우는 것으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일명 그리스 식 사랑 Greek Love]다. 이들에 의하면 인류 문화가 아주 번창한 시기였던 그리스·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일반적이었던 것이다.⁶³⁻⁶⁴ 참고로 일부에서는 로마 시대에 동성애를 혐오했다는 주장도 있기도 한다. “수도 로마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는 것, 한 마디로 다른 남자에게 성기 삽입을 허락한다는 것은 정치 생명을 끝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일부 학자는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대상을 향한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단서로 삼아 로마사회가 동성애를 혐오했다고 판단했다.”(Beard, 2016: 418).

⁶² Ford C. and F. Beach (1951). *Patterns of Sexual Behavior*. New York: Harper. 참조.

⁶³ 폴 베인(Paul Veyne)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고대인들은 남자 동성애를 비난했지만, 그 비난의 강도는 애정의 추종자 또는 혼외정사를 비난하는 정도에 그쳤다(적어도 능동적 남자 동성애에 관해서는 그러했다)”(Veyne, 1996: 46).

⁶⁴ 로버트 냐프(Robert Knapp)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로마서 1장 21-27절에서] 바울은 로마인들의 끔찍한 도덕적 결함을 일일이 열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신론자들을 동성애적 행위에 관대한 사람들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로마인들이 동성애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울의 설명을 통해 다신론자들 사이에서 동성애적 행위가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이 애써 동성애적 행위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면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동성애에 반대했거나 적어도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는 말에 설득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은 뜬금없이 나올 수 없다. 바울의 수행자들과 청중은 동성애적 행위에 반대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을 것이다. 『꿈풀이』(Interpretation of Dreams[Artemidorus의 작품])와 『점성술의 노래』(Carmen Astrologicum[도로세우스 Dorotheus의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보건대 당시에는 동성애적 행위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민 남자들은 자연스레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향을 지녔을 것이라는 게 내[Robert Knapp] 생각이다.”(Knapp, 2013: 53).

1) 그리스·로마시대 동성애적 욕망의 기저

그렇다면 그리스·로마시대에 동성애가 변성할 수 있었던 그 기저(基底)에는 무엇이 존재하였을까? 확실한 것은 외형적인 이유를 봤을 때에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동성애적 끌림’(homosexual attraction)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서양에서 동성애가 사랑의 자유나 파트너에 대한 사랑 혹은 단순하게 쾌락에 기반하고 있다면, 고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Angela, 2014: 317)는 지적이다. 메리 비어드(Mary Beard)는 더 강도 있게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로마 세계에서는 남성 간의 성행위도 많았으며, ‘동성애’를 배타적인 생활 방식이나 성적 기호로 간주했다는 단서는 거의 없다.”(Beard, 2016: 417).

(1) 교육!?

한스 리히트(Hans Licht) 등과 같은 연구자들은 당시의 동성애가 당시의 ‘교육’(教育)⁶⁵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 대해서 기술하였다(Licht, 2003: 306; Richards, 1999: 199-200; Angela, 2014: 317; Fernandez, 2004: 165; Harris, 1996: 143; 콕차섭, 2009: 206⁶⁶; Kudla, 2005: 448 참조). 그러한 이유로 오늘날 이성애자들에게 매우 당황스럽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한스 리히트는 훌륭한 동성애자가 당시에 훌륭한 교사였다는 언급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동성애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기술(記述)이다.

“사랑은 불변을 향한 간구”라고 정의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행한 한 연설의 결정 부분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랑은 여인의 몸에서 어린아이의 생명을 받아케 하는 것이고, 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지혜와 진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정의 속에서 에로스는 최고의 이상형이다. 놀라운 조화로 녹아든 관능적이면서 정신적인 것으로 에로스에게는 필연적인 완벽성이 요구된다. 아주 훌륭한 교사는 아주 훌륭한 동성연애자이기도 하다.(Licht, 2003: 306)

“그리스에서 동성애의 기본 관계는 ‘연장자’(erastes)와 ‘연소자’(eromenes) 사이의 관계였다. **연장자는 연소자의 남성적 특징(미, 힘, 민첩함, 수완, 인내심)을 칭찬하고, 연소자는 연장자의 경험이며 지혜며 통솔력을 존중했다. 연장자는 청년을 훈련, 교육, 보호하도록 요구되었고, 불원간 그 청년은 성장하여 연장자의 연인-제자보다는 친구가 되었으며, 그 자신도 연소자를 찾아 나섰다.**”(Richards, 1999: 199-200, 강조는 본 연구자).

⁶⁵ “여하튼 고대인들이 정의하는 ‘교육적인’ 남색 관계의 이상은 다음과 같았다. ‘이는 재능이 많은 젊은 영혼에 애착을 갖는 사랑이며 우정을 통해 그를 미덕에 이르도록 하는 사랑이다.’”(Plutarque, Eroticos. 750 D.; Flaceliere, 2004: 187 재인용).

⁶⁶ “당시 성년 남성과 소년 사이의 동성애를 가리켰던 ‘파이드라스티아’(paiderastia)는, 여기서 파생된 남색(男色)이라는 의미의 현대어 ‘페데라스티아’(pederastia)와는 달리, 단지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고 양자 사이의 혼유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사회 관습적 개념이었다. 고대인들은 대체로 동성애를 사랑의 자연스러운 한 형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동성애 인식과 큰 차이가 있다.”(콕차섭, 2009: 20)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동성애는 로마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 오늘날 서양에서 동성애가 사랑의 자유나 파트너에 대한 사랑 혹은 단순하게 쾌락에 기반하고 있다면, 고대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리스에서 남성의 동성애는 본래 ‘교육’의 목적이었다.** 소년에게는 성인 남자 한 명이 ‘스승’이 되었고, 그들의 동성애는 남성다움을 향한 일보 전진으로, 노련한 전사가 어린 전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식되었다.(Angela, 2014: 317, 강조는 본 연구자).

(2) 체열?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자신의 책,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Flesh and Stone: The body and the city in western civilization)에서 동성애가 ‘육체의 열’(Sennett, 1999: 38-51 참조) 즉 ‘체열(體熱)’에 관한 당시 사람들의 이해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술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체열이 인간을 생성하는 과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액의 열에 너지가 피를 통해서 살에 스며들기 때문에 남성의 살이 더 뜨겁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⁶⁷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소년의 신체는 실제로 여자를 닮는다. 여자는 말하자면 불임의 남자이다. 사실 여자는 한 가지 무능력 때문에 여자이다. 즉 차가운 성질 때문에(혈액 또는 혈액이 없는 동물에서 혈액에 해당되는 것) 영양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액을 만드는 힘을 결여하고 있다”(Aristotle, *Generation of Animals*. 728a.⁶⁸; McLaren, 1998: 42 재인용). 육체의 열에 대한 고전적 이해가 사람들 사이의 우월과 열등에 대한 믿음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이해는 동성애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다.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 양당사자(兩當事者) 간의 접촉으로 인해 서로의 체열을 높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⁶⁹ 이에 대해 리처드 세넷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에라스테스(erastes: 나이든 남성)와 에로메노스(eromenos: 연하의 남성)는 그 대신에 서로의 성기를 허벅지 사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러한 문지르는 행위가 서로의 체열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그 체열은 둘 사이의 성적 경험을 집중시킨 사정이 아닌 몸의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었다.** 또한 남자와 여자간의 전희(foreplay)에서의 마찰은 여자의 체온을 높이고, 이로 인해 생식을 위한 액체를 생성시킬 충분한 힘을 갖는다고 여겨졌다.(Sennett, 1999: 48, 강조는 본 연구자)

(3) 지배와 복종!? 남성다움의 과시

⁶⁷ “고대 아테네의 문학과 예술은 청년과 장년 남성 간의 성관계를 칭송하기도 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테네인들은 오직 남성에게서만 완전함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젊은 남성의 신체는 완전한 육체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남성과 불완전한 여성의 사랑보다는 청년과 이보다 나이가 많은 장년 남성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여겼다.”Wiesner-Hanks, 2006: 284-285).

⁶⁸ Aristotle. *Generation of Animals*. trans. A. L. Peck (194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728a.; Horowitz, Mary Anne Cline (1976). "Aristotle and Women." *Journals of the History of Biology*. 9. 183-214.

⁶⁹ 참고, “중세인들은 몸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쓰면 냉성체질에서 열성체질로 전환이 가능하며, 더 완벽한 성(性)인 남성으로의 체질변환도 가능하다고 믿었다.”(차용구, 2011: 377).

그리스·로마 동성애는 남성다움의 과시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알베르토 안겔라(Alberto Angela)와 같은 연구자들은 동성애를 ‘지배’ 즉, 남성다움의 과시와 복종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⁷⁰

왜 로마 사내는 뚜렷한 이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자가 되어야 했을까? 왜냐하면 지배에 대한 남성의 생각은 여성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모든 것을 지배해야 했다. 로마 남성은 승리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국의 백성에게는 무기와 법을 통해서, 다른 로마인들에게는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재산과 신분은 대개 협력관계이다)을 통해서, 하층민들에게는 성생활을 통해서 말이다. 요컨대 그의 남성다움은 그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타인을 복종하게 하는 도구인 것이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모든 사람들, 즉 남자, 여자, 아이들을 의미한다. ... 에바 칸타렐라(E. Cantarella) 교수의 말처럼, 로마 시대의 남자는 성적으로 절대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패배한 적국의 병사들과 남색(男色) 행위를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패잔병들뿐만 아니었다. 집 안의 노예들과 예전 노예들, 즉 해방노예와도 남색 행위를 하는 관습이 있었다. 해방노예들은 해방되었어도 이전 주인들과 주종관계를 유지했다(Angela, 2014: 66).

로마 상류층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성기 삽입을 쾌락 및 권력과 직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성행위 상대는 어느 성별이든 가능했다.(Beard, 2016: 416)

(4) 털?!

당시 수염(털, 體毛)에 대한 이해도 동성애를 이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수염[넓게는 體毛]이라는 것이 당시에 세대 간의 구분이라든지, 동성애 생활의 시기의 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분기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⁷¹ 그래서 소년에게 털[수염, 鬚髯]이

70 “다른 남성을 공격하거나 강간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을 강간하는 남성들처럼 남성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R. McMullen, 1990] 한 강간자가 ‘나는 받기도 하지 않았다. 섹스에 관심이 없다. 그를 괴롭히면서 내가 세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재미있다. 나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것은 내가 신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였다.’(I didn’t have an erection. I wasn’t interested in sex. I felt powerful, and hurting him excited me. Making him suck me was more to degrade him than for my physical satisfaction)고 표현한 것을 보면, 공격자의 심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A. Groth and A. Burgess, 1980: 806-810]”(윤가현, 1999: 234 재인용). McMullen, R. (1990). *Male Rape: Breaking the silence on the last taboo*. London: Gay Men’s Press.; Groth, A. and A. Burgess (1980). “Male rape: Offenders and victim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806-810. 참조.; 오토 기퍼(Otto Kiefer)는 네로 황제가 그의 의형제인 브리타니쿠스와 관련된 다음 사건을 기록하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네로는 권력을 잡은 직후에 그의 의형제인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다. 이 불행한 소년은 불과 14살이었으나, 네로에 의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낙인 찍혀 살해되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서 그 동생은 잘생기고 훌륭하게 성장한 소년이었다고 나타나고 있으며, 타키투스(Annals, xiii, 17)는 네로가 그를 독살하기 전에 그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동생을 변변치 못한 평범한 시민의 관점이나 당시의 도덕적인 관점에서든 아무런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노예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모든 자료는 네로가 자유롭게 태어난 평범한 소년들과 부도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Kiefer, 2004b: 292).

71 다음을 참조하라. “고대 그리스에도 간통한 남성을 처벌하는 의례가 있었다. 그 남자는 합법적인 아내로

나면 관계를 그쳐야만 했다. 그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아테네의 성도덕 관념은 첫 면도를 하기 전까지만 나이 든 남자와 소년 사이의 성관계를 용인했다(심지어 사회적으로 조장하기도 했다) 이때를 넘긴 동성애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난받았다. 수염은 세대 간의 구분인 동시에 성생활의 결정적인 분기점 역할을 한 것이다. 단지 피동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던 소년이 행동하는 주체로 격상하게 되는 셈이다”(Mayr and Mayr, 2004: 27-28).

개인적으로 당시에 “털=남성화된 몸=우월함=지배, 털 없음=여성화된 몸=열등=피지배”의 사고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염(털)이 성별을 나누는 잣대로 작용되었다는 것이다(적당한 이해인지 몰라도 수염과 상투가 조선시대 때 성인 남성을 상징했던 것처럼). 이는 오비디우스(Ovid, BC. 43-AD. 17?)가 『사랑의 기교』의 I권에서 세련된 남자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하면서 다리나 가슴의 털을 면도하는 남자들은 동양의 내시와 똑같다며 “계집애 같은 놈”(Effeminati)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던 것이나(Mayr and Mayr, 2004: 66 재인용), 오늘날에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면도한 남자는 곧 여자로 해석되어 전혀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Mayr and Mayr, 2004: 45)과, 러시아의 전통(15세기 러시아)에 의하면 수염이 없으면 ‘여성화되고 만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Mayr and Mayr, 2004: 39)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5) 그들의 신(神)?

신관이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신상이 세계상을 변화시킨다(정일권, 2015: 136).

마지막으로 그리스·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신에 대한 이해[神論]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신은 온갖 형태의 성적 행위를 다 한다. 동성애를 위해서 유괴(“가니메테스 유괴”⁷² 참고로 힌두교의 경우 끄리슈나의 아들 삼바[Samba]는 동성애자로, 거기에서 나온 이름인 삼바리[sambali]는 ‘거세된 남자’의 동의어다.⁷³)까지 한다. “인도에서는 크리슈나 신이 총애하는 라다

부터 합법적인 아이를 출생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향락을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사용했다. 즉 ‘태고의 성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의 잘못을 처벌하고 남성성을 거세하는 의례를 벌였다. 그에게 양털을 덮어씌우고 생식기의 털을 깎거나, 혹은 항문에 무의 일종인 래디쉬를 박아 넣기도 했다. 이런 의례들은 남성성의 제거와 여성으로의 변형을 상징했다.”(윤선자, 2014: 120-121, 강조는 본 연구자). Pantel, P. Schmitt (1981). “l’ane, l’adultere et la cite”. Jacques Le Goff, Jean-Claude Schmitt eds. *Charivari*. Walter de Gruyter. 119-120 참조.

⁷² 이케가미 히데히로(Ikegami Hidehiro, 池上英洋)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스케치 작품 <가니메테스의 납치>[1530년대. 케임브리지(매사추세츠) 포그 미술관]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참고하기 바란다. “미켈란젤로 특유의 육체미를 자랑하는 가니메테스는 자신보다 훨씬 큰 독수리에게 물려 납치당하고 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가니메테스의 두 다리를 꽉 붙잡고 있다. 이 강력한 힘 때문에 다리 사이가 벌어진 미소년은 황홀에 찬 표정으로 오염하게 몸을 비틀어 독수리에게 시신을 던진다. 크로스 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면적인 음영 처리만으로 형태를 나타내는 표현법 덕분에 이 순간이 한층 더 몽상적으로 다가온다. 성적 흥분으로 이어지는 이미지를 감추려고 하지 않는 이 태생에서 거장의 동성애 경향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Ikegami, 2016: 264-265).

여신을 숭배하는 남성들은 여자처럼 옷을 입고, 월경을 비롯하여 여성의 행동과 동작 및 습관을 흉내낸다. 과거에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을 거세했고, 교접할 때에는 여성 역할을 맡아서 남성 성기가 자기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신에 대한 헌신 행위로 받아들였다.”(Bullough and Bullough, 1999: 54)고 한다. 플라톤(Platon)은 『노모이』(Nomoi, 636c-d)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따라서 크레타 사람들이 가니메데스의 전설을 고안한 것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법률이 제우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우스를 모욕하는 이런 전설까지 덧붙였을 것이다. **자기들도 당연히 그 신의 모범을 따라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말이다.**”(Kudla, 2005: 436, 153번 각주, 강조는 본 연구자). 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신을 믿는 이들이 신의 이러한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신이 허용하는 것을 인간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동성애는 신이 하는 것인데, 그 신을 믿는 이들도 그 신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신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신의 자녀가 아닌가? 그들의 신관은 바로 행동을 규정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들을 인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기독교 철학자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는, “제우스가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겁탈한 이야기가 엉뚱하게도 어린 소년을 유혹하는 자들을 매력적인 인물로 부각시키고, 장사꾼들로 하여금 ‘온갖 방탕한 쾌락에 탐닉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부도덕이 판치는 난장판과 퇴폐업소들을 열도록 부추겼다’고 지적한다.”(Athenagoras, Legatio pro Christianis 34.; Pagels, 2009: 100 재인용).

그렇다면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동성애적 욕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인 푸코: 게이 성인열전』(Saint Foucault: Towards a Gay Hagiography)의 저자인 데이비드 헬퍼린이 지적했듯이 푸코는 동성애적 욕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동성애의 타고난 성향과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할 말이 없다. ‘노 코멘트’”(Halperin, 1995: 4; Spargo, 2003: 20 재인용).

자신이 동성애자이면서 또한 그(동성애)에 대해 전문가였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도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노 코멘트”)했다고 한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동성애적 끌림도, 그렇다고 단순한 쾌락의 추구만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비록 당시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스·로마인들이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의

73 “몇몇 힌두 신화에서 남성 신은 일부러 또 다른 남성 신과 성 관계를 맺기 위해 여성의 모습으로 변신한다.”(Nanda, 1998: 77).; 그런가 하면 동성애를 무서운 죄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비천한 자궁에서 성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남자들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남자로 다시 태어난다.”(Meyer, 1995: 318). “남성간의 동성애(호모)는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급을 상실케 했다. 여성이 동성애(레즈비언)를 저지르면 체적으로 열 대 맞은 후 많은 돈을 벌금으로 내야만 했다. 만일 결혼한 여성이 그 같은 죄를 저지르면 머리를 깎인 채 두 손가락을 잘리는 형벌을 받았다.”(Meyer, 1995, 318, 7장 11번 각주). 이외에도 “마하바라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때가 되면 선생은 제자의 애인이 된다’. 이것은 아마도 제자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말세가 되면 남자가 여자의 옷을 걸치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은 채 서로 어울린다. 이것은 일종의 복장 도착이나 동성애를 상징한다.”(Meyer, 1995: 319, 7장 12번 각주).

과학과 상식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말이다.

2) 그리스·로마 동성애와 관련해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향한 질문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동성애의 근거로 내세우는 그리스·로마시대의 동성애와 오늘날의 동성애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비슷한지 살펴보자. 참고로 조승래(2009, 40-65)의 논문, “슬픈 ‘몰리’/즐거운 ‘토미’: 근대 초 영국의 남녀 동성애자들”을 참조해 보면 상류층의 난봉꾼인 랭커스(rankers), 소수의 여성화된 ‘비역 창녀’인 몰리(molly), 그리고 폼(fop)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로마의 동성애에서 오늘날 동성애로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약간의 단서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논문도 참고해 보았으면 한다.

(1) 항문성교는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의 경우 항문성교가 오늘날 동성애처럼 일반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항문성교를 인정하고는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한 마디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항문성교를 부정하는 이들 중에는 ‘대퇴부 삽입성교’는 인정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앞의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은 “구강성교와 항문성교와 같은 삽입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접촉에서의 성적 규범이었다.”라고 기술한다(Sennett, 1999: 48). 동성애자이며 작가인 토미니크 페르낭테즈(Dominique Fernandez)는 “성관계를 통한 쾌락을 취하는 일은 금지되었던 듯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ernandez, 2004: 165). 사어던 골드힐(Simon Goldhill)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현대의 관점자들이 가장 놀랄 만한 일은, 학자들이 즐겨 ‘가랑이 성교’라 부르고 그리스인들이 ‘디오메리제인’(diomerizein) 즉 말 그대로 ‘허벅다리 사이로 하기’라고 일컫는 것이 완전히 정상적인 ‘흠 없는 행위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남성의 남근을 소년의 허벅다리 사이로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년에게 삽입할 일은 없는 것이다. 많은 법률 및 철학 문헌들의 아주 도덕적인 목소리로, 자유시민 소년에 대한 삽입 행위는 곱탈이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다.**”(Goldhill, 2006: 75, 강조는 본 연구자).⁷⁴

메리 E. 위스너-헝크스(Merry E. Wiesner-Hanks)는 당시 행해진 성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물론 침투 행위가 자유 남성끼리의 성관계에까지 연관된 것인지, 아니

⁷⁴ 로베르 플라실리에르(Robert Flaceliere)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국가가 이런 종류의 관계를 장려했을까? 육체적인 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절대 아니었다. 남색 관계가 상당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스파르타와 크레타에서도 에페보스와의 육체적인 관계, 특히 강제로 아이의 순결을 더럽히려는 시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아테네의 경우 아이스키네스의 『티마르코스에 반대하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매춘, 매춘 알선, 어린이 강간에 대한 여론이 법 못지않게 엄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색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주 순수한 우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며 플라톤은 남색 관계가 아름다움과 선을 향한 영혼이 고양되도록 만들어 주는 필요조건이며 진정으로 수준 높은 모든 지식을 이끄는 원리라고 규정했다.”(Flaceliere, 2004: 187-188).

면 성관계는 일반적으로 가랑이, 즉 허벅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Wiesner-Hanks, 2006: 284).⁷⁵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일반적으로 행해진 것은 허벅지 성교였고, 항문성교는 남성 대 여성,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계급에 속한 사내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다고 지적한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와 정치가 거의 대부분이 동성애를 즐겼는데, 이는 나이 많은 남자가 보다 어린 사내나 소년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형태였다. 이들이 선호한 성행위 방식은 연장자가 자기 페니스를 손아랫사람의 양 허벅지 사이에 끼우는 것이었다(항문성교는 남성 대 여성, 불평등한 사회 계급에 속한 사내들의 사이에서만 행해졌다).”(Harris, 1996: 142, 강조는 본 연구자).

오늘날의 동성애는 동성애의 정체성을 항문성교의 유무에 부여할 정도로 ‘동성애 정체성=항문성교’라는 환원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기 오갱겜(Guy Hocquenghem, 또는 기 호켄겜)도 자신의 책 『동성애 욕망』(Le desir homosexuel)에서 항문 오르가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문(Michael Moon)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70년대의 여성주의자들이 여성에서 자궁 쾌락보다 클리토리스 쾌락이 우세하다고 전략적으로 주장한 것과 약간 동일한 방식으로, 오갱겜은 남근 오르가즘과는 다르고 구별되는 항문 오르가즘이 있다고 주장한다. 들뢰즈와 가타리를 따라서 그는 항문의 사유화에 그리고 항문을 비밀스럽고 수치스럽고 비난할 만한 것의 영역으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해서 쓰고 있다.”(Moon, in Hocquenghem, 2013: 31, Michael Moon, “영어판(1993년) 새로운 입문”, 17-34, 강조는 본 연구자).

다음은 과거에 동성애 경험을 추구했던 김정현의 고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동성애가 항문성교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 사이에는 “항문성교를 하지 않는 동성애자=장애인”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환원주의적 도식이 성립할 정도라고 한다. “동성애자들은 항문 성교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극소수의 동성애자들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세계에서 항문성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합니다.**”(김정현, in 백상현, 2015: 207, 김정현, “부록1: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동성애자의 양심고백 I”. 196-214 참조, 강조는 본 연구자).⁷⁶

⁷⁵ 후베르투스 쿠들라(Hubertus Kudla)는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사이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요컨대 알키비아데스가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와의 관계에서 중심점이자 정점을 이루는 부분은 자신이 소크라테스를 유혹하려 했다는 것을 완전히 터놓고 언급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할 바꾸기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상의 사랑하는 남자와 연하의 사랑받는 남자 사이에 흔히 있던 일이었다. 그 당시 상당히 압도적으로 행해지던 허벅지 성교에서는(이는 무수히 많은 화병 그림들에게서 묘사되고 있다) 아레스테스는 성적인 쾌락을 체험했지만, 에루메노스는 그에 반해 대부분 그에 동참하지 않고 맨 정신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랑의 도취상태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도 많다. ‘... 그리하여 아마도 한 번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영혼이 감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한데 모여 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이다.’”(플라톤, 『파이드로』 256c; Kudla, 2005: 450-451, 강조는 본 연구자).

참고로 “오스카 와일드의 비극 그리고 동성애의 복권”을 쓴 모리스 리베(1996: 341-372)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재판에서 와일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신들의 관계는 항문성교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와일드는 친구들에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네’라고 말했고, 항문성교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 이런 와일드의 견해는 동성애를 정통적인 성적 쾌락의 범주에 넣어서 생각하는 사람에게나, 반대로 동성애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스운 생각으로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 사법은 이것의 구별 방법을 체득하고 있었다. 즉 사법의 눈으로 볼 때 문자 그대로의 항문삽입에 대한 형벌(중죄)과 ‘음란한 행위’에 대한 형벌(경범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리베, 1996: 346).

(2) 동성애의 성적 접촉의 대상은 다수가 아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 관계에서의 성적 상대의 수는 얼마나 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오늘날 일반적인 동성애자들처럼 그 상대가 시시때때로 바뀌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인 작가 도미니크 페르랑데즈(Dominique Fernandez)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끝으로, 에로멘드는 한 사람의 에라스트만 가져야 했다. 여럿과 동침하다가는 남창의 범주로 전락했다(Fernandez, 2004: 165, 166, 강조는 본 연구자).

일반적으로 일대일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어떤가? 물론 오늘날 동성애자 중에는 “관계의 질” 즉 동성애에 있어서의 헌신된 동성애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헌신된 관계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 성공회의 전(前)감독이었던 존 셸비 스펡(John Shelby Spong)이다. 스펡 감독은 동성애자들에게 헌신적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성행위를 하는 관계는 독점적이어야 합니다. ... 성적 파트너가 여러 명인 것은 상처를 주는 일이고 헌신과 정직과 진실한 돌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Spong, 1988: 216; Rudy, 2012: 134 재인용).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오늘날의 동성애 관계에서의 배타적 관계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⁷⁷ 동성애 관계에서의 정절(情節)은 실생활에 있어서 신화(神話)인 경우가 많으며,

76 다음을 참조하라. “또 한 가지 『케이컬처홀릭』의 특징은 ‘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성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마치 ‘성’에만 집착하는 게이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성’과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이 책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케이컬처홀릭』에서 ‘성’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규정짓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에게 ‘성적 지향’을 제외한다면 이성애자들과 구분될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케이컬처홀릭> 편집위원회, 2011: 12).

이론상의 이상(理想)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들을 통해 남자 동성에 관계는 성적인 문란[性的紊亂]함을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애자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음도 인정해야만 한다).

남성 동성애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섹스 유형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의 **찰나적인 성관계**이다 [Symons, 1979] ...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의 94%가 15명 이상의 섹스 상대를 경험했던 데 비하여 레즈비언들은 단 15%만이 그와 같은 정도의 섹스 상대를 경험했다.[Saghir and Robbins, 1973] ... 198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된 킨제이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의 거의 4분의 1이 500명이 넘는 섹스 상대를 경험했으며, 이들은 보통 화장실이나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보고했다[Ruse, 1988]⁷⁸(Buss, 2007: 175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⁷⁹

에이즈와 동성애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 항문 성관계와 **난잡한 관계** 때문이다. 1978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15%는 100-249명의, 17%는 250-499명의, 15%는 500-999명의, 28%

77 다음을 참조하라. “게이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첫날 성관계를 한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의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난 첫날 성관계를 가집니다. ‘식성발견 → 성욕증대 → 성관계 → 애정관계 형성’ 이것이 이들의 사랑 방식입니다.”[김정현,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자에 대한 비밀-동성애자의 양심고백’”.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 국민연합 등, (2011). 4.] 이런 즉흥적인 성행위 패턴은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제작한 『2011 아이샵 캠페인1-출동! 원조우먼』에도 나온다. 홍보 영상에는 남자 두 명이 옷을 벗은 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행위를 하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http://www.youtube.com/watch?v=4EDcBx3stu>.]

남성 1: “잠깐만, 지금 그냥 하려는 거야?”

남성 2: “그럼, 그냥 하지, 뭐가 필요해?”

남성 1: “그거 써야지, 콘돔”

남성 2: “아 콘돔, 괜찮아, 나 못 믿어?”

남성 1: “우리 처음 만났잖아, 정확히 57분 40초 전에 만났잖아”(백상현, 2015: 50-51).

78 Symons, D. (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aghir, M. and E. Robbins (1973). *Male and Female homosexuality*. Baltimore: William and Wilins; Ruse, M. (1988). *Homosexuality: A philosophical inquiry*. Oxford: Basil Blackwell.

79 다음 참조. “남성 동성애자들은 흔히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고 일컬어진다. 만약 가리지 않는 것이 난교의 핵심이라면, 일부 동성애 남성들은 실제로 난교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이 목욕탕에서 하룻밤 동안 48명의 남성에게 비역[항문성교] 을 당했다고 보고한 남성[Hoffman, 1968 참조]은 아마도 상대를 구별하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한편 이성애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 남성들에게서도 정욕과 사정(射精)이 분명 섹스 파트너의 매력을 가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Symons, 2007: 487).; “1982년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 5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이 성적으로 접촉한 상대자의 수는 평균 1,100명이었으며, 그중 몇 명은 2만 명까지 상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던 120명의 동성애 비교집단의 경우는 평균 550명의 상대자뿐이었다.[Meredith, N. (1984, January). “The Gay Dilemma” *Psychology Today*. 56-62. 참조] 남성 이성애자와 비교하면 동성애 남성은 약 10-100배의 남성과 성적으로 상대한 셈이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부분적인 이유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Wilson, G. (1979). “The Sociology of Sex Differences”. *Bulletin of the Psychological Society*. 32. 350-353.]”(윤가현, 2007: 343).

는 1,000명 이상의 파트너와 관계를 가진다.[Bell and Weinberg, 1978](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163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⁸⁰

박사 학위[이 사회의 지식층에 속하는]의 소유자이면서 동성애자인 제이슨 박과 질문자간의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박제이슨a, 2015: 200-201).

질문자: 박사님은 애인이 있지만 그 관계가 오픈 릴레이션십이죠? ...

제이슨박: 저랑 제 애인은 'same state fidelity'라고, '같은 주 안에 있을 때는 서로에게 충실하자'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주에 사는 게 아니라서요. 떨어져 있을 때는 하고 싶은 걸해라. 그런데 거짓말은 하지 말고 병도 옮겨오지 마라, 그 부분에 있어선 조심해라 ...

우리나라의 동성애의 좌장격![대부격?]인 홍석천은 스스로 자신의 성적 상대는 몇 명이라고 말했는지 아는가? 지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라? 많다. 매우 많다. 억 수로 많다. 입이 벌어진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

(3) 동성애 관계는 지속적이지 않았다

동성애적 삶이 지속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성인이 되면) 그리스에서는 이성애적인 삶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엘리자베트 루디네스코(Elisabeth Roudinesco)와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성애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절 거부하면 도시국가와 가족제도의 규칙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겼다. 당시의 도착자는 남색자가 아니라 결합과 혈연의 법칙을 거부할 작정으로 자신의 남색 기질을 활용하는 사람이었다.”(Roudinesco, 2008: 65).

“... 불원간 그 청년은 성장하여 연장자의 연인-제자보다는 친구가 되었으며, 그 자신도 연소자를 찾아 나섰다. 섹스에서 연장자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연소자는 수동적인 파트너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남자는 멀지 않아 여자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 아버지가 되기로 되어 있다.”(Richards. 1999: 199-200).

이 점도 오늘날의 동성애자들과는 차이가 많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날의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이성애와 결혼을 하고 살다가, 나이가 들어 커밍아웃(coming out)을 한다거나 타인들에 의해서 아웃팅(outing) 당해서 동성애자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이성애와의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동성애자임을 숨기고 시간을 내서 비밀리에 동성애를 즐기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성애자로 살다가 체면 때문에 특히 고위 연봉[社會的地位]과 고학력자와 관련되는 자들의 경우 이성애(결혼생활)와 동성애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

⁸⁰ Bell A. P. and M. S. Weinberg (1978). *Homosexualities: A study of diversity among men and wom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다. 임근준은 마지막 형태를 “디나이얼(denial) 게이”로 명명하고 있는 것 같다.(이다혜·임근준, 2015: 61)⁸¹

(4)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의심 없이 소아성애⁸²다.

그리스·로마의 동성애는 현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소아성애에 매우 가깝다는 것이다. 성인 남성들 간의 동성애 행위가 아니었다. 알베르토 안젤라(Alberto Angela)는 자신의 책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일상생활, 비밀 그리고 매력』(Una Giornata Nell'antica roma: Vita quotidiana, segreti e curiosita)에서 로마 동성애에서 저자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로마 동성애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어린 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대의 소아성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아니다. 지켜야 할 단 한 가지 규칙은 늘 그렇듯이 상대가 다른 사회계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수동적인 역할의 금지는 잘 알려져 있고 당연히 나이 차이도 있어야 한다(Angela, 2012: 379-380. 강조는 본 연구자).

다른 자신의 책에서도 알베르토 안젤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스에서 남성의 동성애는 본래 ‘교육’의 목적이었다. 소년에게는 성인 남자 한 명이 ‘스승’이 되었고, 그들의 동성애는 남성다움을 향한 일보 전진으로, 노련한 전사가 어린 전사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가르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소년의 몸에 털이 자라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관계’는 끝나야 했다. 이후에도 동성애를 보이면, 그들의 관계는 죄가 되어 비난을 받았다**(Angela, 2014: 317.; 강조는 본 연구자).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어떤가? 바텀 알바⁸³(용돈이나 다른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라는 말이

⁸¹ 임근준의 말이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법조와 의료 분야에 있는 게이는 정말 결혼을 많이 해요. 대부분 버티고 버티다가 30대 후반에 결혼을 합니다. 후배들의 얘기를 어찌다가 들어보면, 아무리 피곤해도 비아그라를 먹고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옆에 있는 게이들이 한마디씩 거들죠, ‘이성애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안해!’”(이다혜·임근준, 2015: 61).

참고로 경제학자 “케인스는 42세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8살 연하의 미모의 러시아 발레리나 리디아 로포코바(Lydia Lopokova)와 결혼한 뒤 동성애 경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케인스를 아꼈던 마셀 부인은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케인스가 평생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일이 바로 결혼이라며 칭찬했다고 한다.”(이정우, 2016: 24-25).

⁸² 소아성애에 대해서는 Benecke, Mark and Lydia Benecke (2011). *Aus der Dunkelkammer des Bösen*. Verlagsgruppe Lübbe. 김희상 역 (2016). 『신은 나를 이해한다고 했다』. 서울: 알마. “4장 소아성애.” 209-228. 참조.

⁸³ 티마르코스라는 남자와 관련된 재판에 대한 K J. 도버(K. J. Dover)의 언급을 참조하라. “도버(K. J. Dover)는 티마르코스라는 남자와 관련된 재판을 언급한다. 티마르코스의 정적들이 소년 시절 매춘을 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고발했다. 설사 티마르코스에 대한 고발이 소문에 의거한 것이었다 해도-그는 직업적인 매춘부라기보다는 ‘남자에게 기대어 사는 <헤폰> 청년’이었다-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민의 모든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불운한 티마르코스는 합법적인 성 매매와 불법적인 성 매매 사이의 보이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것처럼 소아성애자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아니면 나이 적은 이들과 쉽게 SNS 등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거 그리스·로마의 동성애가 소아성애였기 때문에 소아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오늘날 동성애자들도 공조(共助)해야 하는 것일까? 미국에서는 일부 소아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도 한다. 오늘날 소아성애는 실정법으로 처벌받은 성적 범죄(性的犯罪)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오늘날 實定法에 의하면 小兒性愛는 sin임과 동시에 crime에 해당된다. 同性愛는 sin이지만 crime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러한 사실을 매우 중요하다).

(5) 동성애의 경우 성행위 자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했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율이었다

당시 동성애의 경우 성행위시의 자세(同性行爲時姿勢, 體位)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동성애 하고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로마시대의 동성애에서 여자의 역할(bottom 役, 수동적 역할)⁸⁴을 하는 사람은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⁸⁵ 다시 말해서 지

않는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Roberts, 2004: 67).

⁸⁴ “키나에두스(cinaedus, 수동적인 남자)는 사회적으로 매우 멸시받는 인물이었다. 창녀나 배우 혹은 검투사들과 마찬가지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거의 누리지 못했다.”(Angela, 2014: 237); “로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행위의 주도성이었다. 결국 수동적으로 삽입을 당하는 사람은 여자, 노예, 청년 그리고 사내아이였다. 한편 남자이면서 삽입을 당하는 사람은 키나에두스라고 불렀는데, 소년 무희 정도의 취급을 받았다. 키나에두스는 남에게 쾌감을 주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변태적 인간으로 여겼다. 로마의 문학작품들이나 낙서를 보면 키나에두스를 혹평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그득한데 당시 정상적인 로마 남자들이 키나에두스에게서 받는 느낌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현대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Laurence, 2011: 195).

그리스와 로마는 노예제에 기반을 뒀고 여성을 극도로 억압했다. 우리가 당시 여성 사이의 성애 관계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는 이유다. 고대 그리스 도시 아테네에서는 10대 소년과 성인 남성의 성관계가 용인됐지만, 오로지 그 사회의 기본적 성 역할과 위치에 도전하지 않을 때만 허용됐다. 예를 들면 ‘능동적’ 역할의 남성과 ‘수동적’ 역할의 소년 사이에 나이 차가 적절히 나야 했고 역할이 조금이라도 뒤바뀌면 문란하다고 여겼다. 로마제국에서는 노예를 ‘자유민’의 소유물로 여겨 노예를 강간하는 것은 용인했지만 자유민이 수동적 역할로 노예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한 법률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성적 봉사는 자유민으로 태어난 사람에게서는 범죄지만, 노예에게는 당연한 일이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자유민에게는 의무다”(Carlin, 1989: 73; Dee, 2014: 26 재인용). Carlin, Norah (1989 Spring). “The Roots of Gay Oppression” *International Socialism*. 42. 참조.

⁸⁵ 제프리 리처즈(Jeffrey Richard)의 지적이다.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으로 규정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역할 및 특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굴라와 네로 같은 황제들이 여자 옷을 입고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 역할을 한 것은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으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리스 식의 이상적인 사제지간이었던 젊은 안티누스와 정사를 즐기고 그가 죽은 후에는 이를 슬퍼하는 황제가 그를 기리기 위해 여러 도시에 그의 이름을 붙인 것은 전혀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다. (신분과 속물근성을 이유로 삼아) 명문가 출신 청년의 매춘에 대해, (지배적인 남성역할을 여성이 한다는 이유로) 여성간의 동성애에 대해, (남자가 전적으로 수동적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남성 성기에 대한 여성의 구강성교에 대해, (격식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난잡한 성교에 대해, (사내다움을 부정한다는

위(地位)가 하찮은 존재이었기 때문에 바로 동성애에서 수동적 역할(受動的役割)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남자가 수동적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신분[存在]임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엄격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사회적 차원의 성적 금기(性的禁忌, taboo) 사항이 존재했었다고 한다.

로마인들의 성적인 타부는 본질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였다.

첫째, 혼외정사를 원하는 남성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과 관계를 해야 했다.(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생긴 아이가 훗날 재산의 일부를 요구하려 올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동성애적 관계에서 로마 시대의 남자는 항상 능동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코 수동적인 자세는 취하지 않았다.

셋째, 반대로 오를 형식의 동성애 관계에서는 수동적이어야 했다. 즉 쾌락을 얻어야 했다

넷째, 남성은 여성에게는 절대 오를 섹스를 하지 않았다. 즉 쾌락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체위에서나 쾌락을 주는 데에서나 그것은 종속적이었기 때문이다.(Angela, 2014: 68-69).

다음은 사이먼 메이(Simon May)가 자신의 책, 『사랑의 탄생: 혼란과 매혹의 역사』(Love: A History)에서 그리스 동성애에서의 성적 관습[同性愛關係規律]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그리스의 성적 관습에 따르면, 아랫사람은 연장자인 남성의 접근을 받아들이기 전에 조심스러운 거부의 기간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섹스를 즐기지 않아야 했다. 오히려 도저히 불가능할 듯싶은 상황

이유로) 계집애 같은 남자에 대해 적대적이었다.”(Richards, 1999: 200, 강조는 본 연구자); 네로의 경우 “가장 악명 높은 성적 방종은 동성 애인들인 피타고라스 그리고 미소년 스포루스(네로는 스포루스를 거세 시켰다)와 ‘결혼’한 것이었다. 스포루스와의 사이에서는 남편 역을, 피타고라스한테는 아내 역을 했다”고 한다.(Scarre, 2004: 62; “네로”. 58-66 참조); “신부 옷을 차려입은 네로가 자유민이 된 노예와 결혼식을 치렀다. 격식을 제대로 다 갖춘 결혼식이었다. 신부 지참금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고, 초야용 침대도 준비되었고,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행진도 했다.”(Laurence, 2010: 48); “잔인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폭군이었던 네로는 후궁에게서 자신의 수동적인 욕구를 충족시켰다.”(Paul Veyne, in Aries et Duby, eds. 2003: 308).

“로마의 성행위를 연구하는 존 클라크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오를 섹스를 한 원로원 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다수를 위한 활동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을 더럽혔다는 배신행위로 고소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를 섹스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입장의 사람보다 더 경멸받는다.”(Angela 2012: 373-374)

다음은 로버트 냅(Robert Knapp)의 기술이다. “사회적 지위가 대등한 사람들, 가령 일반 사병들끼리 동성애 행위를 자제했던 이유는 문화적 지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성관계에서 수동적인 파트너, 다시 말해 ‘받아들이는’ 역할을 맡은 파트너는 여성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군대 문화에서 여성적이라는 낙인은 여간 모욕적인 게 아니었다. 따라서 군인이 동료 병사와의 성관계를 주저한 이유는 그것이 남자다움이라는 중요한 문화적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일종의 죄책감 때문이었다. 아마도 동료 병사와의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풍조는 공화정 중기와 말기의 군대에도 있었을 것이다.”(Knapp, 2013: 329).

“나는[로베르 플라실리에르(Robert Flaceliere)] 그리스의 동성애가 군대에서 시작되었다는 마루(H. I. Marrou)의 주장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동성애는 처음에 ‘군인들 간의 동지애’ 형태였다. 이런 형태의 동성애는 적어도 헬레니즘 시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아테네보다는 옛 것을 고집하는 도리아 국가에서 이런 형태가 더욱 잘 지켜졌다.”(Flaceliere, 2004: 185 재인용). Marrou, H. I. (1948). *Histoire de l'Education dans l'Antiquite*. du Seuil. 참조.

에서조차 계속 성기를 축 늘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모든 성적 감각을 잃거나, 혹은 그럴 수 없다면 억눌러야 했다.⁸⁶ 연장자는 신체의 어떤 구멍에도 삽입하지 않는 한 젊은이의 삶에 성기를 비벼도 괜찮았고, 그러는 동안 아랫사람은 매력적인 웃음을 지으며 수줍게 시선을 돌려야 했다(남자들 사이의 완전한 성교는 그리스 문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⁸⁷(May, 2016: 87).

사이먼 골드힐(Simon Goldhill)도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다른 남성의 만족을 위해 자기 몸을 허락하는 여성 같은 성인 남성이었다. 그런 남성을 ‘키나이도스’(cinaidos)라고 한다. 스스로를 키나이도스라고 하는 남성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은 심한 모욕으로서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현대의 독자는 그리스 정치가들이 ‘비역질을 당했다’고 키킬대며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웃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누군가를 키나이도스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적대적인 행위였다.”(Goldhill, 2006: 68).

그러면 오늘날의 동성애는 어떤가? 동성애 자세가 규정되어 있는가?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를 예로 들어 오늘날 친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혹시나 동성애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여성과 같이 지위가 낮은(신분이 비천한)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 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을 비천한 자로 여겼던 생각들이 동성관계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남자들 간에 삽입을 하는 남성적 역할과 삽입을 받는 여성적 역할에 의해 구분된다. 삽입을 받는 여성적 역할을 하는 남자는 ‘진짜 남자가 아니’라고 간주되고 그렇게 낙인찍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진짜 남자’로 간주되는, 능동적이거나 삽입하는 남자에게는 이러한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 ‘삽입’이 젠더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다.(Baird, 2007: 34; 윤가현, 1999: 66 참조).⁸⁸

⁸⁶ 케네스 도버(Kenneth Dover)는 “수동적인 젊은이의 성기가 ‘심지어 건강한 청년의 성기라면 누구나 싫든 좋든 반응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조차 축 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데에 놀라움을 표현한다.”(Dover, 1978: Nussbaum, 1986: 188 재인용). Dover, Kenneth (1978). *Greek Homosexual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Nussbaum, Martha (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⁸⁷ 플라톤의 후기 작품 두 편, Republic(국가)와 Laws(법)에서 동성애를 자연에 어긋나는 것으로 혹평하면서 그것에 맞서 확실한 선을 긋는다. The Republic, trans, Desmond Lee, (London: Penguin, 2003) 403B-C, pp.99-100.; The Laws, trans. Trevor J. Saunders. (Harmondsworth: Penguin, 1975). 636C-E, 그리고 838E, pp.61-62, 336-337을 볼 것 또한 Euthyphro, Apology, Crito, Phaedo, Phaedrus, trans. Harold North Fowl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484-487, 500-501도 볼 것.(May, 2016: 475, 3장 11번 주).

⁸⁸ “[로마 시대에는] 남자의 입장에서 질 삽입을 하는 사람은 푸투토르(fututor), 항문삽입을 하는 사람은 페디카토르(pedicator), 구강 삽입을 하는 사람은 이루마토르(irrumator)라고 불렸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성교를 주도적으로 했다. 반면에 다른 남자에게 삽입을 당하는 남자는 멀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낱말들도 따로 있었다. 다른 남자들로부터 항문 삽입을 받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남자를 키나에두스(cinaedus) 혹은 파씨쿠스(pathicus)라고 불렸다.”(Laurence, 2011: 192).

위의 그리스도·로마 시대의 동성애에 관한 세부적인 제한 사항(制限事項)은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잘 지켜졌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인의 윤리의 핵심이 ‘자제력(自制力)’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이다. 다니엘 액스트(Daniel Akst)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리스인들의 윤리는 메덴 아간(meden agan), 즉 “도를 넘지 말라”라는 구절로 귀결되었다. 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은 자제력과 비슷한 의미인 소프로시네(sophrosyne)를 지녔다는 말을 들었으며,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진실성이 없다고 여겨졌다(Akst, 2013: 123).

참고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로마에서는 여성들 간의 동성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졌다고 한다.^{89,90}

그리스의 성에 대한 관대함은 그리스인들이 여성 간의 동성애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여성 간의 동성애는 부자연스럽고 불쾌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애널 섹스와는 달리 오럴 섹스는 금지되었다.(이는 지중해 문화에서 순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여성간의 동성애가 혐오(嫌惡)시 된 동기는 그리스의 남성중심주의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Posner, 2007: 74-75).

그렇다면 오늘날 남성 동성애자들은 여성 동성애자인 레즈비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로마인들이 당시 레즈비언에게 보였던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더욱 더 충실하기 위해서 레즈비언에 대해서 적대적 관계(敵對的關係)를 지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레즈비언과 강한 정치적 연대가 필요하지 않는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밥그릇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4 그 밖의 ‘유사’ 동성애와 그에 대한 재고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사’동성애로는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에 존재하였던 “두 영혼 사람”(two-spirit people)으로 일컫는 버다치(Berdache, 또는 베르다체), 나바호족의 나들(nadle)⁹¹, 인도의 히즈라(hijra, 남인도의 조가빠[jogappa]와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한

⁸⁹ 참고로, “[17·18세기] 낭만적인 우정은 여성들이 동성애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격상의 특징으로 여겨졌다. 동성애에 대해 사회는 아주 불분명하고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동성애는 상속권을 위협할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게 여겨지지 않았다.”(Utrio, 2000: 354).

⁹⁰ “또한 아무리 열심히 동성애를 변호하는 자라도 여성의 동성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지트[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트]처럼 남성의 동성애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동성애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Kern, 1996: 201).

⁹¹ Hill, W. W. (1935, April). “The Status of the Hermaphrodite and Transvestite in Navajo Culture” *American Anthropologist*. 37. 273-279.; Martin, M. K. and B. Voorhies (1975). *Female of the Spec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89-93.

다⁹²), 아라비아 오만의 오나미족의 사니스(xanith, 사니스를 김경학 교수는 ‘한에쓰’라는 명칭으로 번역해 놓았다. Nanda, 1998 참조), 수단 “아잔드 족의 ‘성역전’(sexual inversion among the Azande), 삼비아(Sambia) 족 남성들 간의 행위, 타이티 섬의 마후(Mahu)(Nanda, 1998: 292-296), 모하브 족의 아리하(Alyha)(Nanda, 1998: 286-292, 참고로 여성 동성애자를 와메[hwame]라고 한다)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1) 그 밖의 유사 동성애 욕망의 근거

세계 도처의 유사(類似) 동성애를 보면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동성애 욕망의 근거와 확연하게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동성애는 쾌락(快樂)과 동성애적 이끌림보다는—물론 이들 유사 동성애 중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다른 제원인(諸原因)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다양한 스펙트럼의 유사 동성애가 발생한 것에는 먼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성의 기준에 맞지 않음[일반적 구분인 여자와 남자가 아닌 제3의 성⁹³이라고도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불리지는, 즉 生殖器不完全性]과 다른 제 요인(宗教·經濟·社會 等)의 결합으로 발생한 경우와 또 다른 경우에는 생식기의 불완전성과는 관계없이 다른 다양한 제 요인들의 결합이 유사 동성애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1) 모호한 성기+다른 제요인

먼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제3의 성으로 일부 학자들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이들에게서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이 결합되면서 발생한 경우다.

⁹² 남인도에는 조가빠(jogappa)라 불리는 히즈라와 유사한 역할이 있다. 조가빠는 여신 엘람마(Yellamma)의 남성 사원 하인이다. 엘람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인도 히즈라는 그 여신이 자신들의 여신인 바후짜라의 자매라고 이야기한다. 니콜라스 브래드포드(Nicholas Bradford)는 조가빠를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로 기술하지 않고 여성이 된 남자나 더욱 자세하게는 여성적인 신성한 남성이 된 보통의 남성으로 기술한다(Bradford, 1983: 311) 조가빠는 여러모로 히즈라와 유사하다. 그들은 여장을 하고 여성 이름을 사용하고 여성스타일의 긴 머리를 한다. 구걸을 병자하여 공공연하게 남자들과 외설적이고 음란한 농담을 주고받고 혼인식과 남아 출생 후와 같은 상서로운 통과의례 시에도 공연을 한다. 성적불구는 한 남성이 엘람마 여신에 ‘사로잡혔음’을 깨닫게 되는 징후이지만, 대체로 조가빠는 생물학적 성 정체성 문제를 자신들이 조가빠 집단에 영입되는 부분적 요건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히즈리와는 달리 조가빠는 거세수술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세된 남성으로 결코 불리지 않는다. 브래드포드가 조가빠는 “언제나 동성애자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들이 남성 매춘부로서 보통의 남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히즈라처럼 조가빠는 자신들의 여신의 힘을 전달하는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공포와 함께 존경을 보인다.(Nanda, 1998: 65, 7번 각주).

⁹³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3의 성”이라는 명칭을 학술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성은 남성과 여성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기 때문이며, 생물학적으로 X와 Y염색체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바호족의 나들(nadle)의 기준은 모호한 생식기에 있다는 점이다. 앤 볼린(Anne Bolin)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나들은 모호한 생식기를 기준으로 그 지위가 결정되는데, 그들은 여자 일을 하고 여자처럼 행동하지만 어느 나바호족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들의 섹스 파트너는 여자나 남자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들이나 나들 행세를 하는 사람을 섹스 파트너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섹스 파트너로 남자, 나들, 나들 행세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남자는 여자, 나들, 나들 행세를 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성 간의 성교로 정의되는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는다.(Bolin, 2001: 52, 강조는 본 연구자)

두 영혼의 사람(two-spirit people)로 불리지는 버다취(Berdache)의 경우 또한 그들이 “남성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는 남성”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분야의 최고의 역사가는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월터 윌리엄스(Walter Williams) 교수이다. 그는 『영혼과 육체: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에서의 성적 다양성』(The Spirit and the Flesh. [Beacon Press, 1986].)이란 책을 저술했는데, 연구 과정에서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위해 역사서를 보는 것과 인터뷰를 병행했다. 윌리엄스에 따르면 버다취는 자웅동체가 아니며 게이도 아니라고 한다. **버다취는 남성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이며, 그들은 남성으로 취급되지도 여성으로 취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요소들이 복합된 다른 성으로 존재했다.**”고 동성애 교사인 케빈 제닝스(Kevin Jennings)는 기록하고 있다(Jennings, 1999: 56)⁹⁴

타히티 섬의 마후(Mahu)의 경우도 생식기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레비[민속지학자 Robert Levy]의 정보제공자 한 명은 마후의 남근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마후는 포경(남근의 음경을 절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소년들의 전통적인 성년식에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Nanda, 1998: 296)고 언급한 부분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전통적]으로 인도의 히즈라(hijrah, Serena Nanda에 의하면 히즈드라 hijdra가 더 힌디어에 가까운 표기라고 한다. Nanda, 1998: 20)의 경우는 생식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거세된 형태의 제3의 젠더라는 점과 더불어 이들은 종교적 제의(祭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Bolin, 2001: 53).⁹⁵ 히즈라들은 바후차라 마타(Bahuchara Mata, 바후차라 마타의 중심사원은 히즈라 문

⁹⁴ “베르다체[버다취]가 ‘혼성된 피조물’로 여겨졌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예컨대 일부 집단에서는 베르다체 자체에 남성과 여성이 합일화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가 혼인식에서 중매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를 여기에 찾고 있다(Williams, 1986: 41) 베르다체는 흔히 평범한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여겨졌다.(Callender & Kochems, 1983: 447)”(Nanda, 1998: 287, 43번 각주)

⁹⁵ 다음도 참조하라. “시베리아의 추크치(Chukchee) 사람 가운데 남성 동성애자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주술사로 변한다. 그는 여자로 꾸며 다른 사람을 위해 병을 치료하는 주술사가 될 뿐만 아니라 줄곧 한 사람에게 ‘시집’ 가서 ‘아내’가 되어 그와 동성연애를 맺는다. 그러나 ‘그’의 ‘남편’도 정상적인 아내에게 장가를 수 있으며 주술사 본인 또한 여성적인 정부(情婦)를 소유하고 그를 대신해서 자식을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주술사는 실제적으로 ‘양성연애자’이다.”(王溢嘉, 2001: 52).

화의 중심지인 구자라뜨[Gujarat]주의 아메다바드 Ahmedabad 근처에 있음) 여신에게 바쳐진 존재로 출산력을 허락하는 힘을 가졌다고 사회적으로 여겨져서, 결혼의식⁹⁶과 남자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일을 행하였다(Wiesner-Hanks, 2006: 295). 세레나 난다(Serena Nanda)는 자신의 책의 “히즈라를 정의내리는 일”이라는 부분에서 전통적인 히즈라 개념과 오늘날의 히즈라 개념 사이에 많은 부조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Nanda, 1998: 29-33 참조). 오늘날 히즈라의 경우 전통적인 히즈라와 비교했을 때 매춘을 통해 돈을 번다든가, 히즈라로서의 의례를 행하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을 제3의 성이 아닌 여성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이들도 있다는 점을 들어서 과거의 히즈라와 오늘날의 히즈라 사이에 많은 부조화(不調和)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세레나 난다는 히즈라의 역할을 개념적으로 매우 전통적으로 규정한다. “금욕주의자로서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로서의 히즈라에 대해서 말이다.(Nanda, 1998: 53). 그러면서 다른 연구자들의 인용을 통해서 과거 히즈라들이 당시 남색에 열중하였던 제나나(zenana, [문자 그대로 여자라는 뜻이라고 함])들과 자신들을 구분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20C 초 히즈라에 대해 설명해 놓은 문헌에는 히즈라들이 남색에 열중하고 있는 제나나(zenana)라 불리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다. ‘제나나 그들은 매춘부이다. 만약 히즈라인 우리가 그들처럼 행동했다면, 고객들이 어떻게 의례에 불렀겠느냐. 제나나들은 매춘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을 박탈당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히즈라는 그렇지 않다’(Ibbetson et al., 1911. 332)”(Nanda, 1998: 53 재인용).

전통적인 히즈라는 한 마디로 동성애와는 거리가 멀었고 종교적 의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히즈라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유래는 그가 성 불구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남성이 아니다 라든가 오픈라허티(Wendy O’Flaherty)가 지적한 것과 같이 거세된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성이 결여되었다는 견해들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성적 불구가 된다는 것은 히즈라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히즈라들은 한 가지 또는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성 불구자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성기가 거세된 이후에야 비로소 히즈라가 되는 남자이다. 거세하는 것은 히즈라들의 다름(dharm, 종교적 의무)이며, 남성 생식기를 외과적으로 거세하여 남성으로서 성욕을 포기하는 일은 히즈라라는 정체성을 사회적으로 규정짓는데 핵심이 된다.”(Nanda, 1998: 61, 강조는 본 연구자). 또한 세레나 난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히즈라는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영어

⁹⁶ 미신 중 하나는 결혼식 날에 행운을 불어오기 위해 히즈라는 자신들의 근처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인도인들이 믿는다. N. Harvey (2008, May 13) "India's transgendered? the Hijras," *New Statesman*; 인도네시아의 비수(bissu)를 참고하라. 비수는 남술라웨시의 부기족 사회에서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는 혼성 젠더를 말한다. 신체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일 수 있으나 치장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를 구현하는 양성 존재로 간주된다. 신과 인간을 중개하며 추수와 결혼식에서 축복을 주는 역할을 한다.(Wiesner-Hanks, 2006: 157, 역주); 다음도 참조하라. 이집트 문화권에서는 신과 동성애적 성교를 가지는 것을 길조로 여기었다. 남성이 신과 향문성교를 했다는 것은 그가 신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Greenberg, 1988: 윤가현, 1999: 65). Greenberg, D. (1988). *The Construction of Homo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참조.

해석이 된 것을 본적이 없다”(Nanda, 1998: 60).

참고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히즈라”(hijras)에게 공식 서류에 특별한 성별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2005년에 인도의 여권 발급정부기관은 ‘히즈라’를 공식 서류에 특별한 성별로 표시하는 것을 허락했고, 2009년에는 파키스탄도 뒤를 따랐다고 한다(Moalem and Laplante, 2015: 263).⁹⁷

(2) 완전한 성기+ 다른 제요인

다음은 성기의 불완전성과 관계없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유사 동성애를 하는 경우들이다.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경우로 들 수 있는 것이 삼비아(Sambia) 족의 남성 공동체 생활이다. 이들의 목적은 진정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비아족 남성들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인생이 무엇인가를 배웠다. 남아들은 아홉 살이 되면 여자들의 보호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미혼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 남성공동체에서도 연령에 따라 어린이들은 선배 남성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성애 파트너로 정액도 받아먹어야 하고, 나중에 자라서는 어린아에게 정액을 먹이는 역할을 잘해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믿었다. 결혼할 때까지 거의 10-15년 동안 살아가는 삼비아족 남성들의 생활은 최소한 20세기 중반에까지 관찰되었다.”고 한다.(윤가현, 2001: 256; 윤가현, 2007: 329 참조).⁹⁸ 삼비아 족의 동성애 관계의 유지도 결혼할 때까지만 이었다. 남아(男兒)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러한 관계는 끝났다는 것이다. 삼비아 족의 유사 동성애는 ‘정액=남성성’이라는 잘못된 성 지식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⁹

⁹⁷ “대부분 남자였다가 음경과 음낭, 고환을 제거하고 여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의 히즈라(Hijrah)의 경우, 그들은 본디 남자로 태어난 경우도 있으나 간성(間性, intersex; 남녀 한 몸)인 경우도 있기에 명확한 생물학적 성을 명명하기 어려운 존재다. 또한 그들은 완전한 여성의 일을 수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회적 성 정체성 또한 모호하다.”(장민지, 2016: 52).

⁹⁸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가 소개하고 있는 뉴기니의 에토로 족의 경우다. “인류학자 레이먼드 켈리의 보고에 따르면, 에토로 족은 정액이 활력을 돌구는 액체이며 남자 개개인이 공급받은 정액의 양은 한정돼 있다고 믿는다. 정액이 없으면 남자는 시들해져서 죽는다는 것이다. ... 오늘날의 에토로 족은 근본적으로 남성이 정액을 공급받는 방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주는 선물의 형태를 통해서만이 정액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에 사용되도록 정액을 제대로 공급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에, 나이 든 에토로 사내는 어린 소년에게 정액을 주는 게 당연시되고 있다. 이 작업은 여성의 출입이 금지된 마을 사내들의 숙소-커다란 별채-에서 함께 잠 자리에 든 연장자와 연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방법은 페니스와 입의 성교(펠라치오)이다”(Harris, 1996: 145-146).

⁹⁹ 폴리네시아 및 멜라네시아 문화권에서 행해지는 동성애는 일종의 성(性)지식의 부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지배하는 지식을 다음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정액이야말로 아이를 임신시키고, 태아의 신체를 발육시키고, 여성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게 만들고, 신체적으로 강인함을 유지시켜 사춘기의 상태에서 성인으로 발달시키는 데 결정적이라고 믿고 있다.”(Herdt, 1984: 윤가현, 1999: 56. “폴리네시아 및 멜라네시아 문화권”, 55-58 참조.); 참조 Herdt, G. (1984). *Ritualized Homosexuality in Melanesi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 E. 에번스-프리차드(E. E. Evans-Pritchard)의 연구¹⁰⁰에서 볼 수 있는, 수단 의 “아잔드족의 성역전”(Sexual Inversion among the Azande)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잔드 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신청년과 소년(12-20세)들의 일시적 결혼형태의 경우 청년들은 독신자 군대의 일원으로 편성이 된 다음에 그곳에서 소년아내를 취하는 관습이다. 이잔드족에게 이러한 관습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E. E. 에번스-프리차드는 아잔드 족의 경우에 부자(富者)들이 많은 처첩(妻妾)을 거느리는 일부다처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자들의 일부다처제의 관습으로 인해 신부감(성행위 상대 여성, 결혼상대의 여성)이 부족한 사태¹⁰¹가 초래되었고, 그 결과 별로 부유하지 못한 청년들은 20대 후반이나 30대까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혼기가 찬 청년들이 결혼 때까지 소년아내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Evans-Pritchard, 1979: 1429; Bolin, 2001: 62-63 재인용).

또 우니 위칸(Unmi Wikan)이 소개하고 있는 오만의 오마니 족의 제3의 젠더 선택인 사니스(Xanith)는 직접적으로는 사니스 자신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다른 여성들의 ‘순결’에 대한 보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사니스는 바뀐 입기를 하지 않지만 여자들처럼 남자웃옷도리에 허리띠를 맨다. 그리고 사니스의 젠더지위는 전문직업과 동성에 매매춘 같은 경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우니 위칸에 따르면, **이 제3의 젠더는 남성에게 경제적 기회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성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한 ‘저렴한 섹스 배출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Wikan, 1977: Bolin, 2001: 59 재인용, Nanda, 1998: 283-286 참조. 강조는 본 연구자).^{102·103}

¹⁰⁰ Evans-Pritchard, E. E. (1979, December). "Sexual Inversion among the Azande". *American Anthropologist*. 72(6). 1429.

¹⁰¹ 성 상대자의 없음과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유사 동성애와 약간의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고대 페르시아의 일부다처제하에서 부인들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레즈비언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했다.(윤가현, 1999: 65).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레소토(Lesotho)라는 작은 나라에서의 레즈비언 관계는 ...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져다주고 또 남편이 노동하러 떠나간 동안 이성애적 관계의 대안이 된다.(윤가현, 1999: 62)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상황적 동성애(situational or deprivation homosexuality)라고 한다.(윤가현, 2007: 338)

¹⁰² Wikan, U. (1977, August). "Man Becomes Woman: transsexualism in Oman as a Key to Gender Roles," *Man*. new series 12(2). 304-319.

¹⁰³ 광차섭은 베르나르디노 다 시에나(Bernardino da Siena, 1380-1444)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모들의 태도가 15세기 초 피렌체의 동성애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베르나르디노에 따르면, 피렌체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안이 흰히 비치는 셔츠에다 몸을 반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짧은 상의를 입히고, 험란한 의상과 다리를 찢어발기는 듯한 팬티스타킹에다 머리를 땡아서’ 밖에 내보내는 풍습이 있는데, 당시 길거리에서 수시로 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예로 봐서 이야말로 소도미타의 표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를 치장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들이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고, 그가 아이에게 애정을 표시하고 돌보아주는 데 대한 부모들이 오히려 묘한 자긍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종종 권세가 높은 후원자를 만나 무언가 이익을 얻게 될 것을 바라는 부모들의 의도도 개입되어 있다. 즉 소도미타에게 자신의 아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이나 관직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베르나르디노가 이런 부모들을 가리켜 자신의 아이들의 몸을 파는 ‘뚜쟁이’(ruffiani)라고까지 폄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광차섭, 1999:

참고로 군인의 경우 주종관계(主從關係)와 충성심(忠誠心)과 관련해서 유사 동성애가 행해지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우지이에 미키토(Ujiie Mikito, 尹家幹人)는 자신의 책, 『무사도와 에로스』(Bushido to Eros)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본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슈도(衆道)라는 무사(武士)들 간에 유행하였던 동성애 관계다. 당시 슈도는 일본의 전국시대 때 무사들 간의 주종 간에 중요한 유대관계의 일부로 ‘무사도의 꽃’으로 찬미되었다고도 한다.

전국시대에서 에도 초기에 걸쳐 남성들의 성애관계는 ‘슈도’(衆道), 또는 ‘의형제의 결연’이라고 불리며 무사들 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일탈된 성관계라는 이상한 취급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무사도의 꽃’으로 찬미되곤 했다(Ujiie, 2016: 33).

그런데 무사들 간의 성애 관계가 쇠퇴해진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무사들의 ‘결혼연령의 변화’가 지목되고 있다. 우지이에 미키토는 “구마자와 반잔이 ‘에도 초까지는 40세가 되어서야 가정을 가진 무사가 많았는데 지금은 (17세기 후반) 20세 전후에 적극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는(『集義外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Ujiie, 2016: 206)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무사도와 에로스』를 한국어로 번역한 신은영은 ‘역자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슈도(衆道), 남색(男色) 등으로 불린 남성 간의 사랑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본질은 충의, 상호우애이며 단순한 성적 취향으로서의 동성애는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배신, 질투도 있었고 남색의 갈등으로 인한 결투, 원수를 갚는 사건이 벌어지곤 했지만 말이다.”(신은영, in Ujiie, 2016: 250. 신은영, “역자후기”. 250-253 참조, 강조는 본 연구자). 이는 과거 그리스 도시국가의 스파르타 인들이 남성 동성관계를 군사적인 면에서 유용하다고 보았던 것과 유사하다. 동성애자로 형성된 군대의 남성들은 자신들의 애인이자 동료를 지키기 위해 더욱 용감하게 싸우곤 했기 때문이다(Wiesner-Hanks, 2006: 53). 비교종교학자인 양태자 박사는 “그들이 부양한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감하게 싸울 수 있었다”(양태자, 2011: 63)고 이에 대해 적고 있다.

유사 동성애는 단순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나 이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다. “유벨날(Juvenal)의 여섯 번째 풍자시(Juvenal’s Sixth Satire)에서는 남자에게 여자 말고 소년들을 가까이하라고 충고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자의 성적 충동에 부응하지 못할 때 여자는 악담을 퍼붓지만 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Juvenal’s Sixth Satire. 6.36-37;

23-24). Bernardino da Siena (1957). *Le prediche volgari. a cura di Ciro Cannorozzi*. 2 vols. Firenze: Tipografia E. Rinaldi 참조.; 참고로 과거 카스트라토 열풍도 부모들의 잘못된 신념이 일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나탈리 앤지어(Natalie Angie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카스트라토 열풍은 17세기와 18세기에 절정에 달했다. 당시 수많은 부모들이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아들을 거세시켰다. 그런 극성스러운 부모들은 언제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취향과 발성법이 바뀌었고, 여성 소프라노가 카스트라토를 대신해 천사의 목소리를 들려주게 되었다.(Angier, 2003: 284).

Wills, 2005: 174 재인용)라고 한다. 호라티우스[시인 Flaccus Quintus Horatius의 『오데스』(Odes, i, 2, 116)]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대의 욕정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바로 범할 수 있는 하녀나 시동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대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참는 쪽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나는 값싸고 손쉬운 사랑이 좋다!”(Kiefer, 2004a: 23 재인용).¹⁰⁴ 동성애가 피임(避妊)이라는 실용적인 이유에서도 행해졌다는 점이다(이성간의 항문성교도 피임의 일환[안전한 섹스]으로 행해졌다고도 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인기였다). “남자들의 동성애를 찬미하는 그리스의 관습도 생식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크레테에서는 동성애가 공식적인 인구 조절 전략으로 지지를 받았다.”고 한다(Aristotle, Politics. 2.1272a.; McLaren, 1998: 33 재인용)¹⁰⁵ 프랑스 태생의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 교수는 불교에서의 동성애에 대한 태도도 매우 실용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불교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용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관용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 듯하다. 즉, 승단의 일상생활적 측면에서 보자면 동성애-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소아성도착증-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남성들만의-그리고 여성 혐오적인-승가 생활 속에서의 이성애가 좀 더 골칫거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Faure, 2014: 159-160).

일본의 다나베 번(田辺藩)의 번주 마키노 도미시케(牧野富成)는 “미소년을 사랑하는 것이 여자에게 음란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낫다”(Ujiiie, 2016: 120)고 하였던 것이나, 야스이 솅켄(安井息軒)의 가르침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실용주의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1894년 간행된 『구모이 다쓰오 전집』(雲井龍雄全集)에 담겨진 스승과 제자 간의 문답이다. 문답의 내용에서 남색에 대한 실용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쓰오의 질문[구모이 다쓰오, 雲井龍雄]: 18-19세 때는 색욕이 발동하여 스스로 자제가 안 되며 종종 면학에 방해가 됩니다.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지요.

솅켄 선생의 답변[야스이 솅켄, 安井息軒]: 색욕은 천성(天性)이므로 이를 방지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색정이 발동할 때 부단히 문무를 쌓아 발동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도 멈출 수 없으면

¹⁰⁴ 다음도 참조하라. “사실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의 남성들은 여성과가 관계 맺는 것을 힘겨워했다. 베릴 로슨[Beryl Rawson]이 보고했듯이, ‘라틴어 문학에서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화두는 아내가 힘겨운 존재이며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내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awson ed., 1986: 11] 비록 신부에게는 처녀성이, 아내에게는 정절이 요구되었지만 남성들은 매우 문란했다. 그레코-로만 도시는 거리에서 일하는 값싼 창녀부터 몸값도 비싸고 집안도 좋고 고급 창부까지, 매춘 여성으로 넘쳐났다.[Pomeroy, 1975] 또한 양성애와 동성애가 흔하여 상당수의 남창(男娼)이 존재했다.[Sandison, 1976: 734-755]”(Stark, 2016: 180). Rawson, Beryl (Ed.). (1986). *The Family in Ancient Rom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omeroy, Sarah B. (1975). *Goddesses, Whores, Wives, Slaves: Women in Classical Antiquity*. New York: Schocken Books.; Sandison, A. T. (1967). “Sexual Behavior in Ancient Societies,” *Diseases in Antiquity*. Don Brothwell and A. T. Sandison. (E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734-755. 참조.

¹⁰⁵ Aristotle, *Politics*. trans. John Warrington (1959). London: Dent. 2.1272a.; Dover, K. J. (1971). *Greek Homosexuality*. London: Duckworth. 참조.

남색으로 푸는 것이 여색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Ujii, 2016: 124-125).¹⁰⁶

‘동과 의례(rite de passage, 通過儀禮)’, 즉 통합 의례의 차원에서 동생애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아놀드 반 겐넵(Arnold van Gennep, 붙어식으로는 완 젠넵. 일본 번역 본에는 완 제네프)은 통합 의례라는 관점에서 동성애를 설명한다. “인지에트 집단에의 입사식에서 한 중년 성원이 옷을 벗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끈끈이를 바른다. 그는 손으로 꼬아 만든 매트릭의 한 쪽 끝을 잡고 반대쪽은 초입자가 잡도록 한다. 중년 성원이 초입자 쪽으로 쓰러질 때까지 서로 당긴다. 그리고 그 일을 한다. 모든 초입자는 차례로 이러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멜라네시아에서는 남색이 나쁜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¹⁰⁷(van Gennep, 2002: 226-227). 그러면서 반 겐넵은 샬로몬 레나크(Salomon Reinach)의 군인 남성들 사이에서 힘의 전이로 보는 관점을 다음과 같이 부정한다. 더 나아가서 고대 유대인들의 성전 매음, 남색의 대상이 있던 케데심(kedeshim)과의 매음도 통합의례로 이해한다. “더군다나 고대 에페부스(ephebus, [시민권을 획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남자들])들 사이의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현재도 알바니아 인(Albania) 사이의 친구 계약에서도 동성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옥(公同屋)’에 거주하는 (남녀가 따로따로 거주한다) 소년이나 소녀들 사이에서도 동성애가 행해지며, 이 경우 서로 처음으로 행하는 성적 교섭은 친교의례(rites of friendship)가 된다. 이러한 행위가 ‘강력한 전사로서의 남성의 힘을 이들 전사에게서 군사 훈련 및 공민 훈련을 받는 에페부스에게 전이하려는 것’이라는 레나크(Reinach)의 설명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신에 봉헌되는, 또는 남색의 대상이 되는 케데심(kedeshim)은 신성한 창녀 케데쇼트(kedeshot)¹⁰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행위 또한 통합 의례인 것이다.”(van Gennep, 2002: 227).¹⁰⁹ 미셸 마

106 일부 레즈비언의 경우 위계(位階)적 이성애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다. “이성애(異性愛)의 문화가 여성 압박의 원인이며 그것이 성적 ‘위계’를 세운 것이다. 동일한 시기에 미국의 몇몇 운동 사조들[급진주의 레즈비언 그룹(les Radicalesbians)과 동성애자 해방운동(Gay Liberation Front Women)]이 주장했던 것처럼 동성애의 선택은 거의 정치적 선택이었으며 여성들이 자신들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레즈비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극단적으로 모니쓰 위티(Monique Wittig)가 썼던 것처럼, ‘레즈비언들은 여성들이 아니다.’ ‘레즈비언들은 결코 여성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레즈비언들이 여성들과 결합하여 함께 살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성’이란 이성애의 경제체계와 사고체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Agacinski, , 2004: 138).

107 남색이 뉴기니에서는 입사 의례로 행해지는 관습인 것 같다. Rev. James Chalmers, “Notes on the Bugilai, British New Guinea,”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XXXIII (1903). 108-110.(van Gennep, 227, 9장 12번 각주).

108 [케데쇼트 kedeshot는 솔로몬 Solomon이 도입한 에슈트레스 Ashtoreth나 아스타르테의 숭배와 관련된 여사제이다. 남자는 케데심 kedeshim이라 부른다](van Gennep, 227, 9장 16번 영역자 주).

109 다음도 참조하라. “동물과의 성교도 특수한 경우에는 통합 의례임을 몇 가지 사실로써 보일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아주 뚜렷한 형태로 이러한 의례가 벌어진다. 안타이모로 족(Antaimoro)의 남자들은 특별히 양육하여 꽃과 화환으로 장식한 어린 암소와 성교를 해야만 여자들과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안타이모로 족의 별명은 ‘소의 구혼자’이며, 이 의례는 아마도 토테미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영국 영토인 뉴기니의 어떤 부족에서는 수간(獸姦)이 입사의식[入社儀式] 중에 행해지는 의례이다.”(van Gennep, 2002: 229).

페솔리(Michel Maffesoli)도 럭비 선수 클럽에서의 통과의례로 행해진 동성애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나는 용감하며 ‘긴장한’ 럭비 선수 클럽의 사적인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진은 좋은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는 중에 새로 가입한 젊은이들이 거쳐야 하는 시험으로 지저분한 행위 혹은 동성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진은 물론 전혀 꾸밈없고, 다양한 이런 유의 상황을 보여 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어쨌든 이 사진은 ‘주연=광란’의 통과의례적인 의례가 현대적으로 변한 모습을 평가할 수 있는 흥미 있는 연구단계를 나타낸다.”(Maffesoli, 2013: 202).

2) 그 밖의 ‘유사’ 동성애와 관련해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향한 질문

일부 유사 동성애는 모호한 생식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나들(nadle)이나 히즈라(hijra), 버다취(Berdache) 등이 그렇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어떤가? 동성애의 원인이 생식기의 모호함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인도의 히즈라처럼 거세를 한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 있는가? 유사 동성애 행위가 실질적으로 성적 관계[挿入]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삽입의 관계를 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삽입의 관계를 혐오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만의 오마니족의 사니스(xanith)는 성교 시에 삽입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Bolin, 2001: 59, 그래서 오마니족에서 “페니스 성교 시 삽입당하는 사람은 여자와 사니스다”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였고, 수단인 아잔드 족의 유사 동성애의 경우 항문삽입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넓적다리 사이에 성기를 넣는 형식을 취하였고 한다.¹¹⁰ 나들(nadle)의 경우도 “동성 간의 성교로 정의되는 동성애는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Bolin, 2001: 52). 타히티 섬의 마후(Mahu)의 경우도 동성애 관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타히티 섬 사회의 보다 전통적인 구역의 일부 연장자들은 비록 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지라도 마후는 동성애 관계를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Nanda, 1998: 294). “블라히(Bligh)의 보고서에는 마후와 성 관계를 가진 남자들이 마후의 허벅지 사이로 그들의 야만적인 즐거움을 만족시켰으나, 그들이 수간(sodomy)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보고서에 따르면 마후가 자신의 파트너 남자와 구강성교를 하고 그 정액이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고 믿어, 그것을 삼켰다고 말해준다[Levy, 1973]”(Nanda, 1998: 294). 또 아잔드 족의 경우에는 동성애 관계 기간(期間)이 나뉘어 정해져 있었다고 한다. “성인이 되면 소년아내는 무사가 되어 소년아내를 맞이하였으며, 그들의 전남편은 여자와 결혼했다.”(Bolin, 2001: 64).

오마니족의 사니스(xanith)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인한 유사 동성애였다는 것이다(이는 경제적 이유로 매춘을 하는 인도의 현대 히즈라[그래서 이들을 “가짜’ 히즈라”라고 해서 “진짜’[쁘까 pukka, 문자적으로 ‘정결한, 잘 익은’을 의미] 히즈라”와 구분하려고 한다]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오마니족의 사니스의 유사 동성애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닐까? 한 마디로 이들의 행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매춘(賣春)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항문성교를 하는 매춘행

110 “아잔드의 연장자 역시 자기 페니스를 소년의 넓적다리 사이에 끼운다. ‘소년들은 자기 성기가 남편의 배나 살과 마찰할 때 어떤 쾌감이 오는지 알고 있었다’”(Harris, 1996: 144).

위다. 이는 오늘날 실정법에서도 범죄(crime)에 해당된다. 이러한 범죄를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삼비아 족의 유사 동성애의 경우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성에 대한 지식의 부족(性知識不足)에서 온 것이다. ‘정액=힘=남성성’, 이러한 성지식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성 지식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동성애가 단순히 실용적인 관점만 지닌다면 어떨까? 동성애자들 중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헌신된 동성애 관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고 말 것이다. 다음 기술하고 있는 모하브 족의 아리하(Alyha)의 경우를 생각하면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더욱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오늘날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하브의 정상적인 남녀커플처럼, 아리하가 여자 역할을 하면서 그녀의 남편과 항문 또는 구강성교를 한다. 아리하는 자신의 성기가 발기하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며, 자신의 성교 파트너에게 발기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허용치 않았다고 한다.”(Nanda, 1998: 290, 강조는 본 연구자).

III 나아가면서

1 요약

본 연구는 무엇보다 먼저 동성애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가치개입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함으로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동성애 관련 연구에서는 가치 밝히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물론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뭉저런!”이라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친]동성애자들의 ‘수[세] 불리기’ 전략의 유형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자의 능력의 한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자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수[세] 불리기’ 전략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로마시대의 동성애와 다른 문화권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 동성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 연구자들이 이들 동성애를 오늘날 동성애 범주에 포함시켜, 동성애가 마치 역사적으로도[時間性] 전 세계적으로[空間性] 유행하는 것처럼 진술하는 데 이러한 전략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오늘날 일반적인 동성애는 그리스·로마 시대의 동성애와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사 동성애와 비교했을 때 많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構成主義者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유사] 동성애의 원인이, 오늘날의 동성애처럼 ‘쾌락의 추구’나 ‘동성애적 이끌림’만이 아닌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은 이들 동성애자들을 오늘날 자신들의 동성애 범주에 포함하기 이전에 이들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맥락에서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 다른 문화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사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그들의 문화의 맥락에서 동성애를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메릴린 예롬(Marilyn Yalom)의 지적이다.

“고대 그리스의 동성 간 사랑과 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점은 오늘날

과거의 게이 및 레즈비언 관계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던 평등한 관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전혀 달랐다. 당시의 동성 간 성애 관계는 나이 많은 남성이 젊은 남성을 책임지는, 본질적으로 불균등한 관계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에로스, 즉 열정적 욕망을 경험하는 반면에 사랑을 받는 더 젊은 사람은 자신이 받는 보살핌에 대한 보답으로서 필리아, 곧 다정한 애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앞으로 지난 2500년 동안의 우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규범이 지금과 상당히 달랐던 각 문화의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Yalom & Brown, 2016: 45).¹¹¹

2 사족달기: 항문성교와 관련해서

다음은 백상현 기자의 책 『동성애 Is』에 나온 내용의 일부다. 내용이 길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겠다.

현장 전문가들 ‘에이즈 예방 사업 1순위는 게이’ ... 『국가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 개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하대 연구팀은 2013년 9-11월 이메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즈 전문가 25명에게 두 차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감염의학과 교수, 보건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국내 에이즈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한 의료인 등이 참여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 중 국가 에이즈 질병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구 집단을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인하대 연구팀이 제시한 인구 집단은 동성애자, 청소년, 성매매 종사자 등 16개였다. 1순위에는 10점, 2순위에는 5점, 3순위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차례 모두 “남성 동성애자”가 최고 점수를 기록하며 1위를 한 것이다.[질병관리본부, 『국가에이즈 관리사업평가 및 전략개발』. (2014). 116 참조] 남성 동성애자가 1차 217점, 2차 225점으로 2위와 160여 점의 큰 차이를 보였다. 2위는 청소년, 3위는 성매매 종사자였다.(백상현, 2015: 55).

오늘날 일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정체성=항문성교”라는 극단적 환원적인 이해에 두고 있다는 점[그래서 인지 몰라도 반동성애자들의 지적에서도 동성애=항문이라는 극단적 도식을 발견할 수 있다]에서 동성애자와 친동성애자들은 자신의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서의 항문성교의 안전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전문가들이 AIDS의 전염 비율이 높다고 하지 않던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남자 동성애자간의 Barebacking의 경우에는 더욱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112·113}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콘돔 없는 항문성교를

¹¹¹ 다음을 참조하라. “특정 문화의 가치관은 항상 그 문화의 이상을 대변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치관이 당위 가치관은 아니다.”(Korsgaard, in Morris, 2016: 270).; 메리 스투어트 밴 르우윈(Mary Stewart van Leeuwen)도 다음을 지적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문화든 알곡과 가라지,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뒤섞여 있음을 상기하라.”(Van Leeuwen, 2000: 130).

¹¹² 다음을 참조하라. 베어백킹(barebacking) 문화를 탐구한 『무한 섹스』(Unlimited Intimacy)의 저자 팀 딘(Tim Dean)은 “베어백킹이 아무 생각 없는 성교가 아니라 고도의 의미를 부여한 의식적 행위라고 설명한다.[Dean, 2009: 45] ... 딘의 주장에 따르면, 베어백킹은 건전화되지 않고 한계도 없고 치명적일지 모를 형태의 쾌락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남성 동성애자들을 새로운 형식의 친밀감으로 묶어준다. 이 남성들은 HIV바이러스를 매개로 일종의 계보를 만들어 내고,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는 부모자식 같은 관계를 맺는다. 혈연 네트워크 내지는 일종의 족보가 생겨남으로써, 이 남성들은 여러 세대를 중흥하는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따라 이성애자들이 족보를 만들 듯이, 베어백킹들이 바이러스를 누구

하는 것이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barebacking 즉 콘돔 없이 하는 성행위는 동성애 정체성과는 전혀 무관할 뿐이다).

에게 전염시키는 행위를 ‘번식’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Cederström and Spicer, 2016: 212-214 재인용). Dean, Tim (2009). *Unlimited Intimacy: Reflection on the Subculture of Bareback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참조.

113 제이슨 박[신경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유자로 기억하고 있다]과 어떤 질문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박제이슨b, 2015: 479-505). 처음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약간의 충격을 먹었던 내용이었다. 매우 긴 내용이지만 참고하길 바란다.

질문자: 한때 미국에서 소위 ‘버그체이싱(bugchasing) 문화’라는 게 문제가 됐었죠. 그런 사회 현상은 어떻게, 왜 등장했던 걸까요? 버그체이싱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제이슨 박: 말 그대로 ‘버그(bug), 벌레죠. 그 벌레를 쫓는다는 의미로 본인이 스스로 HIV에 감염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내가 벌레를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는 사람들은 ‘기프트 기버’(gift giver)라고 불렀거든요. 선물을 주시는 분들, 사람이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예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을 스스로 그 불안의 원인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더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걸 준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진 것처럼 주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

질문자: 미국은 대도시마다 감염인 게이의 수가 적지 않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포즈(Poz, HIV 감염자) 공동체’가 성장하고 되고, 감염인인 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는 ‘포즈 앤 프라우드’(Poz & Proud)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예 자신이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문신으로 표시하는 문화가 널리 번지기도 했었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하드코어 포즈 게이들이 일반적인 게이 문화와 별도의 문화를 형성하면서, 프라이빗 파티를 열어서 콘돔 없이 그룹섹스를 하는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씬이 되기도 했습니다.

(…)

질문자: 그러다가 새로 등장한 단어가 ‘트루바다 호어’(Truvada Whore)입니다.

…

제이슨 박: 트루바다도 “꼭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먹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막 놀겠다는 게 아니냐?” 피임약을 먹는 여자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재는 노는 애인가 봐?” 이런 눈길을 보내듯이 트루바다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만 ‘트루바다 호어’는 그걸 먹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스스로 “그래, 나 트루바다 호어야” 이러면서 티셔츠도 만들고요.

(…)

질문자: 박사님은 트루바다 복용자시죠?

제이슨 박: 먹고 있습니다.

질문자: 트루바다 호어입니까?

제이슨 박: 그런 것 같네요.

질문자: 그렇군요, 그럼 북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세이프 섹스 전략은 파기된 건가요?

제이슨 박: 최근에는 콘돔을 쓰라는 캠페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자: 그렇죠. 격세지감을 느낀달까요? 왕년의 콘돔은 AIDS 대위기의 시대를 버텨온 보호막 같은 거였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건 뭐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

질문자: 트루바다가 아주 큰 변화인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프렙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죠. 미국은 어떤가요?

제이슨 박: 적용됩니다. 보험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이 한 달에 1300달러 정도 들어요.

(…)

제이슨 박: … 자신이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상대방이 “나 어제 검사 받았는데 음성이야”라고 얘기를 해도, 그 게 어째까지 음성이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윈도 피리어드’(window period)라는 게 있어서 엄밀히 말해 검사 3개월 전에 내가 음성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라서 그 3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참고로 앞의 내용이 실린 책, 임근준 외 공저 (2015). 『여섯 빛깔 무지개』. 서울: 워크룸 프레스.의 경우 진행은 인천문화재단이 했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했다고 한다..

[표] 국가 에이즈 예방 지원 사업의 핵심 대상

(단위: 점)

순위	인구 집단	1차	2차
1	남성 동성애자	217	225
2	청소년	58	57
3	성매매 종사자	42	58
4	성인 남자	37	12
5	이주민/외국인	21	19
6	노숙인/쪽방거주자/빈민	21	7
	새터민/중국 동포		0
	정신질환자		1
7	트랜스젠더	0	5
8	여성	2	0
9	노인	1	0
	장애인	1	0
10	교도소 재소자	0	0
	군인	0	0
	미약사용자	0	0
	에이즈 고아·어린이	0	0

자료: 백상현(2015: 56)

본 연구자가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마십시오. 법률상의 죄[Crime]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Sin]입니다. 항문성교는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거나 항문성교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말에 그 어떤 권위(카리스마 Charisma, χαρισμα)가 있어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 항문성교로부터 벗어나면 좋겠지만 말이다(아니 한 발 더 물러서서 ‘안전한 항문성교를 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저 이는 원리와 원칙을 떠나서 현실성이 없는 개인적인 바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교회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에게는 그러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권면하겠지만, 그 또한 그들이 따라줄 지 의문이 사실 많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¹¹⁴⁾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성애 커뮤

114 신현우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한 자들을 오히려 감싸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역하는 것이다.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음행하는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치유하여야 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여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음행하는

니티 차원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안전과 위생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동성애자 자신과 그의 상대방을 위해, 또 그 사회의 구성원들(性的安全과 財政上의 理由)을 위해서 말이다. 물론 이성애자 중에서 항문성교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똑같은 바람이다.(배종면, 2016: 69-74 참조. “최근 양성자 발견 추세로 볼 때, 현재 15-24세 남성들에게 MSM 행위의 위험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국문초록]에서).

경우에는 교회 밖으로 출교해야 한다.”(신현우, 2016: 128).; 성인경 대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동성애는 바로 그와 같은 창조질서의 남녀의 성적 차이와 매력, 그리고 그 고상하고 거룩한 기준을 의도적으로 파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컬어 ‘역리(逆理)’, 곧 남녀의 성을 순리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롬1:26-27) 그리고 동성애는 남녀의 인간성과 정체성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곧 인간 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일부일처 결혼제도와 자녀출산, 가족제도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또한 독신자들과 성적 장애자들의 아름다운 가치관, 곧 인간에게 섹스는 필수가 아니라는 고상한 생각까지 파괴하고 맙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 대한 값싼 동정심보다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우하되 죄 된 행동을 버리도록 사람으로 도와야 합니다.”(성인경, 2001: 160-161).

참고문헌

- 강상우 (2016.11). “간디와 함께, 간디를 넘어”. 기독교문학회. 통권33호.
<http://www.worldview.or.kr/library/article/2625>
- 강석기 (2016). “21. 사이먼 르베이의 동성애 뇌구조 차이 발견”.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서: 28인의 과학자, 생물학의 지평을 넓히다』. 서울: MID. 234-241.
- 곽차섭 (2009).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동성애자들”. 곽차섭·임병철 엮음 (2009). 『역사 속의 소수자들』. 서울: 푸른역사. 18-39.
- 구미정 (2010). “성, 동성애 그리고 죄: 기독교의 불편한 진실을 재고함”. 숨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파주: 한울. 256-273.
- 길원평·도명술·이세일·이명진·임완기·정병갑 (2014).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동성애 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 탐구』. 서울: 라온누리.
- 길희성 (2016).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서울: 세창출판사.
- 김규진 (2006). 『자연환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이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김득중 (2016). 『초대 기독교와 복음서』. 서울: kmc.
-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 김재성 (2016). “5부, 제1장,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389-413.
- 김진규 (2017). “최근 동성애 논쟁의 주요 쟁점들: 제임스 브론슨의 동성애 관련 구약 본문 해석에 대한 비평”. 『신앙과 학문』. 22(1). 91-120.
- 김한근·이정화·박세정 (2012). 『알고싶은 성과 사회』. 서울: 그린. “제8장. 동성애에 대한 이해”. 225-253.
- 바른성문화활위한국민연합 (2013).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서울: 고려문화사.
- 박영숙·제롬 글렌 (2017). 『세계미래보고서 2055』. 서울: (주)비즈니스북스.
- 박제이슨 (2015a). “동성혼 법제화 투쟁의 승리, 그 명과 암”. 임근준 외 공저 (2015). 『여섯 빛깔 무지개』. 서울: 위크룸 프레스. 193-219.
- 박제이슨 (2015b). “HIV/AIDS 감염인 게이 문화의 세계”. 임근준 외 공저 (2015). 『여섯 빛깔 무지개』. 서울: 위크룸 프레스. 479-505.
- 배종면(교신저자) (2016). “남성동성애의 차별금지에 대한 HIV/AIDS 감염예방 측면에서의 공중보건학적 해석”. 『대한보건연구』. 42(2). 69-74.
- 백상현 (2015). 『동성애 is』. 서울: 미래사.
- 성인경 (2001). 『진리를 시퍼렇게 살아 있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숨프로젝트 엮음 (2010).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파주: 한울.
- 신득일 (2008). “소돔의 죄: 동성애인가? 약자에 대한 냉대인가?” 『성서와 신학』. 48. 7-36.
- 신현우 (2016). “제1부, 제3장. 동성애의 원인과 해결: 성경과 과학의 진단과 처방”.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99-141.
- 양태자 (2011). 『중세의 뒷골목 풍경: 유량악사에서 사협집행인까지, 중세 유럽 비주류 인생의 풍속기행』. 서울: 이랑.
- 윤가현 (2007). 『성 문화와 심리』. 2판. 서울: 학지사.
- 윤가현 (2001). 『문화 속의 성』. 서울: 학민사.
- 윤가현 (1999). 『동성애의 심리학』. 1판2쇄. 서울: 학지사.
- 윤선자 (2014). 『샤리바리』. 파주: 열린책들.
- 이기홍 (2013). “사회생물학의 환원주의 비판: 마음 작용의 양상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마음의 인문학 동서양의 마음 이해』. 고양: 공동체. 517-547. 이 글은 대동

- 철학회. 『대동철학』. 59. (2012)에 발표되었다.
- 이다혜·임근준 (2015). “여자가 묻고 게이가 답하다”. 임근준 외 공저 (2015). 『여섯 빛깔 무지개』. 서울: 워크룸 프레스. 19-96.
- 이정우 (2016). “제1장. 케인스주의와 복지: 베버리지와 케인스”. 김윤태 엮음. 『복지와 사상: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환』. 파주: 한올아카데미. 9-42.
- 이태희 (2016a). “8부. 제2장. 동성애, 과연 인권의 문제인가?”. 김영한 외 공저 (2016).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용인: 킹덤북스. 800-827.
- 이태희 (2016b). 『세계관 전쟁: 동성애가 바뀌 버릴 세상』. 서울: 두란노서원.
- 이현재 (2007). 『여성의 정체성: 어떤 여성이 될 것인가』. 초판2쇄. 서울: 책세상.
- 임근준 외 공저 (2015). 『여섯 빛깔 무지개』. 서울: 워크룸 프레스. 이 책의 진행이 인천문화재단이고, 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했다고 한다.
- 장민지 (2016). 『섹슈얼리티와 퀴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 정일권 (2015). 『우상의 황혼과 그리스도: 르네 지라르와 현대 사상』. 서울: 새물결플러스.
- 정희진 (2017). “들어가는 글: 여성주의는 양성평등일까?”. 정희진 엮음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서울: 교양인. 7-19.
- 조순애 (2010). “동성애와 기독교 세계관: 하느님의 큰 사랑은 경계를 나누지 않는다”. 슝 프로젝트 엮음. 『하느님과 만난 동성애』. 파주: 한울. 274-299.
- 조승래 (2009). “슬픈 ‘몰리’/즐거운 ‘토미’: 근대 초 영국의 남녀 동성애자들”. 광차섭·임병철 엮음 (2009). 『역사 속의 소수자들』. 서울: 푸른역사. 40-65.
- 차용구 (2011). “10. 남장 성녀 힐데군트와 젠더전환”. 『중세유럽 여성의 발견: 이브의 딸 성녀가 되다』. 파주: 한길사. 359-381.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게이컬처홀릭>편집위원회 (2011). 『GAY CULTURE HOLIC: 친절한 게이문화 안내서』. 서울: 시네21(주).
- 한채윤 (2017).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정희진 엮음 (2017).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서울: 교양인. 153-191.
- 王溢嘉 (1998). *性·文明與荒謬*. 野鵝出版社. 노승현 역 (2001). 『성과 文明』. 서울: 가람기획.
- Agacinski, Sylviane (1998). *Politique des sexes*. Edition du Seuil. 유정애 역 (2004). 『성의 정치』. 서울: 일신사.
- Akst, Daniel (2011). *We Have Met the Enemy*. 구계원 역 (2013). 『자기 절제 사회: 유희 과잉시대, 어떻게 욕망에 대항할 것인가』. 서울: 민음사.
- Angela Alberto (2012). *Amore E Sesso Nell'Antica Roma*. 김효정 역 (2014). 『고대 로마인의 성과 사랑』. 서울: 까치.
- Angela, Alberto (2007). *Una Giornata Nell'antica roma: Vita quotidiana, segeti e curiosita*. 주효숙 역 (2012).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일상생활, 비밀 그리고 매력』. 서울: 까치.
- Angier, Natalie (1999). *Woman: An Intimate Geography*. Houghton Mifflin Company. 이한음 역 (2003). 『여자: 그 내밀한 지리학』. 서울: 문예출판사.
- Aries, Philippe et George Duby eds. (1985). *Historie de la vie privee: Tome I: De l'Empire romain a l'an mil*. Paris: Seuil. 주명철·전수연 공역 (2003). 『사생활의 역사 1』. 서울: 새물결출판사. 폴 벤느(Paul Veyne), “제1부 로마제국” 47-350.
- Baird, Vanessa (2007). *The No-nonsense guild to sexual diversity*. New Internationalist Publications. 김교연주 역 (2007). 『성적 다양성, 두렵거나 혹은 모르거나』. 서울: 이후.
- Beard, Mary (2008). *Pompeii*. 강혜정 역 (2016). 『폼페이, 사라진 로마 도시의 화려한 일상』. 파주: 글항아리. “7장. 육체의 쾌락: 음식, 포도주, 섹스, 목욕”. 385-441.

- Bell A. P. and M. S. Weinberg (1978). *Homosexualities: A study of diversity among men and wome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Bogaert, Anthony F. (2012). *Understanding Asexuality*. Lanha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임옥희 역 (2013). 『무성애를 말하다』. 서울: 레디셋고.
- Bolin, Anne (1996). “젠더를 가로지른다: 문화적 맥락과 젠더실천”. Ramet, Sabrina Petra (1996). *Gender Reversals & Gender Cultures*. Routledge. 노최영숙 (2001).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서울: 당대. 46-93.
- Bullough, Vern & Bonnie Bullough (1995). *Sexual Attitudes: Myths & Realities*. Prometheus. 김석희 역 (1999). 『섹스와 편견』. 서울: 정신세계사.
- Buss, David M. (2003). *The Evolution of Desire: Strategies of Human Mating*. revised edition 전중환 역 (2007). 『욕망의 진화』. 서울: 사이언스북스.
- Carlin, Norah (1989). *The Roots of Gay Oppression*. London, Chicago and Melbourne: Bookmarks. 심인숙 역 (1995).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서울: 책갈피.
- Carlin, Norah (1989). and Colin Wilson (1995). 『동성애 혐오의 원인과 해방의 전망: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이승민·이진화 공역 (2016). 서울: 책갈피. 참고로 Carlin, Norah (1989 Spring). “The roots of gay oppression” *International Socialism* 42.은 “1부.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 7-122.으로 Wilson, Colin (1995). *Socialists and Gay Liberation*. Bookmarks.은 “2부. 마르크스주의와 동성애 해방”, 123-208을 번역한 것이다. Carlin, Norah (1989). *The Roots of Gay Oppression*. London, Chicago and Melbourne: Bookmarks. 심인숙 역 (1995).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서울: 책갈피)에서 출판되었다.
- Cederström, Carl and Andre Spicer (2015). *The Wellness Syndrome*. Cambridge: Polity Press. 조응주 역 (2016). 『건강 신드롬』. 서울: 민들레.
- Dee, Hannah (2010). *The Red in the Rainbow: Sexuality, Socialism and LGBT Liberation*. Bookmarks. 이나라 역 (2014). 『무지개 속 적색: 성소수자 해방과 사회변혁』. 서울: 책갈피.
- de Larocque, Gonzague (2003). *Idées Recues: Les Homosexuels*. Le Cavalier. 정재곤 역 (2007). 『동성애』.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Faure, Bernard (2004). *Le Bouddhisme, Idées Recues*. Le Cavalier Bleu. 김수정 역 (2014).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불교를 둘러싼 23가지 오래와 답변』. 초판2쇄. 서울: 그린비.
- Fee, Gordon D. and Douglas Stuart (1981). *How to Read the Bible for All Its Worth*. 2nd edn. Zondervan, 오광만 역 (2001).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 Fernandez, Dominique (1989). *Le Rapt de Ganymede*. Paris: Grasset & Fasquelle. 김병욱 역 (2004). 『가니메테스 유괴』. 서울: 수수꽃다리.
- Flaceliere, Robert (1959). *La Vie quotidienne en Grece au Siecle de Pericles*. 심현정 역 (2004). 『고대 그리스의 일상생활-페리클레스 시대』. 서울: 우물이있는집. 제4장. “아이와 교육 7, 남색”. 184-188.
- Foster, David Kyle (2001). *Sexual Healing*. Ventura, CA: Regal Books. 문금숙 (2007). 『성의 치유』. 서울: 순전한나드.
- Freedman, David H. (2010). *Wrong*. New York: Little, Brown & Company. 안종희 역 (2011). 『거짓말을 파는 스페셜리스트』. 서울: 지식갤러리.
- Gaddam, S. and O. Ogas (2011). *A Billion Wicked Thoughts*. 왕수민 역 (2011). 『포르노 보는 남자 로맨스 읽는 여자』.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Gathorne-Hardy, Jonathan (1998). *Alfred C. Kinsey*. David Higham Associates Limited. 김승욱 (2010). 『킨제이와 20세기 성 연구』. 서울: 작가정신.
- Goldhill, Simon (2004). *Love, Sex & Tragedy: Why Classics Matters*. John Murray Publishers. 김영선 역 (2006). 『러브 섹스 그리고 비극』. 서울: 예경. “제1부. 러브”. 15-107.

- Guerin, Daniel (1967). *Essai sur la revolution sexuelle apres Reich et Kinsey*. 윤수중 역 (2013). 『성 자유』. 서울: 증원문화.
- Halperin, David M. (1990). "Homosexuality: A Cultural Construct: An Exchange with Richard Schnieder" *One Hundred Years of Homosexuality and Other Essays on Greek Love*. New York: Routledge. 41-53.
- Halperin, David M. (1995). *Saint Foucault: Towards a Gay Hagiograph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mer, Dean H. (2004). *The God Gene*. Doubleday. 신용협 (2011). 『신의 유전자』. 서울: 씨를뿌리는사람들.
- Harris, Marvin (1987). *Why Nothing Works: The Anthropology of Daily Life*. 원재길 역 (1996). 『아무 것도 되는 게 없어』. 황금가지. "게이들이 밀실을 나서고 있다." 133-158. 이 책은 America Now: The Anthropology of a Change Culture(1981)의 개정판이다.
- Helminiak, Daniel A. (2000). *What the Bible Really Says About Homosexuality?* millennium edition. NM: Alamo Square Press. 김강일 역 (2003).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서울: 해울.
- Hocquenghem, Guy (2000). *Le desir homosexuel*. Fayard. 윤수중 역 (2013). 『동성애 욕망』. 서울: 증원문화.
- Ikegami, Hidehiro (2008). *Koisuru Seiyoubijyutsushi*. Kobunsha. 김윤정 역 (2016). 『사랑의 미술관: 사랑하고 싶은 그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전람회』. 과주: 다산북스. "테마22: 금지의 영역 동성애". 262-271.
- Jacobovici, Simcha & Charles Pellegrino (2007). *The Jesus Family Tomb*. 강주현 역 (2007). 『예수의 무덤』. 서울: 예담.
- Jagose, Annamarie (2012). *Queer Theory*. Alterity Press. 박이은실 역 (2012). 『퀴어 이론 입문』. 서울: 여이연.
- Jeffress, Robert (2016). *Not All Roads Lead to Heaven*. Grand Rapids, MI: Baker Books. 정성목 역 (2016).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 Jennings, Kevin (1994). *Becoming Visible*. Alyson. 김길남·김호세·양지용 공역 (1999). 『역사 속이 성적소수자』. 서울: 이연문화.
- Jennings, Theodore W. Jr. (2003). *The Man Jesus Loved: homoerotic narratives from the new testament*. The Pilgrim Press. 박성훈 역 (2011). 『예수가 사랑한 남자』. 서울: 동연.
- Johnson, Luke Timothy (1998). *The Real Jesus: The Misguided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 and the Truth of the Traditional Gospels*. New York: HarperCollins. 손혜숙 역 (2003). 『누가 예수를 부인하는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aiser, Walter C. Jr. (2001). *The Old Testament Document: Are They Reliable & Relevant?* Downers Grove, IL: 김정봉 역 (2016). 『구약성서 다큐먼트: 구약성서의 신뢰성과 적합성』. 서울: 세움과비움.
- Kern, Stephen (1975). *Anatomy and Destiny: A Cultural History of the Human Body*. 이성동 역 (1996). 『육체의 문화사』.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 Kiefer, Otto (n.d). *Sexual Life in Ancient Rome*. 정성호 역 (2004a). 『로마性풍속사 I』. 서울: 산수야.
- Kiefer, Otto (n.d). *Sexual Life in Ancient Rome*. 정성호 역 (2004b). 『로마性풍속사 II』. 서울: 산수야.
- Knapp, Robert (2011). *Invisible Romans*. 김민수 역 (2013).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이론과실천.
- Knoepfler, Paul (2016). *GMO Sapiens: The Life-changing science of designer babies*. World Scientific Publishing. 김보은 역 (2016). 『GMO 사피엔스의 시대』. 서울: 반니.

- Kudla, Hubertus (2003). *Spoele des Eros*. Munchen: Verlag C. H. Beck. 오순희 역 (2005). 『에로스의 탄생: 신화에서 발견한 32개의 사랑』. 서울: 이룸. “남성들의 우정, 즉 신화: 제우스와 가니메테스, 역사적인 인물들: 소크레테스와 알카비아테스, 히드리아누스와 안티노우스.” 428-465. 참조
- Laland, Kevin & Gillian Brown (2011). *Sense and Nonsense*. Oxford University Press. 양병찬 역 (2014). 『센스 앤 넌센스』. 서울: 동아시아.
- Laurence, Ray (2010). *Roman Passions*. The Continuum International. 최기철 역 (2011). 『로마제국 쾌락의 역사: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쾌락의 역사』. 서울: 미래의창.
- Licht, Hans. (n.d). *Sexual Life in Ancient Greece*. 정성호 역 (2003). 『그리스 性 풍속사 I-II』. 서울: 산수야.
- McLaren, Angus (1999). *Twentieth Century Sexuality: A History*. Blackwell. 임진영 역 (2003). 『20세기 성의 역사』. 서울: 현실문화연구.
- McLaren, Angus (1990). *A History of Contraception*. 정기도 역 (1998). 『피임의 역사』. 서울: 책세상.
- Mayr, Daniela F. and Klaus O. Mayr (2003). *Von der Kunst, Locken auf Glatzen zu drehen: Eine Illustrierte Kulturgeschichte der Menschlichen Haarpracht*. Frankfurt am Main: Eichborn. 김희상 역 (2004). 『털: 수염과 머리카락을 중심으로 본 체모의 문화사』. 서울: 작가정신.
- Maffesoli, Michel (n.d). *L'ombre De Dionysos.* 이상훈 역 (2013). 『디오니소스의 그림자』. 서울: 삼인.
- May, Simon (2011). *Love: A history*. 김지선 역 (2016). 『사랑의 탄생』. 파주: 문학동네.
- Meyer, Johann Jakob (1930). *Sexual Life in Ancient India*. London: George Routledge, Sons, Ltd. 김형준 역 (1995). 『인도의 성풍속 1권』. 서울: 신수야. “제7장. 성의 기쁨. ‘3. 잘못된 성행위’”. 317-327.
- Moalem, Sharon with Matthew D. Laplante (2014). *Inheritance*.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정 경 역 (2015). 『유전자, 당신이 결정한다』. 파주: 김영사.
- Morris, Ian (2015). *Forages, Farmers, and Fossil Fuel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제경 역 (2016). 『가치관의 탄생』. 서울: 반니. Christine M. Korsgaard, “논평: 8장 영원한 가치, 진화하는 가치, 그리고 자아 가치”. 267-291 참조.
- Nanda, Serena (1990). *Neither Man Nor Woman: The Hijras of India*. Wadsworth. 김경학 역 (1998).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히즈라』. 서울: 한겨레신문사.
- Nelissen, Mark (2011). *Darwin in de supermarkt*. 최진영 역 (2014). 『다윈의 안경으로 본 인간동물 관찰기』. 서울: 푸른지식. “저는 70% 동성애자 30% 이성애자입니다.” 117-122.
- Newberg, Andrew and Robert Waldman (2006). *Born to Believe: God, Science and the Origin of Ordinary and Extraordinary beliefs*. New York: Free Press. 진우기 역 (2012). 『믿는다는 것의 과학: 뇌과학이 밝혀낸 믿음의 비밀』. 서울: 휴먼사이언스.
- Okasha, Samir (2016). *Philosophy of Science: A Very Short Introduction*. 2nd. edn. Oxford University Press. 김미선 역 (2017). 『과학철학』. 전면개정판. 교유서가.
- Pagels, Elaine (1988). *Adam, Eve and the Serpent*. New York: Brockman Inc.. 장혜경 역 (2009). 『아담, 이브, 뱀: 기독교탄생의 비밀』. 고양: 아우라.
- Pasquale, Frank (2015). *The Black Box Society: The Secret Algorithms That Control Money and Inform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이시은 역 (2016). 『블랙박스 사회: 돈과 빅데이터를 통제하는 정보 제국주의의 비밀』. 안양: 안티고네.
- Phipps, William E. (1996). *The Sexuality of Jesus*. The Pilgrim Press. 신은희 역 (2006). 『예수의 섹슈얼리티』. 서울: 이룸.

- Peterson, B. N. (2016). "The Sin of Sodom Revisited: Reading Genesis 19 in Light of Torah"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59(1). 17-31.
- Posner, Richard A. (1994). *Sex and Reas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이민아·이은지 공역 (2007). 『성과 이성: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이론』. 서울: 말글빛냄.
- Ramet, Sabrina Petra (1996). *Gender Reversals & Gender Cultures*. Routledge.
- 노최영숙 (2001).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서울: 당대.
- Ray, Darrel W. (2012). *Sex & God: How religion distorts sexuality*. 김승욱 역 (2013). 『침대위의 신』. 서울: 어마어마.
- Richards, Jeffrey (1991). *Sex, Dissidence and Damnation: Minority groups in the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 유희수·조명동 공역 (1999). 『중세의 소외집단: 섹스·일탈·자주』. 서울: 느티나무.
- Roberts, Nickie (1992). *Whores in History: Prostitution in Western Society*.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 김지혜 역 (2004). 『역사 속의 매춘부들』. 서울: 책세상.
- Roudinesco, Elisabeth (2007). *La Part Obscure De Nous-Memes, Une Histoire Des Pervers*. Paris. 문신원 역 (2008). 『악의 쾌락: 변태에 대하여』. 서울: 에코의서재.
- Roughgarden, Joan (2005). *Evolution's Rainbow: Diversity, Gender, and Sexuality in Nature and Peop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노태복 역 (2010). 『진화의 무지개: 자연과 인간의 다양성, 젠더와 섹슈얼리티』. 서울: 뿌리와이파리.
- Rudy, Kathy (1997). *Sex and the Church: Gender, Homosexuality and the Transformation of Christian Ethics*. Beacon Press.
- 박광호 역 (2012). 『섹스 앤 더 처치: 젠더, 동성애, 그리고 기독교 윤리의 변혁』. 과주: 한울. 저자는 레즈비언이다.
- Russell, Paul (n.d). *The Gay 100: A Ranking of the Most Influential Gay Men and Lesbians, Past and Present*. Kensington Publishing Corporation/Citadel Press.
- 이현숙 역 (1998). 『The Gay 100』 (I-II). 사회평론.
- Scarre, Chris (1995). *Chronicle of the Roman Emperors*. London: Thames and Hudson.
- 윤미경 역 (2004). 『로마 황제』. 서울: 갑인공방. "네로". 58-66.
- Sennett, Richard (1994). *Flesh and Stone: The body and the city in western civilization*. 임동근·박대영·노권형 공역 (1999). 『살과 돌: 서구문명에서 육체와 도시』. 서울: 문학과학사.
- Spargo, Tamsin (1999). *Foucault and Queer Theory*. London: Icon Books.
- 김부용 역 (2003). 『푸코와 이반 이론』. 서울: 이제이북스.
- Spong, John Shelby (2005). *The Sins of Scripture: Exposing the Bible's Texts of Hate to Reveal the God of Love*. 김준년·이계준 공역 (2007). 『성경과 폭력』. 한국기독교연구소.
- Spong, John Shelby (2001). *A New Christianity for a New World: Why Traditional Faith Is Dying and How a New Faith Is Being Born*. New York: HarperSanFrancisco.
- 최종수 역 (2005). 『새 시대를 위한 새 기독교: 전통적인 신앙은 왜 죽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신앙은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가』.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 Spong, John Shelby (1998). *Living in Sin: A Bishop Rethinks Human Sexuality*. San Francisco: Harper.
- Squire, Susan (2008). *I don't*. 박수연 역 (2009). 『I don't: 남자는 덮고 싶고 여자는 알고 싶은 결혼의 역사』. 서울: 뿌리와이파리.
- Stanford, Peter (2015). *Judas: The Troubling History of the Renegade Apostle*. London: Hodder & Stoughton.
- 차백만 역 (2016). 『예정된 악인, 유다: 누가 그를 배반자로 만들었는가』. 서울: 미래의창.
- Stark, Rodney (1996). *The Rise of Christia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손현선 역 (2016). 『기독교의 발흥』. 서울: 좋은씨앗.

- Stryker, Susan (2008). *Transgender History*. Seal Press. 제이·루인 공역 (2016). 『트랜스젠더의 역사』. 서울: 이매진.
- Symons, Donald (1979). *The Evolution of Human Sexu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김성한 역 (2007). 『섹슈얼리티의 진화』. 파주: 한길사.
- Ujii, Mikito (1995). *Bushido to Eros*. Kodansha. Ltd. 신은영 역 (2016). 『무사도와 에로스』. 서울: 소명.
- Utrio, Kaari (1984). *A History of the Eve*. 안미현 역 (2000). 『이브의 역사』. 고양: 자작.
- van Genneep, Arnold (n.d). *Les rites de passage*. 진경수 (2002). 『통과 의례』. 개정판1쇄. 서울: (주)을유문화사.
- van Leeuwen, Mary Stewart (1991). *Gender and Grace: Love, work & parenting in a changing world*. Downers Grove, IL: IVP. 윤귀남 역 (2000). 『신앙의 눈으로 본 남성과 여성』. 초판2쇄. 서울: IVP.
- Veyne, Paul (1982). “고대 로마와 동성애”, Philippe Aries et als, *Sexualites occidentales*. Communications. 김광현 역 (1996). 『성과 사랑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 Welch, Edward T. (1998). *Blame It on the Brain?*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한성진 역 (2003). 『뇌 책임인가, 네 책임인가』. 서울: CLC.
- Welch, Kelly J. (2011). *Think Human Sexuality*. Pearson Education, Inc. 이성호·이철상·전용필·감경윤·권준영·조세형·김나경 공역 (2011). 『웰치의 성 과학』. 바이오사이언스(주).
- Wiesner-Hanks, Merry E. (2001). *Gender in History*. Oxford: Blackwell Publishing. 노영순 (2006). 『젠더의 역사』. 서울: 역사비평사.
- Wills, Gary (2001). *Papal Sin*. 박준영 역 (2005). 『교황의 죄』. 서울: 중심. “13. 동성애자 사제직.” 305-323.
- Yalom, Marilyn and Theresa Donovan Brown (2015). *The Social Sex: A History of Female Friendship*. HarperCollins. 정인지 역 (2016). 『여성의 우정에 관하여』. 서울: 책과함께.